


2008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평가

2009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평가단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목 차

제1장

평가개요

제1절 평가배경 및 목적	7
1. 평가배경	7
2. 평가목적	7
제2절 평가의 기본방향	8
1. 평가체계	8
2. 평가내용	9
3. 평가결과의 활용	12
제3절 평가단 구성 및 평가진행	13
1. 평가단 구성 현황	13
2. 평가진행	15

제2장

평가결과 요약 및 개선방안

제1절 평가결과 요약	19
1. 정책사업 평가결과	19
2. 단위사업 평가결과	21
3. 세부사업 평가결과	22
제2절 사업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23
1. 정책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향	23
2. 세부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안	25

제3장

정책사업 평가

제1절 정책사업 평가결과	37
1. 정량지표 평가결과	37
2. 정성지표 평가결과	39
제2절 정책사업 평가총평 및 개선방향	43
1. 성과지표 및 달성도	43
2. 개선방향	44

제4장

단위사업 평가

제1절 단위사업 평가요약	49
1. 단위사업 평가점수	49
2. 단위사업 성과지표 달성도	51
제2절 단위사업별 평가결과	52
1.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52
2. 예술의 국제협력 증진	54
3.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	56
4. 새로운 예술세계의 개척	59
5. 예술현장의 자생력 확보	61
6. 예술의 생활화	64
7. 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	66
8. 예술의 가치확산과 보전	68

제5장

세부사업 평가

제1절 세부사업 평가결과 요약 및 개선방안	73
1. 평가결과 점수	73
2. 세부사업별 성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77
제2절 세부사업 평가 답변 근거 및 자료	88
1. 전국연극제 및 무용제 지원	88
2. 문화의 달	91
3. 지역문화협회체운영	94
4.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 및 전시	96
5. 해외민간문화단체교류 및 해외정보서비스	99
6. 예술창조 및 표현활동지원	101
7. 수요자 및 맞춤형지원	107
8. 공연예술전문단체집중육성	110
9. 청년인턴채용 지원	113
10. 무대예술인 재교육지원	116
11. 예술전용공간지원	119
12. 미술관 운영 및 기획프로그램	124
13. 예술정보관 운영 및 기획프로그램	128
14. 작은 도서관 조성	131
15.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순회	133
16. 문화소외계층 대상 문화나눔	135
17. 지역문예기반시설활용예술프로그램제공	138
18. 문화예술서적발간	142

평가개요

1

1. 평가배경 및 목적
2. 평가의 기본방향
3. 평가단 구성 및 평가진행

제1절 평가배경 및 목적

1. 평가배경

-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설립·출범함에 따라 자율성 신장과 함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35조(성과의 평가)에 의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시행

문화예술진흥법(제35조 성과의 평가)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8조 각호의 사업 및 활동에 대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를 측정·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협의하여 성과목표 및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성과의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평가목적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율성에 대응한 책임성 강화
- 체계적인 성과평가를 통한 기금지원의 효과성 제고
- 성과평가 결과의 환류를 통한 기금사업의 효율성 제고

제2절 평가의 기본방향

1. 평가체계

- 현 정부의 정부업무평가 방향을 살려 평가제도간 연계, 자율평가(상향식 평가)와 특정과제에 대한 하향식 평가가 조화될 수 있도록 ① 정책사업(전략목표) ② 단위사업(성과목표) ③ 세부사업(세부유형사업)의 3개 영역별 평가 시행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방향과 지향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성과평가 결과가 위원회의 책임성 강화 및 사업전략 설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새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른 목표 등은 각 사업별 성과지표의 선정 및 목표치 조정 등을 통하여 구현함.
-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지침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모니터링 또는 평가 요소간의 지나친 계량화 등을 지양하고 사업의 성과달성, 핵심 성공요인 및 환류를 위한 유용한 정보 제공).

[표 1-1] 평가구성체계 설명

구분	평가방법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비 고
정책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성과지표별로 예술위원회와 합의된 성과목표치의 달성도 여부 평가 ◦ 평가지표에 따라 예술위원회의 자료를 제출받아 검증하거나(정량지표) 평가단에서 직접 수집·분석(정성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 : 3개 유형(2개 정책사업+복권기금) ◦ 평가지표 3개 유형 : 유형별로 핵심적인 2-4개 정량 성과지표 목표-수단 인과성/지원사업 시스템 등 전략목표, 사업구조/지원사업 운영체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량 성과지표는 목표치의 합리성 및 달성도 평가 ◦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세부추진사업 단계별 인과성 평가 ◦ 사업추진 유형별로 지원사업 시스템 평가
단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지침 및 양식에 따라 예술위원회에서 제출한 자체 평가보고서를 토대로 평가단에서 재검증 평가 후 총괄보고서 작성 ◦ 사업별로 평가지표별 평가점수에 따른 100점 만점 평가 후 평가등급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 : 2(3)개 정책사업의 8개 단위사업 ◦ 평가지표 : 사업계획, 집행, 성과단계별로 16개의 공통지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 ◦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성과목표치 달성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도중 일부 성과지표에 대해 평가단에서 직접 수집 분석 실시 ◦ 복권기금사업은 별도평가
세부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소위원회에서 분야별로 현장평가를 포함(사례확인)하여 사업별 성과를 직접 평가한 후 사업별 평가 보고서 작성 ◦ 사업별로 평가지표별 5등급 평가 후 가중치를 계산한 100점 만점 평가 후 평가등급 부여(평가위원별 평균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 : 3개 정책사업, 20개 세부사업 ◦ 평가지표 : 계획, 집행, 성과단계별로 공통평가지표 및 사업별 지표를 적용하여 평가 - 시설, 공모, 복권, 자체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평가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특성에 따라 일부사업 평가는 연계 ◦ 현장평가는 예술위원회 및 각 사업주관단체(복권기금)에서 주로 담당하되,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평가지침을 보완하여 활용

2. 평가내용

1) 평가대상

- 2008년도 평가는 2개의 정책사업, 8개의 단위사업, 20개의 세부사업을 평가함([표 1-2] 참고).
- 정책사업 평가대상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대 정책목표인 창의적 문화정책 구현, 문화예술역량강화와 복권기금지원사업인 소외계층문화향수기회확대를 대상으로 함.
- 단위사업 평가대상은 8개의 단위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함.
- 세부사업 평가대상은 심층평가의 특성을 반영하여 41개 세부추진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함.
 - 41개의 세부(추진)사업 중 20건을 대상으로 실시(복권기금사업 3개 포함)
 - 문예진흥기금 본 기금사업은 2007년도에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 및 복권기금사업은 모두 대상에 포함(다만,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전환되고, 2007년도에 신규사업임을 고려하여 포함).

[표 1-2] 2008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평가사업

정책사업	단위사업 (백만원)	세부사업	예산 (백만원)	세세부 사업	평가대상	
					07년	08년
I. 창의적 국민적 구민참여	1. 지역문화 예술의 진흥 (11,148)	1) 문화예술사업지역순회	1,348	(1) 전국연극제및무용제지원 (2) 문화의달 행사지원 (3) 지역문화협의체운영		◎
		2) 지역문화예술지원	9,800	(4) 지역문예진흥지원 (5)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 (6) 문화예술국제교류지원	○	
	2. 예술의 국제협력 증진 (5,135)	3) 국제예술교류지원	4,076	(7) 국제레지던스프로그램운영지원 (8) 남북및재외동포예술교류지원	○	
		4) 국제예술교류기반조성	1,059	(9) 베니스비엔날레한국관운영및전시 (10) 해외민간문화단체교류및해외정보서비스		◎
II. 지역문화 인프라 확충	3.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 (18,544)	5) 예술창조활동 지원	9,444	(11) 예술창작및표현활동지원 (12) 수요자및맞춤형지원		◎
		6) 공연예술단체집중육성	4,500	(13) 공연예술전문단체집중육성 (14) 문학특성화사업	○	
		7) 예술창조역량강화특화사업	4,600	(15) 시각예술기획사업발굴지원 (16) 공연예술프로그램특성화사업	○	
	4. 새로운 예술세계 의 개척 (5,557)	8) 예술전문인력육성	2,400	(17) 청년인턴채용지원 (18) 무대예술인재교육지원 (19) 문예아카데미운영활성화		◎
		9) 다원예술지원	1,400	(20) 다원예술지원 (21) 신진예술가뉴스타트지원	○	
		10) 신진예술인력지원	1,757	(22) 청소년문예지발간지원 (23) 사이버문학광장활성화	○	
	5. 예술현장 의 자생력 확보 (9,355)	11) 예술현장의 기반조성	2,842	(24) 기간문예단체 지원 (25) 예술전용공간지원	○	◎
		12) 예술극장운영	2,218	(26) 예술극장운영 (27) 예술극장기획프로그램	○	
		13) 미술관운영	1,280	(28) 미술관운영 (29) 미술관기획프로그램		◎
		14) 예술정보관운영	1,415	(30) 예술정보관운영 (31) 예술정보관기획프로그램		◎
15) 예술인력개발원운영		1,600	(32) 예술인력개발원운영 (33) 예술인력개발원 기획프로그램	○		
6. 예술의 생활화 (5,000)	16) 소외지역등복합문화공간조성	5,000	(34) 작은도서관 조성 <i>공공미술을 통한 생활문화환경가꾸기</i> <i>생활친화적 복합문화공간조성</i>	○	◎	
7. 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 (19,800)	17) 문화소외지역 대상 문화나눔 (※복권기금) <i>취약계층대상문화예술교육지원</i> (※복권기금)	19,800	(35)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순회 (36) 문화소외계층 대상 문화나눔 (37) 지역문예기반시설활용 예술프로그램 제공 <i>노인, 장애인 대상 교육프로그램 지원</i> <i>아동복지시설 교육프로그램 지원</i> <i>지방문화원중심지역향도문화체험프로그램개발</i>	○	◎	
				○		
				○		
8. 예술의 가치확산 과 보전 (8,712)	18) 예술의 사회적 인식 제고	6,914	(38) 문화예술서적발간 (39) 문화예술사회공헌활동지원 및 이미지제고	○		
	19) 예술조사연구 및 보전활용	1,798	(40) 기초예술정책연구사업 (41) 예술보존조사연구지원	○		
총	8개	19개	83,251	41개	20	20

※ '○'는 07 평가대상, '◎'는 08 평가대상

2)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가. 평가방법 및 지표설정 방향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취지를 살려 평가제도간 연계, 즉 상향식·하향식 평가를 조화 시킴.
- 기존 평가제도와 중복 최소 및 연계를 통한 기금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에 주안점을 둠.
- 성과평가결과를 통한 사업의 핵심성공요인 도출 및 환류의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함.

나. 평가방법 및 지표구성

가) 정책사업

- 평가방법
 - 정량지표는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제출한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평가
 - 성과지표의 인과성·합리성, 지원사업 시스템, 사업구조 등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평가단에서 평가
 - 성과지표별로 특성이 다르므로 평가지표별 가중치 없이 각 평가지표별로 개별적 평가
 - 정량지표는 정책사업별로 평가하고, 정성지표는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
- 지표구성
 - 사업별 정량지표(성과지표) 및 정성지표 4개로 구성
 - 정량지표 : 정책사업별 성과지표
 - 정성지표 : 기금사업 구조, 전략목표-단위/세부사업 인과성, 기금사업 운영체계, 지원사업 추진체계

나) 단위사업

- 평가방법
 - 상향식 평가 방식을 채택하여 자체평가보고서를 토대로 평가단에서 평가점수를 부여
 - 각 사업 주관처에서 제출한 단위사업 평가보고서 및 평가지표별 근거자료 등을 토대로 하여 문예진흥기금 평가단에서 질적 분석을 실시
- 지표구성
 - 단위사업 평가지표는 계획-집행-성과 단계로 나누어 16개 평가지표를 적용,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사업별·연도별로 성과를 비교하되, 성과를 강조하여 사업계획 30, 사업집행 20, 사업성과 50의 가중치로 구성함.

다) 세부사업

○ 평가방법

- 상향식 평가 방식으로 세부추진사업의 현장실사를 수행한 후, 세부추진 사업이 속하는 단위사업의 평가보고서와 기타 근거자료를 토대로 세부사업 평가지표에 맞추어 평가를 실시함.

○ 지표구성

- 세부사업 평가는 평가대상사업 유형별로 특성화된 지표를 사용하며, 평가결과의 환류를 고려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함.
- 계획, 집행, 성과 및 환류단계로 나누어 총 9개 지표를 각 단계별로 구성함. 기관 평가를 실시하는 미술관과 정보관은 기관 특성을 반영한 별도 평가지표를 적용

3. 평가결과의 활용

○ 문예진흥기금 사업의 지원정책방향 재정립 활용

○ 문예진흥기금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 정부의 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각종 평가 등에 활용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회 단위조직 내부간의 성과협약(목표) 제 도입 등의 기본 자료로 활용

○ 평가결과 성과가 저조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개선을 요구하고, 이에 대해 개선 등을 다음해에 별도로 보고하도록 함.

- 다만, 이러한 평가결과가 시정되지 않고, 평가결과가 지속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전략에 반영하도록 함.

제3절 평가단 구성 및 평가진행

1. 평가단 구성현황

- 평가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 11명으로 구성
- 소위원회는 8개 분과로 나누어 소위원 27명을 위촉(평가단 포함 총 38명의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단장, 간사위원, 당연직 위원은 분과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총괄 조정을 담당

[표 1-3] 평가단 및 소위원 구성 및 역할 비교

	구분	평가단	소위원회
공통점	자격	문화예술 창작·연구·기획·행정, 문화예술단체, 법조계·교육계·언론계·경제계 등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로서 문화예술 및 정책평가에 식견을 갖춘 자 중 문화예술 창작·기획자, 문화행정·연구·문화예술단체,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공무원(당연직), 정책평가 전문가 등으로 구성	문화예술 및 해당 분야 정책평가에 식견을 갖춘 자
	임기	1년(연임 가능, 단 소위원회 임기는 평가단 임기 종료시점에 맞춤)	
	위원장	평가단 위원 중에서 호선	
	대우	회의수당 및 평가수당 지급	
차이점	구성시기	7월 구성	7월 구성
	인원	11명	8개분과 27명(평가단 포함 38명)
	임명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위촉	문화체육관광부 및 평가단 협의 위촉
	기능 및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사업 주관 ○ 평가계획수립(평가목표·방향, 평가대상·방법, 평가지표 개발·활용계획 등) ○ 평가소위원회 구성 ○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의 사업성과평가 및 현장실사(평가소위 협력) ○ 평가보고서 작성 제출 ○ 기타 평가의 개선 및 발전에 관한 사항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사업의 현장실사 담당 ○ 세부사업의 사업성과 평가보고서 작성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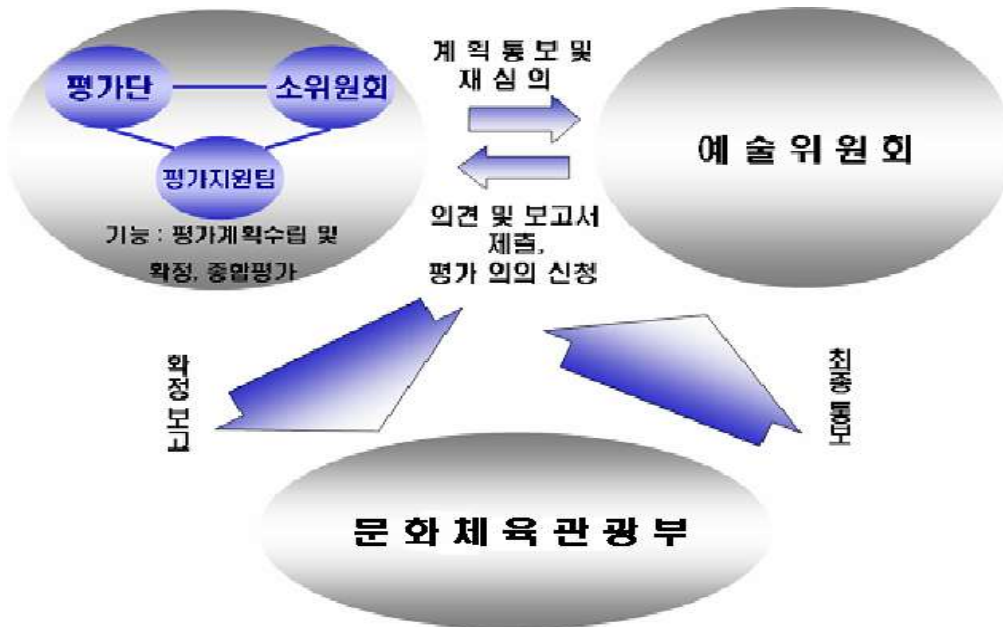
[표 1-4] 2008년도 평가단 및 소위원회 구성 현황

분과	평가 위원		
평가단	평가단장	서연호	고려대 국문학과 명예교수
① 분과 창의적 문화정책구현	평가단	소위원장	임학순 가톨릭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소위원	김두영	경희대 초빙교수, 연출가
		박성혜	무용평론가
		민현식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학과 교수
② 분과 예술창조활동지원1	평가단	소위원장	하계훈 단국대학교 대중문화예술대학원 교수
	소위원	김성호	쿤스트독미술연구소장, 중앙대 서양화과 겸임교수
		전경욱	고려대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최혜실	경희대 국문학과 교수
③ 분과 예술창조활동지원2	평가단	소위원장	정재왈 전 서울예술단 이사장
	소위원	박정양	삼육대 작곡과 교수
		김남수	무용평론가
		윤명원	단국대 음악대학 국악과 교수
		이은미	백석예술대 예술경영 교수
④ 분과 예술역량강화지원	평가단	소위원장	이용관 한국예술경영연구소장
	소위원	강윤주	경희사이버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김동언	경희대 아트퓨전디자인 대학원 교수
		이태섭	용인대 연극학과 교수
⑤ 분과 미술관 운영	평가단	소위원장	김준교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장
	소위원	김홍준(김원방)	홍익대 미술대학원 예술기획과 교수
		최병식	경희대 미술대학 미술학부 교수
		박우찬	경기도미술관 학예관
⑥ 분과 예술정보관 운영	평가단	소위원장	양건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소위원	이지연	연세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정현태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연구관
⑦ 분과 예술의 생활화	평가단	소위원장	박은실 추계예대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교수
	소위원	심재민	한국연극학회 이사
		이범언	서울미술협회 기획이사
		유진상	계원디자인예술대학 시간예술학과 교수
		라도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⑧ 분과 문화소외지역대상 문화나눔	평가단	소위원장	백령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연구원
	소위원	최현목	대구가톨릭대 무용공연학과 교수
		김주호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이종인	문화행정연구소장
		박일호	이화여대 조형예술대학 교수
		엄미선	한국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평가단	당연직	옹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장
	간사위원	정광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

2. 평가진행

1) 평가주관 및 업무분담

[그림 1-1] 2008년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평가 절차



2) 평가진행결과

□ 회의개최

- 2008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평가는 평가진행 및 평가단 회의(3회), 소위원회의(27회), 워크숍(3회), 기타 관련 회의(2회) 등 총 35회의를 개최하였음.
- 소위원회의는 분과별로 평균 3.38회 실시하였음.

□ 세부사업 현장실사 현황

- 2008년도 평가 실사수는 35건이며, 전체 분과별 실사가 균형있게 이루어짐.

평가결과 요약 및 개선방안

2

1. 평가결과 요약
2. 사업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평가결과 요약

1. 정책사업 평가결과

- 계량지표인 예술지원수혜예술가수 및 참여관객수 성과지표 부분 모든 정책사업 영역에서 당초 목표치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측정되었음.
 - 계량지표에서 목표치를 초과달성한 것은 사업성과가 목표 대비 활성화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보다는 계량지표의 측정방법의 개선에 따른 실질적인 계량 지표 측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에는 보다 적절한 목표치 설정이 필요함.
 - 단순한 추세치 보다는 대비 각 사업별 성과에 기반한 목표치 설정의 합리적인 설정근거 제시가 필요함.
 - 사업별 지표 보다는 거시적이고 전략적인 측면의 목표 설정 방식으로 전환하여 예술위의 성과를 거시적으로 측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표 2-1] 정책사업_정량지표 성과지표 및 달성률

정책사업명	단위사업명	프로그램(정책사업) 성과지표(안)	목표(A)	달성(B)	달성률 (B/A,%)
창의적 문화정책 구현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예술의 국제협력 증진	지원대상만족도(PCSI)	76.6	75.9	99
		지원프로그램 참여관람객수	1,305,164	1,170,757	90
		예술지원수혜자수	13,408	12,908	96
		예술지원단체활동수준(건)	8,495	8,607	101
문화예술 역량강화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 새로운 예술세계의 개척 예술현장의 자생력 확보 예술의 생활화 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 예술의 가치확산과 보전	지원대상만족도(PCSI)	77.1	77.5	101
		지원프로그램참여관람객수	3,978,603	6,506,688	164
		예술지원수혜예술가수	68,532	74,795	109
		예술지원단체활동수준(건)	45,261	46,208	102
		참여자만족도(관람객/이용자)	77.3	76	98
소외계층 문화향유 활성화		지원대상만족도(PCSI)	77.0	82.4	107
		지원프로그램참여관람객수	1,177,796	1,447,689	123

- 정성지표에서는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면적으로 지원프로그램 구조, 재원의 분야별, 프로그램별 배분전략, 프로그램 구조의 단순화, 목표-수단의 인과성에 고려한 프로그램의 구조 재설계 등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사업운영체계에서는 구조적으로 효율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특정 지역에 국한되는

사업이 아닌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위의 미션, 민간의 활동을 지원하는 예술 지원의 방식을 고려하여 자체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순수 지원사업 위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 지원사업관리에서는 지원사업관리시스템의 체계화, 지원심의기준의 명확화,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지원심의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지원심의위원 추천과 심의위원 결정자를 분리하여 객관성을 유지하는 방식
 - 지원심의 평가등급과 사업결과의 평가등급을 고려한 지원심의의 객관성 유지 및 환류
 - 지원신청서의 충실성을 위한 지원건수/신청건수 대비 지원금액/신청금액과의 차이의 축소 등 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2. 단위사업 평가결과

- 평가결과 8개 사업 중 매우 우수 1, 우수 1, 보통 6건으로 평가되었으며, 전체 평균은 68.4점으로서 보통 수준의 등급을 보였음.
- 복권기금사업 및 복권기금 별도 주관처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결과를 보였음.
- 전반적으로 사업집행 단계는 우수하였으나, 계획 및 성과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보여 이 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표 2-2] 단위사업 평가 등급 분포현황

등 급	가	나	다	라	마
평 가 내 용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결과 알 수 없음
최 종 점 수	85% 이상	70% 이상 ~85% 미만	50% 이상 ~70% 미만	50% 미만	근거자료 불충분
사 업 개 수	1	1	6	0	0

[표 2-3] 단위사업 단계별 평가결과

(단위 : 100점 환산점수)

단위 사업	계획(30)			사업집행(20)	사업성과(50)	취득점수 합계
	소계	사업계획(20)	사업성과(10)			
지역문화예술의진흥	60.0	60.0	60.0	75.0	70.0	68.0
예술의국제협력증진	50.1	60.0	30.0	100.0	53.2	61.6
예술가의창조역량강화	73.4	80.0	60.0	50.0	53.2	58.6
새로운예술세계의개척	50.1	60.0	30.0	75.0	70.0	65.0
예술현장의자생력확보	33.2	20.0	60.0	100.0	70.0	65.0
예술의생활화	60.0	60.0	60.0	75.0	70.0	68.0
예술의사회적역할확대	73.2	60.0	100.0	100.0	93.4	88.7
예술의가치확산과보전	73.4	80.0	60.0	100.0	59.9	72.0
전체평균	59.2	60.0	57.5	84.4	67.5	68.4

3. 세부사업 평가결과

- 평가대상 세부사업 중 매우 우수한 수준(효과적)의 평가결과가 도출된 사업은 0건, 우수한 사업(다소 효과적)이 4건, 보통이 14건, 미흡한 사업(비효과적)이 1건으로 평가되었음.
- 평균점수는 74.9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저하된 것으로 나타남(2007년 79.1점).
- 단위사업과 마찬가지로 복권기금사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결과를 보였고, 2009년에 폐지되는 사업(청년인턴채용, 무대예술인재교육)은 낮은 평가를 받음.
- 예술위원회 자체에서 운영하는 사업 중 미술관운영 사업의 평가는 미흡(60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집중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표 2-4] 세부사업 평가 등급 분포 현황(조정결과)

등 급	가	나	다	라
평 가 내 용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최 종 점 수	90% 이상	80% 이상 ~90% 미만	60% 이상 ~80% 미만	60% 미만
사 업 개 수	0	4	14	1

[표 2-5] 세부사업 평가점수 및 등급 결과

사업구분	평가점수	평가등급
전극연극제 및 무용제 지원	71	보통
문화의 달 행사지원	83	우수
지역문화협의회 운영	74	보통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 및 전시	77	보통
해외민간문화단체교류 및 해외정보서비스	76	보통
예술창조 및 표현활동지원(시각, 미술)	77	보통
예술창조 및 표현활동지원(공연예술 및 기타)	76	보통
수요자 맞춤형 지원	77	보통
공연예술전문단체 집중육성	78	보통
청년인턴채용지원	68	보통
무대예술인 재교육지원	56	미흡
예술전용공간지원	68	보통
미술관 운영 기획프로그램	60	보통
예술정보관 및 기획프로그램	78	보통
작은 도서관 조성	74	보통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순회	84	우수
문화소외계층 대상 문화나눔	84	우수
지역문예기반시설활용예술프로그램제공	79	보통
문화예술서적 발간	83	우수
평 균	74.9	

제2절 사업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정책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정책사업 문제점

- 거시적이고 전략적인 성과목표의 설정이 미흡하다 보니, 단위사업과의 성과목표/지표의 차별성이 미흡함.
- 문예진흥기금의 지원규모가 대폭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화향유수준의 제고 등 주요한 목표에서 실질적이고 상응한 성과(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음.

2) 정책사업 개선방향

가. 예술지원의 원칙과 방식의 재정립

- 시장실패에 따른 부족한 비용의 보전 방식에서 전략적인 목표 중심의 지원으로 전환
-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정책의 전환

나. 선택과 집중에 따른 전략목표의 명확화 및 성과 제고

- 선택과 집중의 지원 패러다임을 문예진흥기금사업 전체에 적용
- 선택과 집중은 다음과 같은 2가지 전제가 필요함.
 - ① 선택을 하는 가치와 목표 및 전략이 명확하여야 함.
 - ② 집중을 위한 규모와 범위를 위한 수요와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대상범위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선택과 집중을 위한 전략적 우선순위와 목표의 명확화를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위원회간의 전략적인 성과목표 등의 설정이 필요함.
-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는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전제되어야 함.
-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는 1회성 프로젝트 중심에서 단체지원 중심으로 전환

다. 직접지원 위주에서 사회적 프로젝트, 간접지원 방식의 대폭 확대 도입

- 직접지원은 예술이 필요로 하는 재원의 확보에 한계가 있고, 민간이나 지역사회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에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음.
- “생활속의 예술 확대” 방식은 단순히 소외계층에 대한 접근성 제고 차원을 넘어 이러한 사회프로젝트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임.
- 직접지원에서 간접 지원 방식도 사회적 프로젝트의 관점과 연계됨.
- 자체 지원시설 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

라. 지원사업 관리의 효율성 및 성과의 제고

- 문예진흥기금의 형식적인 체계성에서 진일보하여 실질적인 공정성, 신뢰성,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식 도입
- 사후지원 제도의 도입과 확대는 이러한 지원사업 관리의 근본적인 혁신을 위한 전제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
- 선택과 집중, 사후 지원, 수요자 중심 등의 원칙과 제도에 따른 지원심의제도의 대폭적인 혁신
- 선택과 집중, 사후 지원, 수요자 중심 등의 원칙과 제도에 따른 지원심의제도의 대폭적인 혁신
 - 전문성 제고, 신뢰성 제고 등을 전제로 예심 제도의 전문화 도입 검토
 - 사업의 유형 또는 단계별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심의기준에 따라 사무처 중심의 예심제도 단계적 도입 검토
 - 책임성과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책임심의관 제도의 단계적 확대 도입(성과 계약제 도입) 검토
 - 심의위원 구성의 원칙을 정교화하고, 구성 원칙에 따른 결과를 비교하여 공개
 - 공급자 중심의 지원심의 한계를 탈피하기 위한 수요자 관점의 해당 분야 비전문가(예술적 소양과 이해가 높은)의 지원심의위원 또는 지원심의 반영제도 도입
- 계량지표인 예술지원수혜예술가수 및 참여관객수 성과지표 부분 모든 정책사업 영역에서 당초 목표치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측정되었음.
- 비계량지표인 고객만족도는 소외계층 문화향유 활성화를 제외하고는 모두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측정되어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되었음.
- 전반적으로 성과지표의 적절성,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등의 개선이 필요함.

2. 세부사업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사업명	성과	문제점	개선 및 권고사항
1. 전국연극제및무용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극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순회개최로 지역연극 활성화 도모함. - 조직 및 인력이 효과적으로 운용됨. - 2009년 세계도시엑스포 및 2014년 아시안게임과 연계하여 연극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함. ■ 무용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편성시 매칭펀드로 유도하여 예산 확보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극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객확보에 대한 계획과 추진 미흡 - 전반적으로 작품의 내용이 평이하고 수준미달. - 경연의 1일 2회 공연은 사업목적과 적합하지 않음. - 연극제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 무용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보고서 및 심층 보고서 전무 - 행사 집행이 일 년 단위로 한시적으로 진행되어 행사 진행시 축적되는 노하우 등이 제대로 피드백 되지 못함. - 성과지표, 심사지표의 명확성 부족 - 회계 처리의 명확성, 정확성이 현격히 떨어짐. - 행사를 통한 예술성 고취 실패 및 우수작을 통한 새로운 미학적 담론 제공 미비(경연에만 의존하여 경연용 작품만 양산) - 17회를 거치면서 관례화된 사안들이 다수 있고 전반적인 행사 운영이 부정적으로 고착화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극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은 오랜 시간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음. - 관객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교육되어야 함. - 시도단체 공연 및 경연방식 개선해야 함. - 페스티벌 형식을 지양하고 순수한 연극축제가 되도록 개선해야 함. - 다양한 형식의 연극을 선보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개선되어야 함. ■ 무용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위 역량 미달로 예술위의 책임 하에 독립적인 협의체 구성하여, 일회적 운영에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성과와 노하우 축적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가능함. - 경연 방식은 유지하되 심사 성과지표와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함. - 수상단체에 미친 영향, 수상단체에 대한 메리트 제공 등의 사후관리 지원과 연계 필요 - 문화예술의 자율성과 창작성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지원받은 단체 및 기관이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와 매뉴얼 개발 및 지도가 필요함. - 궁극적 목표달성이 가능하도록 현재의 1회 공연에 따른 심사방식을 개선하고 수상단체 중심의 집중행사로 개선 검토
2. 문화의달 행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문화 향유권 및 생활문화 활성화를 이룸. - 중앙과 지방의 문화격차를 해소 위해 국가적 행사인 문화의달 및 문화의날 기념식을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함. - 사업계획 기획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시민참여를 유도함. - 충북도와 청주시가 당연직 추진위원을 배치하고, 민간전문기구로 집행위원회와 지도위원회를 배치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함. - 예산 집행률이 매우 적절함. - 관객 호응도가 매우 높았으며,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속성의 보장이 결여되어 성과를 축적할 미평한 장치 부재 - 타시도민 및 외국인의 참여율이 낮음. -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부재 - '삶의 양식이 곧 문화' 라는 의미를 행사 속에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부족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의 질과 체계를 확립하고, 관광상품 및 지역문화상품을 개발하여 행사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함. - 각 지역의 전통문화를 발굴, 계승, 발전시키는 프로그램과 전통의 현대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시도가 지속적으로 기획되어야 함. - 자원봉사자에게 행사취지나 업무분장에 관한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져야 함.

사업명	성과	문제점	개선 및 권고사항
3. 지역문화 협의체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기관 및 지역문화 예술교육협력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협의체 역할이 확대됨. - 사업구조가 회의 중심으로 단순화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를 주로 회의에 초점을 둬으로써 사업구조가 비교적 단순하여, 협력네트워크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공동사업이 취약함. - 광역단위 지역문화재단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역할 및 사업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홈페이지 운영사업의 경우 아직 기존 정보 교류 수준이며, 지역문화기관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식정보관리체계가 구축되지 못함. - 구체적인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 광역 및 지역단위 문화재단에 대한 지역문화협의체의 역할이 불분명하며, 구체적 계획 부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협력네트워크구축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협의체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을 위한 중장기계획수립과 연구개발 필요 - 광역 및 기초단위 문화재단의 공동사업(공동연수사업, 인력교류사업, 해외연수사업 등)을 개발추진함으로써 지역문화재단에 실질적 도움 제공 및 참여 활성화 제고 - 단순 정보교류 차원을 넘어 공동지표 개발을 통해 공동정보 산출, 관리, 서비스하고 나아가 신규 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컨설팅 기능 강화 - 예술위 국제문화예술네트워크와 연계하여 협의체가 지역의 국제네트워크 창구역할을 수행 - 신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추진체계 필요 - 협의체 참여 재단 현황 제시 - 홈페이지상 정보제공 수준분석(자료현황 및 이용정도 분석)
4. 베니스비엔날레한국관운영및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미셔너 개인의 역량으로 외부 후원금, 기부금 유치가 전례에 비해 탁월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부문 예산 미흡 - 외부 협찬금 유치를 커미셔너 개인 능력에만 의존함. - 홍보 및 관람객 모니터링 부족 - 커미셔너 선정시기가 늦고, 기획과 준비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 - 주최측 및 전체 커미셔너와의 소통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 및 모니터링비용, 해외전문가 초빙비용, 작가 전시지원금 확충 등 예산 항목 및 금액 확충 필요 - 커미셔너 선정방식이 선정위원회 추천이 아닌 공모형식으로 개선 필요 - 커미셔너 선정시기가 기존에는 당해연도초 또는 전년도말에 이루어졌으나, 앞으로 최소 2년전에 선정되어 충분한 작업시간이 주어져야 함. - 국내외 홍보를 위한 발표회, 토론회, 규곡전 등의 개최 필요하며, 관련기관 인사들의 적극적 초대 필요 - 현지 평가단에 건축, 도시 전문가 및 전 커미셔너의 참여 적극 검토 - 관람객 모니터링을 조속하고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함. - 한국관 위치가 주동선에서 떨어져 인지도가 낮은 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낙후된 한국관의 시설보수 및 인프라 확충 필요
5. 해외민간문화단체 교류및해외정보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문화단체 교류사업의 경우, 국내외 협력기관 선정 시 명확한 원칙과 기준 부재 - 해외통신원제도의 경우, 운영 및 활용 목적이 명확하지 않고, 해외 나라 선정 시 원칙과 기준이 명확히 설정되지 못함. 해외정보에 대한 수요조사 또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 민간부문의 국제교류 지원사업의 경우, 성과지표 및 성과관리체계가 명확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문화단체 교류사업을 위한 종합계획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존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해외문화단체의 특성분석 및 교류협력 전략을 개발해야 함. - 해외통신원제도의 경우, 객관수요조사 및 정보 활용도 조사를 통해 해외나라 정보유형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문화단체 및 기관과의 MOU를 통해 상호 정보를 교류하는 체계 구축 필요 - 민간부문 국제교류사업지원에 대한 성과관리 모델을 개발하여 체계적 지원 및 관리 필요 - 우수한 해외레지던스 프로그램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체계 구축 -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경우, 장기지원사업 개발 필요 - 교류대상인 해외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정보관리체계 구축 필요 - 우수한 해외레지던스 프로그램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체계 구축 -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경우, 장기지원사업 개발 필요 - 교류대상인 해외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정보관리체계 구축 필요

사업명	성과	문제점	개선 및 권고사항
6-1. 예술창조 및표현활동 지원 (문학,시각예술)	<p>■ 시각예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예술의 경우, 지원심의와 객관적 평가를 통해 결정된 지원체계는 자금 지원 목적과 부합함. - 개인 및 단체의 지원범위 및 추진방식이 적절함. <p>■ 문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의 비율이 높음. - 심의기준은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함. - ‘문학창작집 발간지원’의 지원조건은 현 문학출판 시장의 규모와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한 것으로 실효성을 거두기에 적합함. - 재정의 구성내역과 집행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p>■ 시각예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규모가 작아 단순 전시 외 적극적 활동 및 관람객과의 소통이 어려움. - 지역별 할당 불공평 및 소액다건과 선택과 집중의 불균형 - 형식적인 전문가 현장 평가 - 재정자립도의 부재 <p>■ 문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유형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소액다건식 및 정액식 지원방법 문제 - 기획 및 평가 등의 절차가 너무 번거로움. <p>■ 연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와 같이 연례행사로 지원이 지속된다 보면 지원주체나 수혜자 모두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우며, 평가자 또한 관행적인 평가에 의존하게 됨. - 각종 심의과정에서 평가위원들의 중복 참여는 지원제도의 객관성 확보에 치명적인 장애임. - 예술위 산하에 ‘예술지원컨설팅센터협력단’을 두어 지원대상자들 지원컨설팅과 성과관리를 유도했지만, 이 조직의 인적 구성과 역할이 적절하지 의문 	<p>■ 시각예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질 향상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지원 규모를 늘리고, 우수 사업에 선별적 집중지원을 고려해야 함. - 지역별 할당 문제가 선정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함. - 모니터링과 전문가 현장 평가가 강화되어야 함. - 개인전은 소액다건 위주, 단체전 및 기획전은 선택과 집중 지원이 요구됨. - 전문기획자의 기획 중 상업성이 내재된 갤러리 대표 자체 기획전이나 유명 작가에 의지한 전시는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함. - 재정자립도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케 해서 기금 외 기부금 내역의 허위 정산 보고사가 제출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방침을 마련해야 함. - 지속적으로 수혜 받는 작가나 단체들에 대한 중복 수혜 검토 필요 <p>■ 문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진흥재단의 연구박사제도와 같이 창작인턴 제도를 만들어 가능성 있는 창작인들에게 일년치 생활비를 지급하는 방식에 대한 검토 필요 - 개인에게 혜택이 돌아가 창작 역량을 강화하기보다 창작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시스템 개발 필요 - 심사비의 효율화를 위해 시스템을 합리화하여 공정하고 간편한 검증 시스템 필요 - 장편소설 분야는 다른 분야와 동일하게 정액지원하기 보다는 대폭 증액하는 방안을 찾아야 함. - 시, 시조, 소설, 희곡, 동시, 동화, 평론 및 수필을 동일한 수준에서 정액지원하기 보다 평론과 수필은 다른 분야보다 금액을 낮추거나 지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p>■ 연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택과 집중’을 유도할 수 있는 기준과 지원방식을 공모과정에 명확히 제시할 필요 있음. - ‘선택과집중’은 좋은 작품에 조금 더 지원한다는 소극적인 방식이 아닌 ‘킬러 콘텐츠’를 육성하는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 있음. - 현행 심사와 평가방식이 복잡하므로, 소수더라도 심의와 평가자를 다년간 선임해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책임성을 도모해야 함. - 매년 일정액의 기업 후원금 및 기부금의 확보 의무화를 고려해야 함.

사업명	성과	문제점	개선 및 권고사항
<p>6-2. 예술창조 및표현활동 지원 (공연예술)</p>	<p>■ 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액 다건주의에서 '선택 과집중' 이란 방법론을 택하여 지원한다는 방침이 매우 바람직함. <p>■ 전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는 성과목표와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반영함과 아울러 결과에 초점이 맞추어 설정됨. - 사업의 범위 및 지원예산 사용비율, 수혜자의 범위 및 규모는 적절하다고 봄. - 성과지표가 비교적 우수함. 	<p>■ 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사업의 실제적 운용 방식에 많은 문제가 있음. 이익집단화 된 몇몇 사적 개인이나 학벌을 중심으로 한 줄서기 문화가 지원의 현실에 깊게 자리잡음. <p>■ 음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위원선정에 있어 특정인이 여러 분 이평가참여 및 지속적인 참여하는 것은 문제임. - 정부와 사업당사자 모두 문예진흥기금 이외의 기금확보노력이 부족함. - 장르별 지원금 편차 폭이 큼. <p>■ 전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대상자들의 결정 사유가 불명확함. - 현장 실사 실적 저조 등 전체 계획 대비 실적이 불일치함. - '관객만족도' 성과지표는 확인이 불가능함. - 사업 종료 후 사업의 성과 및 성취업적 과 그 효과를 널리 사회에 알리고 홍보하는 일이 부재함. 	<p>■ 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 및 평가방식에 있어 공공성을 살리기 위해 '대중관객 친인위원회'와 같은 실험적인 평가단을 만들 필요 있음. - 정보 공개를 통해 보다 투명한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p>■ 음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확대, 기금 종류 및 지원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각 기금 특성과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이 선정되고 지원받도록 해야 함. - 현재의 방만한 평가방식을 간소화하고 효율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 <p>■ 전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자 결정사유를 보다 큰 명목과 명분 항목을 설정하여 사전 고시해야함. - 현장실사 실적저조 등 전체 계획 대비 실적을 향상시키고 개선해야 함. - '관객만족도' 등의 성과지표를 정확하게 조사 실시하고 통계화해야 함. - 자체 지원금 확보 외에 기부금 조성, 특별 예산 지원을 통한 일반 사업지원 노력을 기해야 함.
<p>7. 수요자맞춤형지원</p>	<p>■ 수요자맞춤형지원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차에 걸쳐 지원신청을 받아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예산은 계획대로 집행됨. - 기존 지원사업과는 차별성을 두어 진행하려는 의지가 보임. 	<p>■ 수요자맞춤형지원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방향 및 심사기준이 구체화되지 않음. - 지원시기를 해당연도에 국한하여 계획성 있는 기획사업진행 유도가 어려움. - 5차에 걸친 신청기간, 심의회의 일, 선정단체 발표시기가 변동이 잦고 행정진행이 늦어짐. - 장르별 선정건수 및 예산지원 편중이 심함. - 5차에 걸친 선정단체 중 예술위에서 실시하는 자체평가인 2008년 문예진흥기금 성과평가위원들(제3기 소위원회, 현장평가위원)의 사업이 선정됨. <p>■ 예술지원컨설팅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지원컨설팅센터의 대부분 업무가 지원사업과 평가에 치중됨. - 문화예술인 또는 단체가 필요로 하는 컨설팅업무 부재 - 적극적인 홈페이지 운영 미흡 - 컨설턴트들의 진정한 컨설팅의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 <p>■ 국민재단예술프로젝트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수립 부재 	<p>■ 수요자맞춤형지원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위원 구성 시 내부직원 비율 축소 필요 - 지원방법의 수시상담을 통한 단체지원심의의 형평성 문제 개선 필요 - 계획수립이 미리 이루어져 1-3월 사업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5차에 걸쳐 진행되는 만큼 신청기간 관련 홍보를 강화해야 함. - 분야별 심한 지원금액 편차 개선 필요 - 해외사업의 경우 평가방안 연구 필요 - 수요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행정적 제도 마련 필요 <p>■ 예술지원컨설팅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신청단체 입장에서 필요한 자료 구축 필요 - 사용자 입장에서의 관점 필요(사용자가 이용하기 쉬운 홈페이지 구축 등) - 컨설팅보고서의 각 분야별 통일성 있는 양식 및 해당직원들의 성의 있는 자료구축 필요 - 해당업무 직원들의 컨설팅 능력 배양 시급 - '예술지원컨설팅센터협력단'은 해체하거나 설립 근거와 역할분담을 보다 명확히 설정할 필요

사업명	성과	문제점	개선 및 권고사항
8. 공연예술 전문단체 집중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된 단체들은 이미 공연계에서 상당한 기량과 업적을 보여 온 단체들로써,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다년간 지원하여 단체의 예술창작 역량 및 국제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창작활동 기반을 제공함이라는 지원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 가능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 2007년에 처음 지원받은 단체들에 대한 전문가 평가서본, 2008년도에 지원받은 단체에 대한 자료 전무 - 일률적인 이행 조건은 현실적으로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어려움. - 지역협력형 사업으로의 이관을 위한 준비 미비 - 지역이관시 지역 특성 및 분야를 고려하지 않은 1/n의 분배방식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보고서, 전문가 평가서, 관객의 질적 만족도에 대한 정밀한 분석 자료 제공되어야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 - 개별 단체의 유형과 성격에 맞는 '단체별 맞춤형 지원방식' 필요하며, 맞춤형 컨설팅이 병행된다면 보다 실질적 지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지원받은 단체와 공연장이 결합하여 시즌별 레퍼토리를 개발할 수 있도록 간접 지원 방식 등의 도입을 통해 기회확대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 -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단체의 순차적 선정과 수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선택과 집중'의 취지가 퇴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원규모와 기간을 늘려 '선택과 집중'의 강도를 더 높여야 할 필요 있음.
9. 청년인턴 채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분야청년인턴채용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 향유 매개활동 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 - 사업 신청인원(2008년도 121개 단체 619명)을 볼 때, 사업의 수요와 지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지원목적성 문제 : 청년인턴 사업을 취업과 관련하여 인식하고 있는 것이 문제. 인턴은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생각해야 함. 인턴사원이 필요하다면 인턴사원 육성계획 및 교육계획이 갖춰져 있어야 하지만, 현재 갖추어 있지 않음. - 문화예술기관의 현황과 문제점 : 체계적으로 실무능력을 교육하고 자질을 키워주는 담당인력이 전무하고, 현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실무경험을 체득시킬 업무를 배정하지 못하고 인턴근무자는 단순업무에 단기간 배치되어 사업기간 종료와 함께 원상태로 복귀하게 됨. - 사업의 적절성과 기여도 문제 : 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화예술기획경영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내용 중복됨. - 평가지표 설계의 문제점 : 입체적인 평가지표 개발로 단순 정량화 방식의 한계를 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목적에 알맞은 운영방식으로 전환해야 함. - 인턴십을 제도화 - 각종 문예진흥기금 단위사업과 연계방안 강구해야 함. - 새로운 평가지표 개발 필요
10. 무대예술 인재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원 지적사항을 일부 시정 조치 완료하는 등 그 동안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고 보여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목적의 적합성 모호 : 보다 체계적인 교과과정과 세밀한 계획에 의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교육목표의 불확실성 : 무대예술인 재교육 지원은 무대 위에서 활동하는 공연예술인 모두를 위한 포괄적인 재교육 과정이지만, 교육내용은 배우들의 기본적 연기교육과 작품제작으로 채워져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교육기관 지정 - 교육목표를 명확히 설정 - 프로그램 레벨에 의한 수준별 선택 가능하도록 조정 - 소수정예교육 필요 - 다양한 교과과정과 교재 개발 필요 - 교육공간마련 필요

사업명	성과	문제점	개선 및 권고사항
10. 무대예술 인재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대상자 선발을 위한 객관적 평가지표 결여 - 사전 교육과정의 수립과 공지 결여 - 교육과정의 참신성 결여 - 예산운영의 비합리성 - 강사 풀 빈약 - 교육공간의 부적합성 	
11. 예술전용 공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진흥지원에서 문학분야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기금지원목적과 적합함 - 사업수혜 및 참여대상자 범위와 규모에서 적절하게 사업이 수행됨 ■ 공연예술전용공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목적 명확하고 적절함 - 열악한 공연제작환경을 고려할 때, 지원 필요성 인정됨. - 고객만족도를 전반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사업 담당자들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인سام미술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 및 계획을 비추어 볼 때, 지원 및 기금목표달성이 적절함. - 문예진흥기금을 통해 실험적이고 진취적인 신진작가 양성 및 토론을 위한 장을 마련하는데 지원한다는 취지에 부합함. - 지원수요의 타당성은 긍정적임.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 및 연계협력 등이 이루어짐 ■ 비영리전시공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안공간에 대한 지원목적 분명 - 해당단체들의 대한 지원의 적합성 담보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이 분명해야하며, 그에 따른 구체적 성과지표 필요 - 사업 모니터링 체계 부재 - 회계보고 불명료 ■ 문학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본적 시정 필요 - 계획단계에서부터 '단순히 시설을 지원한다'는 당위론적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 내실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이 되지 못함. ■ 공연예술전용공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표지와 비교해서 성과단계에서의 실제 목표 달성이 다소 부족 - 사업의 심의위원과 평가위원이 동일한 경우 발견됨. 사업의 공정한 평가에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인سام미술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방식 및 지원지지도 제고 여지 있음. - 조직관리 운영 개선, 사업프로그램 선정 및 추진(실행)의 객관적인 수월성 지향해야 함. - 인سام미술공간의 사업범위와 내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 필요 - 각 기관 및 기구의 임무가 지닌 명확성에 따라 각 사업내용을 정해야 함. ■ 비영리전시공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례사업임에도 혁신에 대한 계획 전무 - 매년 증액되는 예산집행의 근거 부족 - 대안공간의 구체적인 기여 및 재정 자율성 확보 노력 전무 - 비영리전시공간지원은 대안공간 지원이라고 볼 수 있음. 각 대안공간들의 '대안성'이 어떻게 미술창작 및 신진작가지원과 시민들의 미술문화향수에 기여하는가에 대한 정의내려야 함. - 1년 단위로 지원하던 것을 2년 단위로 지원기간 및 액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구체적 근거 전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목적, 지원대상 및 사업내용을 구체화시킴 - 구체적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관리, 관리체계 및 모니터링 제도 필요 ■ 문학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방식의 전면적 혁신 필요 ■ 공연예술전용공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심의위원 및 평가위원 선정시 보다 확대된 인력풀 가동 필요 - 간접지원방식과 연계하여 지원방식 개선과 함께 사업 확대 조정 검토 ■ 인سام미술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관리 운영 개선과 사업 프로그램 선정 및 추진(실행)의 객관적인 수월성 지향해야 함. - 위원회 직접 운영방식 보다는 간접 지원 및 기존사업과의 연계 방식 검토 - 특성화된 전문공간으로 활용 개선 검토 ■ 비영리전시공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안공간의 지원방식과 자율성 및 재정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이 고려되어야 함.

사업명	성과	문제점	개선 및 권고사항
11. 예술전용 공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원예술매개공간지원 - 인력 및 조직의 구성, 연계협력 등 어느 정도 이루어짐 - 주어진 사업계획을 높고 보았을 때, 대부분 주어진 임무 완수됨 - 예산 집행 역시 대체로 사업계획 당시에 수립된 내용에 따라 이루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원예술매개공간지원 - 다원예술에 대한 정기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사업이 먼저 시행함으로써, 적절한 사업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함 - 정확한 목표제시 부재는 달성도 불분명하게 만들 - 지원수요의 적정수요와 지지가 불투명 - 다원예술창작공간인지 매개공간인지 정체성에 대한 혼란 있음. - 본 사업의 목적인 지원, 네트워킹 및 다원예술매개 등에 역량의 한계 보임 - 참신성과 수월성에 있어서, 타 공간과의 차별점 전무 - 구체적인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선도적인 사업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실행능력이나 사업수행 능력이 부족하면 실험적이고 선도적 예술에 대한 담론이나 비평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원예술매개공간지원 - 장차 예술창작의 형식적 내용적 발전에 기여할 항목들을 적시하여 그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명확한 비전을 지닌 디렉터가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지원하여, 성과를 도출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음.
12. 미술관운영 및 기획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들 간의 업무배분, 다양한 행사들 간의 유기적 연계, 외부인력 참여를 위한 네트워크 운영은 적절함. - 제 3갤러리 편의시설 조성, 전시장 매니저 운영, 자체 모니터링 제도 추진, 어린이 전용교육공간 조성 등 고객의 요구에 대응하려는 노력을 상당히 기울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르코미술관 설립목적과 운영방향이 모호한 상태 - 근무인력 전문성 부족 - 인사미술공간과의 이중적인 운영체제 문제 - 타 미술관이나 대안공간 등과 차별화된 아르코 미술관만의 성격과 ‘브랜드 가치’를 추구해야 함 - 백화점식 행사구성 및 부대행사의 과다, 수익성에 있어 큰 도움이 되지 않는 프로젝트 등으로 인해, 그간 ‘미술계를 선도하는 중량감 있는 전시와 쟁점 있는 토론의 장’으로 기능해 온 아르코미술관의 위상이 약화된 상태임. - 아르코미술관의 기본 정체성 자체가 모호한 상태이므로, 결과적으로 여러 기획전들의 기획취지 역시 모호하며 파급력이 미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위 미션과 관련한 운영방식 또는 기능의 전면적 재검토 필요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 재조정 요망 - 인사미술공간 연계를 통하여 실험적 또는 독립큐레이터 지원공간 등 미술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예술위 미션에 적합한 특화된 공간 전환 검토 - 운영 및 프로그램 특화를 통해 한국 미술계에 중요한 담론생산의 허브로서의 기능 회복 - 역량 있고 검증된 전문 학예인력 보강 필요 - 운영책임자인 관장이 일정 기간 소신을 가지고 개선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소 3년 이상 임기 보장. 필요시 인사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권한 필요. - 전시장 및 공간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시설 개선 요망됨. 전시시설의 전면적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확보, 수장고 확충, 편의시설 확대 및 고급화 등 근원적인 공간운영계획에 따른 시설 개선 필요. - 무료 개방을 통한 공공성 강화
13. 예술정보관 운영 및 기획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정보관 세부사업과 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 목적과 적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콘텐츠 다양화 및 서비스 미흡 : 예술정보화 전략계획부분에 있어서 콘텐츠 수집, 제작 원활한 반면, 서비스(정보화)부분에서 다소 미흡. - 국가 문화예술정보 허브기관으로서의 대표성 취약 - 전문인력 부족 : 학예연구원, 아카이스트, 컨서베이터, 전산 프로그램 및 기획자 등 예술기록보존기관 운영을 위한 필수 직역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함. - 전문가 평가 및 환류과정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위 미션과 관련한 운영방식 또는 기능의 전면적 재검토 필요 - 국가 문화예술정보 허브기관으로서의 대표성 강화 가능성 내지 예술위 사업 관련 자료관 역할 등 근본적 기능 재검토 필요 - 기존 또는 신규 공연예술자료관(국립극장등)과의 역할 분담 및 연계성 강화 - 가능성이 어려울 경우 국가 예술아카이브로 별도 독립 검토 - 문화예술콘텐츠의 다양화 및 서비스 개선 - 전문성을 갖춘 인력보강

사업명	성과	문제점	개선 및 권고사항
13. 예술정보관 운영 및 기획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사회교육프로그램 조정 : 6개 예술사회교육 프로그램들이 예술정보관 고유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하다고 판단하지만, 고객관리차원에서 불가피한 측면과 수십년간 지속된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합리적인 차원에서 조정이 요구됨.
14. 작은도서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실태에 관한 현장조사 실시 - 계획대비 대부분 사업 수행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은도서관 건립이란 항목 자체는 예술진흥과 관련이 적음. 사업주체 또한 국립도서관으로 민간 예술분야 지원을 목적으로 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목적과는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성과목표 상 '조성건수' 하나로는 사업 성과 측정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관광부 자체 예산사업으로 추진 검토 - '조성건수'는 지원하면 자연스럽게 도출된 목표로, 성과지표로 부적절. 세부적으로 '조성건수', '이용자 수 및 만족도', '상호대차서비스 참여 도서관 수', '도서관 내 대출건수', '도서관 내 프로그램 운영 건수 및 참여자' 등 도서관 서비스 다양화와 프로그램 다양화 차원에서 보다 다양한 지표를 설정해야 함.
15.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순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향수권 신장, 문화적 격차 해소 및 문화복지 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문화예술진흥기금과 복권사업기금 목적에 적합함. - 사업수행체제 개선, 협력자 협력기관 책임성 강화(사업 설명회, 워크숍, 현장전수평가, 지원금 카드관리시스템 적용), 사업대상수혜자 선정의 합리성제고(컨설팅, 인터뷰 심사)등을 통하여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평가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외지역순회사업과 추가순회사업 및 시범사업의 예산배정 근거 불확실함 : 순회사업, 추가순회사업 및 시범사업의 예산구성 비율의 근거가 나타나지 않음 - 순회공연 장소와 시설(공연장)이 공연에 적합하지 못하고, 접근성과 편의성이 낙후되어 있는 점, 공연시간의 제약으로 공연작품을 축약시키는 경우가 있음 : 일부 추진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고 환경변화(장소변경 등)에 따른 대처방안이 미숙한 점이 나타남. 기획력과 진행력 부족으로 행사(사업) 목적이 불명확함. 군부대 순회공연은 대상부대 선정이 늦어져 준비기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사업의 경우, 연초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충분한 시범기간동안 사업결과를 평가하고 사후사업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원신청된 단체 책임자와 기획자는 반드시 사전에 순회대상 지역과 시설(공연장, 공간 등)을 답사하여 참여대상자의 특성과 성향을 분석하고, 시설환경을 점검하여 참여자와 시설여건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밀도있고 짜임새 있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소외된 주민(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이해시키고 관심을 유발시켜 주민들이 문화예술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동기를 제공하고 성취욕을 제고시키는 것에 유념해야 함. - 행사에 대한 홍보와 행사 안내자료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홍보활동을 적극강화하여 인지도를 높여야 함.
16. 문화소외계층대상 문화나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지역적 소외계층의 접근성 제고를 목적으로 계획되었던바, 전반적으로 기금지원 목적에 적절하게 부합한 것으로 평가됨 <p>■ 사랑티켓</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랑티켓의 집행과정 전반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운영된다는 점, 또한 지역의 기초자치단체별로 산재되어 있던 주관처를 광역단위로 통합하여 일관 관리된다는 점에서 사업추진 방식의 적절성 및 효율성 인정됨. 	<p>■ 사랑티켓</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처를 광역단위로 조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 것으로 판단됨. - 지방비 매칭비율의 상향조정으로 가용예산의 범위를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 사랑티켓제도를 지나치게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한정된 것으로 보임. 복권기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국민 대다수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 많은 공연과 전시를 관람하게 해야 함. - 다양한 경로와 매체를 통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랑티켓제도를 홍보해야 함. 	<p>■ 사랑티켓</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이 아닌 관객개발 및 문화향유차원에서 시행하기 위해서는 복권기금이 아닌 일반 문예진흥기금 전환 검토 - 사랑티켓 지원대상 공연단체를 통한 홍보가 더 효율적인 것으로 보임 : 해당단체의 공연장에서 사랑티켓 지정단체가 자체수단을 활용한 홍보야말로 Core Target에 대한 접촉도가 높기 때문 -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홍보전략 실시 - 미판매 공연티켓 통합할인제 대상/지원범위 파악 - 목표관객을 초과하여 관객동원하였다고 집행실적을 밝히고 있지만, 일사적 행사인 미판매 공연티켓 통합할인제 등을 통해 관객이 초과발생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분석 - 사랑티켓과 문화바우처 대상 및 해당사업의 범위와 내용 변경과정에서 두 사업의 특징 및 범위에 대한 부분에 대한 논의 - 사랑티켓과 문화바우처에 대한 구분이 모호함. 사랑티켓과 문화바우처 대상의 차별성에 대한 논의 필요

사업명	성과	문제점	개선 및 권고사항
16. 문화소외 계층대상 문화나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바우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혜자 특성을 감안하여 프로그램 지원과 차량 및 식사제공 등 부대지원 병행 - 동사무소,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네트워크 등과의 협력 체계 마련. 주관처 외 고객 편의성 및 인증방법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주민통합정보 시스템 연계망 구축 ■ 문학나눔, 전통나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불편함을 행정안전부의 주민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해소하고자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바우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문화서비스로 지역에서 홍보되고 인식되기 위해 관리자 중심의 운영에서 수혜자 중심운영으로 운영 중심의 이동 필수적임. -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문화예술단체 프로그램 질 관리는 물론 사업참여가 영리화의 기회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문학나눔, 전통나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 접근성 제고 차원에서 작품 보급과 점점 확산을 위한 노력은 인정되나 단순보급 및 확산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고객수요, 환경분석 및 객관적인 모니터링 체계 추가적인 노력 요망됨 -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혜자들을 위한 기획이 이루어져야 함. - 단순하고 일회적인 공연형태로부터 진일보한 형태로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바우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업 방향과 추진체계가 구축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사례분석과 연구 필요 - 경제적 소외계층의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 이념과 적용방안에 대한 재해석과 새로운 접근방안에 대한 모색 필요 - 수요와지지 검토 방법에 대한 새로운 방법과 이를 통한 사업 운영 발전을 위한 쟁점 도출 및 환류 방안 구축 필요 - 문화바우처 운영체계 및 홍보체계 분석 ■ 문학나눔, 전통나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혜자들이 보다 심층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향후 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한 참여를 유도할 필요 있음. - 보급 및 확산 단계에서 참여자들의 내용적 심화, 발전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 요망. -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혜자들을 위한 기획이 이루어져야 함.
17. 지역문예기반시설 활용예술 프로그램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예회관 특별공연프로그램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후된 지방문예회관이 지방문화사업의 거점기관으로 자생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문화예술 활성화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지역문예기반시설 활용 예술 프로그램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의 다양한 계층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나눔사업으로 전개되어 실질적인 문화나눔에 도움을 주는 행사로 기획됨 ■ 실버문화학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소외된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이들이 수혜자에서 2차 창작자로 지역사회 기여를 이끌어 내는 한편 세대통합의 매개자로서 지역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회복한다는 의미에서 사업 목적에 부합됨 - 문화예술을 통해 삶의 질을 제고하고, 사회참여 증진시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예회관 특별공연프로그램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후된 지방문예회관이 지방문화사업의 거점기관으로 자생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문화적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점에서 공익성 큼 - 예산의 불안정성으로 사업 효과성 저하 - 지방문예회관 활성화를 위한 일률적 지원의 문제점 - 우수공연프로그램의 장르 및 인기애 따른 편중화 - 타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 부족 ■ 지역문예기반시설활용 예술프로그램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위주가 아니라 직접 참여하여 완성하는 형태의 참여형 전시 확대되어야 함. ■ 실버문화학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되지 못함 - 타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 부족 - 실무진의 작은 교체 - 실버문화학교 및 문화원의 정체성 불명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예회관 특별공연프로그램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여건과 지방문예회관의 운영여건의 차이를 인정하여 각각의 문예회관의 활성화를 위한 차별적 운영전략이 요구됨. ■ 지역문예기반시설활용 예술프로그램 제공(사립박물관, 미술관전시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가 일방적으로 보여 지는 방식 보다는 관객 참여형 전시들이 최근 들어 많이 행해지고 있어 미술에 대한 소외 계층들의 미술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 시킬 뿐만 아니라 지속시키고 있음. 따라서 본 사업의 방향도 앞으로는 각 사립 미술관 박물관의 이미지를 알리기 위한 전시의 형태 보다는 관객들과 함께 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이나 참여형 전시와 체험 교육 프로그램의 병행을 실시하고 있음.

사업명	성과	문제점	개선 및 권고사항
18. 문화예술 서적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년간 지속해 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보다 발전된 대안을 스승로 제시하며 교정 및 수정하는 사업에 대해 높이 평가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의 경우, 계간화된 2007년과 2008년 사업 내용과 형태가 비슷하고 큰 변화가 없었음. 2007년부터 타기관에서 발행한 기관지와 유사성이 일찍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에 이에 대한 시정 및 모색이 전무했음. - 웹진의 경우 최근 많은 후발 주자들과의 중복성을 피하는 기획의 변화가 요구됨. - 주관처와 수주처인 출판사 간 관계가 모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행본의 경우 상업성보다 공공성을 우선시해 양질의 도서 발간에 주력함. 사업에 대한 공모는 적합한 대안으로 여겨지며, 출판관련 사업처나 관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기획을 적극 수용함. 선정 및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며, 순수예술 우선, 전문성 재고 등과 같은 철저한 기획과 원칙을 우선적으로 설정해야 함. - ‘문화예술’과의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언급된 2007년에 발간도니 타 기관 기관지와 비교 분석 - 웹진 구조 및 내용 등 분석

정책사업 평가

3

1. 정책사업 평가결과
2. 정책사업 평가총평 및 개선방안

제1절 정책사업 평가결과

1. 정량지표 평가결과

○ 성과지표 및 목표치 달성도

[표 3-1] 성과지표 및 목표치 달성도

정책사업명	단위사업명	프로그램(정책사업) 성과지표(안)	목표(A)	달성(B)	달성률 (B/A,%)
창의적문화정책구현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예술의 국제협력 증진	지원대상만족도(FCSI)	76.6	75.9	99
		지원프로그램 참여관람객수	1,305,164	1,170,757	90
		예술지원수혜자수	13,408	12,908	96
		예술지원단체활동수준(건)	8,495	8,607	101
문화예술역량강화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 새로운 예술세계의 개척 예술현장의 자생력 확보 예술의 생활화 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 예술의 가치확산과 보전	지원대상만족도(FCSI)	77.1	77.5	101
		지원프로그램참여관람객수	3,978,603	6,506,688	164
		예술지원수혜예술가수	68,532	74,795	109
		예술지원단체활동수준(건)	45,261	46,208	102
		참여지만족도(관람객/이용자)	77.3	76	98
소외계층 문화향유활 성화		지원대상만족도(FCSI)	77.0	82.4	107
		지원프로그램참여관람객수	1,177,796	1,447,689	123

○ 계량지표인 예술지원수혜예술가수 및 참여관객수 성과지표 부분 모든 정책사업 영역에서 당초 목표치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측정되었음.

- 그러나 이러한 목표치 설정 자체의 합리적인 근거, 전략적 행동을 위한 유인동기 제공을 위한 설정이 필요함.
- 계량지표에서 목표치 초과달성은 사업성과가 목표 대비 활성화되었다는 것의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보다는 계량지표 측정방법의 개선에 따른 실질적인 계량지표 측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에는 보다 적절한 목표치 설정이 필요함.
- 또한 단순한 추세치 보다는 대비 각 사업별 성과에 기반한 목표치 설정의 합리적인 설정근거 제시가 필요함.

○ 비계량지표인 고객만족도는 소외계층 문화향유 활성화를 제외하고는 모두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측정되어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되었음.

- 또한 고객만족도 지표의 목표치 자체가 보통 수준인 76-77점 수준대를 나타내고 있어, 절대적인 결과치 자체도 높지 않음.

- 일반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예술단체의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는 대체로 75-78점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큰 편차를 보이지 않고 있어, 목표치 자체가 진보적이고 도전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움.
 - 즉, 목표치는 큰 노력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유의미하고, 도전적인 목표, 동기유발을 위한 목표를 제공하여야 함.
 - 다만, 전년도의 경우 목표치 자체가 69점대 즉, 70점대 이하인 낮은 수준에서 보다 진취적인 수준으로 설정한 것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평가됨.
 - 복권기금 사업의 경우 관객들의 만족도 목표치 수준은 다른 사업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높게 설정될 필요가 있음. 즉, 모든 사업영역에서 유일하게 복권기금 사업에서는 전반적으로 목표치를 초과달성하였으나, 사업의 성격상 목표치 자체가 낮게 설정된 것에 기인함.
- 전반적으로 성과지표의 적절성,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등의 개선이 필요함.
- 거시적인 성과지표에서 계량지표는 국가의 문화예술정책에서 차지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위상과 비중을 반영하고, 정부의 목표와 연계하여 문예진흥기금 지원을 통한 보다 향유권 신장과 창작역량 제고 등에서 보다 명확한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즉,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예술위원회 간의 관계, 성과계약 등의 근거를 위한 기준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거시적인 성과지표(목표)는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과는 달리 문예진흥기금 사업과의 직접 연관성 보다는 국가의 문화예술에 미친 거시적인 영향의 기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사업별 성과목표와 목표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성과계약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문예진흥기금의 전략적 비중, 국가사회의 문화예술 역량강화 및 향유권 신장에 기여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전략적인 목표가 설정될 필요가 있음.
 - 즉, 문예진흥기금 사업의 직접적인 결과이외에 이를 통한 보다 궁극적인 목표가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사업영역별 성과목표가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될 필요가 있음.

2. 정성지표 평가결과

1) 기금사업 구조

- 2008년도에 추가된 지표로 전략목표-단위/세부사업 인과성 보다는 거시적 차원에서 문예진흥기금 사업의 예술지원정책의 목표달성 적정성, 사업구성체계의 적정성, 재정(지원)규모의 적정성 등을 평가함.
- 위원회 전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미션, 지원사업구조와 전략, 지원의 패러다임, 사업의 평가와 관리체계 등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 지원목표 및 프로그램 구조
 - 문예진흥기금 지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목표(정책목표)에 따라 정책사업 하부의 단위사업과 세부사업 분류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표 3-2] 전략목표체계 비교

기 능	2002-2004	2005-2006	2007-2008
창 조	예술창조역량 강화	예술창조역량 강화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
			예술현장의 자생력 확보
			새로운 예술세계의 개척
전 달	문화예술교류 활성화	문화예술 매개활동 확대	예술의 가치 확산과 보전
		문화예술교류 활성화	예술의 국제협력 증진
수 용	예술의 보존과 계승	지역문화활성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	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	예술의 생활화 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
계	4 개	5개	8 개

- 각 전략목표간의 연결고리에 대한 관점 및 실질적인 사업/방식도 명확하지 않음.
- 지원목표별 사업비 배분현황

[표 3-3] 목표별 사업비 배분비율(2007~2008)

(단위 : 억원, %)

지원목표	2007		2008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11,090	10.8	11,148	13.8
예술의 국제협력 증진	5,137	5.0	5,135	6.4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	16,322	15.8	18,544	23.0
새로운 예술세계의 개척	5,657	5.0	5,557	6.0
예술현장의 자생력 확보	8,443	8.2	9,355	11.6
예술의 생활화	9,290	9.0	5,000	6.2
예술의 사회적 역할확대	39,337	38.1	19,800	22.3
예술의 가치확산과 보전	8,346	8.1	8,712	10.8
계	103	100.0	83,251	100.0

- 복권기금의 전입이후 2007년까지는 예술향유 부문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2008년 복권기금이 축소되어, 창작지원사업(창조역량 강화) 부문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함.

○ 예술 장르별 지원현황

- 정기지원공모사업의 장르별 배분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문예진흥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나 외국에 비해 문학 분야의 지원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임.

[표 3-4] 정기공모사업 장르별 배분비율

(단위 : 백만원, %)

	2006		2007		2008	
	지원액	비율	지원액	비율	지원액	비율
문학	2,447	18	2,633	15	2,909	16
시각예술	2,208	17	2,913	17	3,206	17
음악	1,226	9	1,955	11	2,081	11
무용	1,375	10	1,895	11	2,021	11
연극	1,609	12	2,214	13	3,424	19
전통예술	2,874	22	3,165	18	3,151	17
다원예술	849	6	1,080	6	1,055	6
문화일반	728	5	497	3	606	3
서울공연예술제			850	5		
계	13,316	100	17,202	100	18,453	100

- 장르별 배분에서는 명확한 원칙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전략, 규모, 수요 등에 비하여 왜곡 발생
- 예술가 직접지원, 예술단체 지원간의 원칙이 불명확함.
- 지원의 패러다임에서 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새로운 사업들도 여전히 기존 패러다임에서 추진되어 막대한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당초 목표한 성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함.
- 선택과 집중, 창조자 vs 수요자 등에 대해 예술위원회 전환 이전부터 논의가 있었고, 예술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한 많은 검토가 있었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이루어지지 못함.
- 수요자 중심의 지원에 대해서도 단순히 예술성 보다는 문화향유, 예술가 보다는 향유자 중심의 지원이라는 방식으로 잘못 접근하여 예술정책을 포함한 국가정책의 궁극적 목적이자 대상인 수요자 중심(예술인 포함)의 정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패러다임의 전환은 몇 개의 사업에 적용하는 것이 아닌 기금사업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함에도 이러한 근본적 변화를 시도하지 못함.

2) 전략목표와 단위·세부사업과의 인과성

- 문예진흥기금의 전략목표는 창의적 문화정책구현과 문화예술역량강화 등 2대 목표로 구성됨.
- 이러한 체계는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정책국-예술국의 사업체계에 인위적으로 맞춘 것으로 문예진흥기금 사업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전체적인 전략목표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문예진흥기금의 전략적 가치를 명확히 나타내지 못함.
-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인과성, 목표치의 전반적인 합리성 수준이 미흡함.
- 복권기금 사업에 대한 체계적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함.
- 자체사업 및 자체 시설운영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음.
- 각 사업간 연계성 부족 : 유사한 사업이 각각 연계성 없이 분리되어 진행

3) 기금사업 운영체계

- 지원사업 추진체계는 주로 공모사업 등을 중심으로 하여 지원사업 자체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이 평가지표는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지원사업/기획사업/공모사업/수시사업 등의 체계, 이와 관련된 사업조직의 운영체계 등을 평가함.
- 전체 사업구조 및 운용규모에 비해 실제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되는 사업규모가 너무 작음.
- 사업 성과관리
 - 중장기적인 관점, 국가 예술정책의 관점에서 예술위원회의 보다 명확한 전략목표, 이에 상응한 성과(달성)목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체계 구성 미흡
- 자체사업의 관리비용 증가
- 자체사업 추진을 위한 외부조직의 활용
 -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실제로 문화예술위원회의 통제를 받는 외부조직을 신설하여 사업을 위탁하고 있음.
 - 이 조직은 실제 문화예술위원회 사무공간내에 위치하여, 임용만 통제만 받고, 형식적으로는 외부조직으로 되어 있어 운영상의 투명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우려가 있음.

4) 지원사업 추진체계

- 지원사업 운영체계
 - 본기금, 정기공모사업의 형식적인 심의제도는 개발되어 있으나, 수시공모 및 복권기금사업의 심의 평가제도는 상대적으로 미흡
 - 지나치게 심의대상 건수가 많아 심층적인 심의가 어렵고, 신청서와 결과보고서상의 괴리가 많아 심의와 평가의 객관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
 - 심의와 평가의 연계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미흡
 - 복권기금사업의 경우 사무국 운영, 전달체계, 협력체계 등의 효율성 미흡

- 일부 사업의 경우 계획 대비 결과치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등 결과의 신뢰도가 의문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원단체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관리 필요
- 사업결과보고서상의 각종 결과, 특히 재정 및 성과지표에 대한 결과가 당초 계획과 연계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비교하여 달성도 여부를 작성하고 설명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각 사업별로 심층평가, 전체적인 심사평가 등의 종합평가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개별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평가의 관점이나 문예진흥기금 사업 전체에 대한 평가에서 나아가 사업별로 체계화되고 프로세스 관리, 사업의 효율성 및 성과제고, 개선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제시 등을 위한 체계화된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됨.
- 성과지표 및 사업관리에서 복권기금 사업에 대한 통계 및 성과관리 통합체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제시된 성과지표도 복권기금(외부의 주관처 사업)은 제외하고 있는 등 문예진흥기금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각 사업주관처 등과의 연계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지원심의위원회 구성 원칙 및 방식의 한계
 - 지원심의위원회를 매년 구성하고 있고 구성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원칙이 명확하지 않거나 실제 원칙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지원심의위원의 연령별 분포도(2008기준)를 보면 40~50대가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현장 예술가 위주로 지원심의위원을 구성한 것과, 연령별 안배를 한다는 원칙과도 거리가 있음.
 - 지원심의위원의 추천은 위원회 위원, 소위원회, 추천위원(전문가) 등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 결정권을 가진 위원회 위원이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위원회 전체 구성의 실태 뿐 아니라 장르별 위원들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게 되어 합의제라는 위원회의 구성원칙에 위배될 수 있음.
 - 계기성기획사업의 경우 복합적인 분야로 구성되어 특정장르에 대해서는 특정 분야의 심의위원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음.
- 지원심의의 기준이나 원칙이 명확하지 않아 지원심의위원들의 주관성에 따라 편차가 심하게 나타날 개연성이 높음.
- 지원신청서의 작성 및 신청내용의 신뢰성이 담보되지 못하여, 실제적인 사업내용 보다는 기획서(신청서)의 포장(?)이나 단체의 신뢰도/역량 등이 실제 지원결정에서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
- 지원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미흡하여 대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사후관리, 각종 통계, DB의 활용, 이를 기초로 한 다양한 컨설팅 지원 등의 기반을 제공하지 못함.
- 예술위원회의 지원신청 및 결과보고서, 지원사업과정에서 산출된 각종 자료는 예술분야에서 포괄적이고 방대한 자료임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DB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제2절 정책사업 평가총평 및 개선방안

1. 성과지표 및 달성도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시적이고 전략적인 성과목표의 설정이 미흡하다 보니, 단위사업과의 성과목표/지표의 차별성이 미흡함.
 - 정량지표에서는 대부분 성과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나, 이러한 결과가 문예진흥기금의 성과가 우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전략적인 측면에서 문예진흥기금의 목표를 보다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문예진흥기금의 지원규모가 대폭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화향유수준의 제고 등 주요한 목표에서 실질적이고 상응한 성과(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음.
 - 왜 지원을 해야 하고, 어느 분야에 어느 대상에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론적, 제도적 정립이 미흡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체계가 구축되지 못하였음.
 - 시장실패이론에 근거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족비용을 보전하는 방식 위주로 지원하여 왔음. 즉, 전체적인 수요의 과학적 추정, 각 사업별, 세부 지원대상별 성과달성을 위한 적정한 지원규모(지원액) 등에 대한 분석 없이, 지원금액과 대상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접근하여 왔는데, 이러한 방식은 오히려 기금에 대한 의존성을 키우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
 - 즉, 민간자원의 동원, 지원을 통한 예술의 영향력 확대, 사회의 변화, 접근성의 제고 등을 위한 지원방식의 개편이 필요
 - 2008년도에 조직개편을 통하여 컨설팅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컨설팅 강화는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각종 기반의 구축, 직원들의 역량강화,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지원대상의 마인드와 관리시스템의 변화, 특히 사업자체가 직접적인 자금지원 중심·소액의 프로젝트 중심이 아닌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 단체지원 중심으로 전환과 연계될 필요가 있음.
 - 즉, 컨설팅은 재정지원과 분리된 비재정의 관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사업구조 자체의 설계, 각 사업간의 연계 등을 통하여 제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2. 개선방향

1) 예술지원의 원칙과 방식의 재정립

- 시장실패에 따른 부족한 비용의 보전 방식에서 전략적인 목표 중심의 지원으로 전환
 - 시장실패에 따른 자금 보전 지원은 이로 인한 공공재원에 대한 의존도 심화(경로 의존성), 공급자 중심의 가치에 따른 가치의 일방적 전달(가부장적인 가치재의 전달 논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정책의 전환
 - 수요자 중심의 지원은 수요자의 선호와 선택기준을 강조한다는 것이지, 예술가가 아닌 소비자에게 직접 지원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예술지원정책의 궁극적인 예술가 지원 보다는 예술의 진흥,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정책의 목표에 더 적합함.

2) 선택과 집중에 따른 전략목표의 명확화 및 성과 제고

- 선택과 집중의 지원 패러다임을 문예진흥기금사업 전체에 적용
 - 사업구조 자체를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하여 재구성하고,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과 수단을 배분하고, 각 지원프로그램에서도 전략에 따른 지원방식, 지원심의, 지원대상의 규모, 지원범위 등을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함.
 - 이러한 사업구조 개편은 단순히 효율성 측면 뿐 아니라 수요자 측면에서도 접근이 용이하고 지원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임.
 - 장르별 분류보다는 각 단체가 목표로 하는 (필요로 하는) 전략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개편
- 선택과 집중은 다음과 같은 2가지 전제가 필요함
 - ① 선택을 하는 가치와 목표 및 전략이 명확하여야 함.
 - ② 집중을 위한 규모와 범위를 위한 수요와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대상범위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선택과 집중을 위한 전략적 우선순위와 목표의 명확화를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위원회간의 전략적인 성과목표 등의 설정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위원회간의 성과계약 제도 도입 등의 방식을 통하여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는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전제되어야 함.
-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는 1회성 프로젝트 중심에서 단체지원 중심으로 전환

3) 직접지원 위주에서 사회적 프로젝트, 간접지원 방식의 대폭 확대 도입

- 직접지원은 예술이 필요로 하는 재원의 확보에 한계가 있고, 민간이나 지역사회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에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음.
 - 사회적 프로젝트는 이러한 한계를 탈피하여 예술활동과 재원의 외연을 넓히는 효과가 있음.
 - 또한 사회적 프로젝트는 공급자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관점에서 지역사회나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기획하고, 여기에 직접 지원방식 보다 더 많은 예술가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며, 예술 활동의 가치와 접근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음.
- “생활속의 예술 확대” 방식은 단순히 소외계층에 대한 접근성 제고 차원을 넘어 이러한 사회프로젝트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임.
 - 즉, 소외계층에 대한 접근도 수요자 관점의 패러다임에 따라 접근하고, 이에 따른 효과를 넓히자는 것임.
- 직접지원에서 간접 지원 방식도 사회적 프로젝트의 관점과 연계됨.
 - 직접지원은 주로 창작단계나 공급단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보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반면, 간접지원은 창작을 위한 여건 조성, 매개, 수요의 역량조성 중심으로 이루어져 보다 많은 혜택과 지속적인 효과가 가능함.
 - 간접지원은 예술지원이 시장실패에 따른 자금 보조(지원) 중심에서 예술(시장)의 역량과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관점에서 단순한 자금지원에서 벗어나 예술진흥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지원방식과 수단을 도입한다는 것임.
- 자체 지원시설 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 지원예술단체 등에 대해서도 간접지원 제도를 확대하는 원칙과 연장선에서 자체 지원시설 운영에 대해서도 이러한 원칙을 적용할 필요
 - 예술위원회가 직접 운영하기 보다는 민간이나 다른 공공부문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파급효과가 더 클 수 있음.
 - 해당 시설이 예술진흥을 위하여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간접지원 방식 보다 효율성과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며, 이러한 방향은 각 정책참여주체별 역할분담과 민간의 역량과 경쟁효율성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음.

4) 지원사업 관리의 효율성 및 성과의 제고

- 문예진흥기금의 형식적인 체계성에서 진일보하여 실질적인 공정성, 신뢰성,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식 도입
 - 현재의 구조와 방식으로는 기술적으로 보완을 하여도 우리 예술계의 현실 여건, 예술위원회의 여건을 고려하여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획기적인 방식의 혁신이 필요
- 사후지원 제도의 도입과 확대는 이러한 지원사업 관리의 근본적인 혁신을 위한 전제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
 -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는 보다 심층적이고 객관적인 지원심의회가 필요함에도 현재 여건에서는 너무 많은 지원신청건수(점차 증가)로 인하여 심층적, 객관적, 공정한 심의회가 구조적으로 어려움.
 - 사후지원 제도는 지원을 받은 사업수행자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성과에 대한 환류를 강화하는데 효과가 있으며, 사전심의회에 따른 공급자 중심 관점의 한계를 탈피하여 수요자 중심의 지원을 하는 효과가 있음.
- 선택과 집중, 사후 지원, 수요자 중심 등의 원칙과 제도에 따른 지원심의회제의 대폭적인 혁신
 - 보다 체계화되고 객관적인 지원심의회기준과 절차의 마련
 - 전문성 제고, 신뢰성 제고 등을 전제로 예심 제도의 전문화 도입 검토
 - 심의회위원 구성의 원칙을 정교화하고, 구성 원칙에 따른 결과를 비교하여 공개
 - 공급자 중심의 지원심의회 한계를 탈피하기 위한 수요자 관점의 해당 분야 비전문가(예술적 소양과 이해가 높은)의 지원심의회위원 도입

단위사업 평가

4

1. 단위사업 평가요약
2. 단위사업별 평가결과

제1절 단위사업 평가요약

1. 단위사업 평가점수

○ 8개 단위사업 평가결과 매우 우수 1건, 우수 1건, 보통 6건으로 평가되었음.

- 전체 평균은 68.4점으로서 보통 수준의 등급을 보였음.

[표 4-1] 단위사업 평가 등급 분포현황

등 급	가	나	다	라	마
평 가 내 용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결과 알 수 없음
최 종 점 수	85% 이상	70% 이상 ~85% 미만	50% 이상 ~70% 미만	50% 미만	근거자료 불충분
사 업 개 수	1	1	6	0	0

[표 4-2] 단위사업 단계별 평가결과

단위 사업	구 분	계획(30)			사업집행 (20)	사업성과 (50)	취득점수 합계
		소계	사업계획(20)	사업성과(10)			
지역문화예술의진흥	평점	18.0	12.0	6.0	15.0	35.0	68.0
	100점환산	60.0	60.0	60.0	75.0	70.0	
예술의국제협력증진	평점	15.0	12.0	3.0	20.0	26.6	61.6
	100점환산	50.1	60.0	30.0	100.0	53.2	
예술가의창조역량강화	평점	22.0	16.0	6.0	10.0	26.6	58.6
	100점환산	73.4	80.0	60.0	50.0	53.2	
새로운예술세계의개척	평점	15.0	12.0	3.0	15.0	35.0	65.0
	100점환산	50.1	60.0	30.0	75.0	70.0	
예술현장의자생력확보	평점	10.0	4.0	6.0	20.0	35.0	65.0
	100점환산	33.2	20.0	60.0	100.0	70.0	
예술의생활화	평점	18.0	12.0	6.0	15.0	35.0	68.0
	100점환산	60.0	60.0	60.0	75.0	70.0	
예술의사회적역할확대	평점	22.0	12.0	10.0	20.0	46.7	88.7
	100점환산	73.2	60.0	100.0	100.0	93.4	
예술의가치확산과보전	평점	22.0	16.0	6.0	20.0	30.0	72.0
	100점환산	73.4	80.0	60.0	100.0	59.9	
합계(평균)	평점	17.8	12.0	5.8	16.9	33.7	68.4
	100점환산	59.2	60.0	57.5	84.4	67.5	

[표 4-3] 단위사업 세부질문별 평가결과

평가단계	평가지표(배점)	지역 문화 예술 의진 흥	예술 의국 제업 력증 진	예술 가의 창조 역량 강화	새로 운예 술세 계의 개척	예술 현장 의자 생력 확보	예술의 생활화	예술 의사 회적 역할 확대	예술 의가 치확 산과 보전	
		평점	평점	평점	평점	평점	평점	평점	평점	
사업 계획 (30)	사업 계획 (20)	① 사업목적 및 내용의 명확성, 적합성(4)	4	4	4	4	0	4	4	4
		② 지원목적의 타당성, 기획의 중복여부(4)	4	4	4	4	0	0	4	4
		③ 지원대상선정의 합리성 및 목표 달성적합성(4)	0	4	4	4	4	4	4	4
		④ 사업지원/평가방식의 효율성(4)	0	0	0	0	0	0	0	0
	성과 계획 (10)	⑤ 지원수준 및 범위의 성과목표적합성(4)	4	0	4	0	0	4	0	4
		⑥ 성과목표와 지표의 유의미성 및 결과부합성(4)	0	0	0	0	0	0	4	0
		⑦ 성과목표치의 객관적 평가/검증조치 설계여부 (3)	3	3	3	3	3	3	3	3
		⑧ 성과목표달성 위한 제도, 조치의 수반여부(3)	3	0	3	0	3	3	3	3
사업집행 (20)	⑨ 성과관리자료의 체계적 수집 및 활용여부(5)	5	5	5	5	5	0	5	5	
	⑩ 사업의 계획 대비 집행여부(5)	5	5	5	0	5	5	5	5	
	⑪ 사업추진 및 예산효율성 제고 위한 노력(5)	5	5	0	5	5	5	5	5	
	⑫ 유관기관 및 사업과의 연계(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5)	0	5	0	5	5	5	5	5	
사업성과 (50)	⑬ 성과목표 달성도(25), (30)*	16.7	8.3	8.3	16.7	16.7	16.7	25	20	
	⑭ 사업고객, 사업이해관계자의 만족도(10), (15)*	3.3	3.3	3.3	3.3	3.3	3.3	6.7	4.95	
	⑮ 평가결과의 환류(5), (5)*	5	5	5	5	5	5	5	5	
	⑯ 2007평가결과의 개선 권고사항의 반영여부 (10)	10	10	10	10	10	10	10	-	
합계(100)		68.0	61.6	58.6	65.0	65.0	68.0	88.7	72.0	

2. 단위사업 성과지표 달성도

[표 4-4] 단위사업 성과지표 달성도

단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계획	결과	달성률(%)
지역문화 예술의 진흥	지역문화예술활동 및 전국규모행사 지원을 통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지원대상만족도(PCSI) - 준정부기관 단위사업별 만족도 적용	74.5점	75.0점	101%
		지원프로그램 참여관람객수	269,853명	346,777명	129%
예술의 국제협력 증진	문화예술 해외소개 및 국제교류사업 지원으로 우리 문화예술의 세계화기반 구축	지원대상만족도(PCSI) - 준정부기관 단위사업별 만족도 적용	78.7점	76.7점	97%
		지원프로그램 참여관람객수	1,026,120명	828,722명	81%
		예술지원 수혜자수	13,044명	7,166명	55%
		예술지원단체활동수준(건)	8,265건	8,322건	101%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	예술가의 창조역량강화 및 전문예술단체 육성	지원대상만족도(PCSI) - 준정부기관 단위사업별 만족도 적용	78.0점	76.8점	98%
		지원프로그램 참여관람객수	1,763,275명	3,907,799명	222%
		예술지원 수혜예술가수	55,240명	44,879명	81%
		예술지원단체활동수준(건)	16,691건	13,783건	83%
새로운 예술세계의 개척	새로운 예술 및 예술인력 발굴·육성을 통한 새로운 예술 확대 및 예술인력 확보	지원대상만족도(PCSI) - 준정부기관 단위사업별 만족도 적용	75.7점	76.4점	101%
		지원프로그램 참여관객수	463,322명	460,921명	99%
		예술지원 수혜예술가수	12,739명	9,440명	74%
		예술지원단체활동수준(건)	21,100건	22,782건	108%
예술현장의 자생력 확보	문화예술 거점매개공간 활성화를 통한 예술현장의 자생력 확보	지원대상만족도(PCSI) - 준정부기관 단위사업별 만족도 적용	79.2점	78.2점	99%
		지원프로그램 참여관객수	217,630명	281,434명	129%
		참여자만족도(관람객/이용자)	73.0점	74.7점	102%
		투입자원대비사업효과성	1.09	1.227	113%
예술의 생활화	작은도서관 조성을 통해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및 문화향수기회 확대	지원대상만족도(PCSI) - 준정부기관 단위사업별 만족도 적용	79.4점	78.9점	99%
		조성목표달성률	70개소	74개소	106%
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	문화소외지역·계층의 기초예술 향수 수준 제고 및 향수기회 확대	지원대상만족도(PCSI) - 준정부기관 단위사업별 만족도 적용	77.0점	82.4점	107%
		지원프로그램 참여관객수	1,177,796명	1,447,689명	123%
		예술지원 수혜예술가수	3,356명	3,732명	105%
		예술지원단체활동수준(건)	7,088건	8,763건	124%
		참여자만족도(관람객/이용자)	81.5점	82.7점	101%
		투입자원대비사업효과성	1.12	1.236	110%
예술의 가치확산과 보전	예술의 사회적 인식 제고 및 문화예술 조사연구 활성화	지원대상만족도(PCSI) - 준정부기관 단위사업별 만족도 적용	73.4점	72점	98%
		지원프로그램 참여관객수	15,710명	278,551명	1773%
		예술지원 수혜예술가수	10,155명	11,599명	114%
		예술지원단체활동수준(건)	681건	2,803건	412%

제2절 단위사업별 평가결과

1.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1) 사업목적

- 지역문화예술단체의 각종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중앙과 지방간 문화격차 해소
- 지역의 문화적 역량 제고 및 지역 문화예술의 활성화 도모

2) 사업내용

- 총사업비 : 11,148,000,000원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지원조건 : 지자체 매칭, 민간경상보조
 -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지역문화예술지원 : 1:1매칭지원/정액지원
 - 전국연극제/전국무용제/문화의달행사지원 : 정액지원
- 지원대상 : 자치단체 및 행사추진위원회
- 세부사업내용 :
 - 16개시·도(또는 시·도의 문화재단)에 지역문예진흥기금을 지원하여 지역 내 문화예술단체의 각종 사업을 지원함.
 - 지역연극/무용인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지역연극/무용 활동의 현장육성을 위하여 전국규모행사개최를 지원함.
 - 중앙과 지방과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하여 문화의 달 행사 및 문화의 날 기념식을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함.
 - 각 지역 문화지원 기구간의 협의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해 문화 정보공유, 문화 정책 실행, 사업개선을 시행함.

3) 평가결과

	평가답변					평가점수
	계	예	상당 정도	어느 정도	아니오	평점 (100점환산)
○ 계획	8	5	-	-	3	18.0 (60.0)
○ 집행	4	3	-	-	1	15.0 (75.0)
○ 성과	4	2	1	1	-	35.0 (70.0)
□ 종합	16	10	2	-	4	68.0

구분	점수
계획	60
집행	75
성과	70
종합	68

4) 평가지표별 주요내용

단계	내용	평가점수
사업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은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수준에 있는 지역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여 중앙과 지방간의 문화 격차 해소와 지역의 문화역량 제고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 지역별 여건, 역량, 성과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설정, 무대제작지원사업의 차별성 미흡 - 법령상의 기금 지원근거 및 사용용도와 부합하며 정부·지자체와는 역할분담을 하여 추진하고 있음. - 평가결과에 따른 단계별 차등지원, 지자체와의 1:1 매칭 등 각 지자체 특수성 반영한 현행사업 방식이 타당함. - 2년 전 지원대상 선정, 행사추진위원회 구성, 지자체와의 공동 예산 투입 등 현재 사업방식은 바람직함. - 지역문화활성화를 위하여 전국을 순회하면서 개최되는 문화의달행사, 전국연극제, 전국무용제 사업의 지원액은 조 금씩 인상되는 상태며, 지역문화협의회 예산은 06년도 1천2백만원, 07년도 1억원, 08년도는 1억3천만원, 09 년도 2억원으로 07년도 발족과 그 이후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적정하게 확보하여 추진되고 있음. - 사업별 현장 모니터링, 집행실적 확인, 사업수행자의 성과보고서를 활용한 성과평가 관리 및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성과목표 및 지표 관리함. 	60.0/100
사업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과 관련한 각종 회의에 정례적으로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며, 행사기간에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사업별 진행사항 점검하며, 지역 예술인과의 간담회를 가지면서 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집해 업무에 활용함. - 특히 지역문화협의체를 통한 일선 시·도 공무원들의 문화행정의 어려움과 지역의 현실 등을 파악하 여, 예술위원회 지역문화진흥사업의 개선에 활용하는 등, 2008년 협의회 활동이 본격적으로 이뤄져, 그간 지역문화사업의 개선을 비롯한 “지역협력형사업의 추진”에 전기를 마련하였음. - 기본계획 수립시 예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시·도에는 사업계획 안내 시에 이를 통보함. - 전국연극제, 무용제, 문화의달 행사는 사업의 추진기관인 시·도와의 업무 협의가 필수적이며, 수시 로 진행되는바, 지역문화협의회를 통한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조가 활발하게 이뤄짐. 	75.0/100
사업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 ‘지원프로그램참여관객수’와 ‘만족도’ 모두 목표치 초과 달성하였지만, 성과지표 적절성 이 아니므로 상당한 정도로 평가 - 준정부기관 만족도 조사결과 74.5%로 만족도가 ‘어느정도’ 수준 - 관람객 만족도 조사 역시 주민을 비롯한 관람객들이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해관계자들 인, 참여 예술가, 참여 기관, 유관기관들도 사업 성과를 높이 평가함. - 각 사업결과 및 성과는 익년도 사업에 반영되며, 행사추진회의에서 자체평가 실시를 강조하며, 전년 도의 평가결과를 제시하며 사업 개선과 추진에 반영하고 있음. - 2007년 평가 권고사항을 사업에 반영하여 제도 개선하였음. 	70.0/100
종합 평가점수		68.0/100

2. 예술의 국제협력 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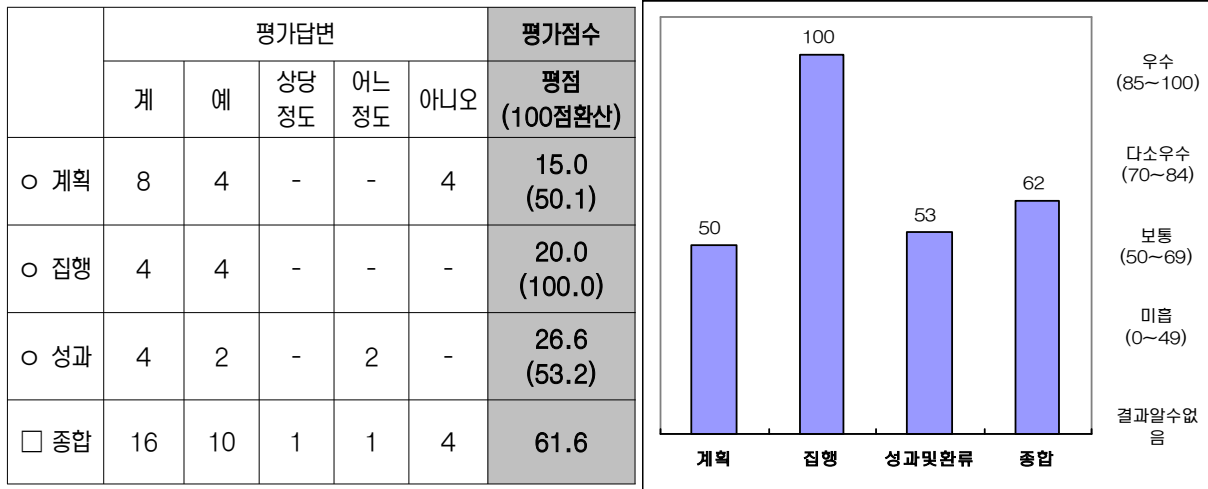
1) 사업목적

- 국제교류 사업 및 재외동포, 남북간의 문화예술 교류사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세계 문화 중심 국가로서의 위상과 남북 문화통합에 기여함.
-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 해외문화기관교류를 통해 예술단체의 교류활동 기반 조성

2) 사업내용

- 총사업비 : 49억원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사업
- 지원조건 및 방법
 - 지원조건 : 사업유형과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
 - 지원방법 : 민간경상보조
 - * 외국 기관 간 교류협력사업의 경우 매칭펀드 시스템 적용 (매칭펀드 비율 다양)
- 지원대상 :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
- 세부사업내용
 - 국내·외에서 교류되고 있는 각종 국제 문화예술행사 참가 단체 및 개인 지원
 - 문화예술관련 국제사회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국제기구 활동단체에 대한 지원
 - 독일 베를린소재 베타니언 스튜디오에 일년간 작가 파견을 통한 현대미술동향 습득 및 활동 기회 부여
 - 해외 주요 예술인들을 국내에 초청하여 운영하는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일회성 교류사업을 지양하고 국제 네트워크 구축을 도모함.
 -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사업으로 건축전 지원

3) 평가 결과



4) 성과지표별 주요내용

단계	내용	평가점수
사업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법(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근거하여 남북문화예술교류, 국제문화예술교류 사업 및 활동에 지원함으로써 ‘예술의 교류 및 협력 강화’ 라는 전략목표를 달성함. - 법령상의 기금 출연근거 및 사용 용도와 부합하며 정부지자체와는 중복 없이 위원회의 전략사업으로 추진함. - 지원대상 선정시 지원심의제도, 종합운영평가제도 등을 구축하여 국제교류사업 목표에 부합한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함으로써 ‘문화예술 해외소개 및 국제교류사업 지원으로 우리 문화예술의 세계화기반 구축’이라는 성과목표 달성에 적합함. - 국제교류사업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집중적 지원의 방식 보다는 주로 1회성 프로젝트 지원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국제교류사업의 특성과 성과목표를 반영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예술지원사업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어 성과지표의 적절성이 미흡함. - 지원신청단체에 본 사업의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목표를 제출받아 객관적인 산출방식으로 본 사업의 목표치를 산출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정 - 민간/문화예술계의 전문가로 남북 및 국제문화교류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문화예술 해외소개 및 국제교류사업 지원으로 우리 문화예술의 세계화기반 구축’이라는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시스템 가동함 (신규사업 자문, 평가 등, 연4회 개최). 	50.1/100
사업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및 국제문화교류소위원회에서 사업 개선과 지문을 통해 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개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원금 교부 시 사업계획 검토하며, 사업평가제도에 의해 현장평가 실시 후 차년도 사업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함. - 국제교류사업 특성을 반영한 지원심의회의 운영을 통해 지원대상을 결정하고 연간 지원계획에 의거 사업을 시행한 후 성과보고서를 받아 평가를 통해 그 결과를 반영함. - 국제교류 업무를 관련 기관과 공동 주최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동시에 사업성과를 극대화 함. - 국고와의 이중지원 금지 규정에 의거하여, 관련 사업은 지원을 취소함. - 국제교류 사업을 관련기관의 협조를 통해 기관 특성에 맞게 역할 및 예산을 분담함으로써 성과가 극대화되었음. 	100.0/100
사업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된 성과지표를 상회하지 못하였으며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함. - 준정부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76.7%으로 만족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평가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76.7 점으로 성과목표치에 97.4%의 달성도를 나타냄. - 국제교류 지원사업을 지속적이며 평가하여 사업추진 방식, 예산배분 등 사업개선에 반영하고 있음. - 평가결과 개선 권고사항을 단계별로 잘 반영하여 추진하였음. 	53.2/100
종합 평가점수		61.6/100

3.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

1) 사업목적

-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등 예술 전 장르의 창작력 강화 및 창작 기반 구축을 위한 예술단체(인)의 활동 수준 제고 및 창작 활동의 기회 확대

2) 사업내용

- 총사업비 : 185억원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지원조건 및 방법
 - 지원조건 : 직접경비 일부 지원 및 재원 분담
 - 지원방법 : 민간경상보조, 자체사업 등
- 지원대상 : 예술인
- 세부사업내용

사업명		사업내용
예술창조활동지원	예술창작및표현활동 지원	창의성과 예술성이 높은 문학, 전시, 공연예술의 다양한 창작·발표 활동과 독창적인 기획행사 및 전국 단위의 대규모 예술행사를 지원함으로써 예술창조 역량을 강화함.
	수요자맞춤형지원	예술현장의 다양한 정책 수요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문화예술 종합 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
	공연예술전문단체집중육성	창작능력, 인적구성, 운영 시스템의 전문성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공연예술 단체를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다년간 지원하여 단체의 예술창작역량 및 국제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창작활동 기반을 제공함.
예술창조역량강화 특화사업	문학특성화사업지원	문학잡지에 발표된 우수 작품을 분기별로 심의 선정하여, 창작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문인들의 창작의욕 고취 및 작품 집필 여건의 개선
	시각예술기획사업발굴지원	변화하고 있는 시각예술의 현장의 요구에 유기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재정지원 외에도 전시기획, 프로그램 컨설팅과 같은 비재정적 지원 기능을 강화하며 창작역량 지속화, 인큐베이팅, 다각화사업 등 3가지 영역으로 사업내용을 체계화함.
	창작의곡활성화지원	가능성 있는 작품(장막극)을 선정하고, 수정 및 심화작업을 거쳐 낭독공연 후 공연까지 연계하는 프로그램
	무용안무가집중육성	차세대 우수 안무가(수강자)를 공모 선발, 이들 대상으로 새로운 경향의 안무창작법 개발 등에 관한 이론교육 및 공동실기 워크샵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연말 워크샵 종료 후 교육평가 우수자에 대해 공연작품 창작 발표까지 연계하여 집중 지원함.
	창작곡연주지원	국내 창작곡의 발표 및 연주 비용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작곡가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연주자의 창작곡 연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작곡과 연주부문을 연계하는 창작 활성화의 여건을 조성함.
	전통예술무대양식화사업	한국전통음악과 전통연희 등 극적인 전통 공연예술의 무대양식화 방안을 모색하여 새로운 형태의 공연양식을 개발함.

3) 평가결과

	평가답변					평가점수
	계	예	상당 정도	어느 정도	아니오	평점 (100점환산)
○ 계획	8	6	-	-	2	22.0 (73.4)
○ 집행	4	2	-	-	2	10.0 (50.0)
○ 성과	4	2	-	2	-	26.6 (53.2)
□ 종합	16	10	1	1	4	58.6

구분	점수
계획	73
집행	50
성과	53
종합	59

4) 성과지표별 주요내용

단계	내용	평가점수
사업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법(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근거하여 예술활동의 기반조성 및 질적 수준 향상을 통해 '예술의 창조역량 강화 및 창작환경 개선'이라는 전략목표를 달성함. - 예술활동의 수요기반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최고 수준 작품의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예술단체(개인)의 창조역량 강화에 기여함으로써 문예진흥기금 지원목적에 타당함. - 지원대상 선정 시 지원심의제도, 내부평가제도 등을 구축하여 세부사업 목표에 부합한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함으로써 '예술가의 창조역량강화'의 성과목표 달성에 적합함. - 예술가의 창조역량강화 사업은 중장기적 관점으로 장르별 특성을 고려하여 장르별 소위원회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공모사업, 기획·자체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이에 적합한 지원/평가방식을 운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임. - 각 장르별·분야별 소위원회 등을 통해 예술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대상 및 사업추진 범위가 명확하여 '예술의 창조역량강화 및 창작여건 개선'이라는 전략목표 달성에 적합함. - '예술가의 창조역량강화'라는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예술창조활동지원' '공연예술전문단체집중육성' '예술창조역량강화특화사업'이라는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성과지표도 성과목표와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반영함과 아울러 결과에 초점이 맞추어 설정되어 있음. - 예술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문예진흥기금 지원의 성과제고를 위한 효율적이고 근본적인 지원방식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1회성 공모지원방식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라는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지원단체를 대상으로 한 컨설팅 수행 등 재정적 지원 이외의 비재정적 지원 정책을 시행함. 	73.4/100
사업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장르별 소위원회 정례회의 및 포럼 등을 통해 전반적인 사업과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사업별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해 성과정보를 관리하였음. - 각 사업별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계획대로 모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장르별 지원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연간 지원계획에 의거하여 사업을 시행한 후 성과보고서를 받아 평가를 통해 그 결과를 반영함. - 1회성 공모지원중심으로서 투입된 지원금의 효율적 사용, 세부적인 지원금액 산정기준 등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 - 문화예술위원회 조직개편을 통해 예술지원컨설팅센터로 지원사업부서를 재편하여 재정적 지원 외에 예술지원컨설팅 서비스제공 등 비재정적 지원을 강화함. - 온라인 웹사이트 구축을 통한 고객 정보접근성 강화 및 사업효율성 제고함. - 지역 예술가들의 예술창조역량 강화사업(발표회, 전시회 등)은 해당 광역 시·도의 문화재단(지역문화예술위원회)이 지원하도록 협력체계 운영함. - 문화예술위원회와 지역 광역시·도 문화예술 재단(또는 지역 위원회)이 참여하는 "지역문화지원협의회" 운영을 통해 지역과의 업무협력이 더 잘 이루어지도록 함. 	50.0/100

단계	내용	평가점수
사업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 중 ‘지원대상만족도’, ‘지원프로그램 참여관객수’, ‘예술지원단체 활동수준’의 성과목표치에 근접하게 달성하였으며, 핵심고객인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음. - 준정부기관 만족도조사결과 76.8%로 만족도 ‘어느 정도’ 수준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76.7 점으로 성과목표치에 98%의 달성도를 나타냄. - 예산배분은 기존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의거하여 변경이 불가능하며, 전년도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당해연도 세부사업계획 수립 시 제도개선에 반영함. - 지원심의를 통해 결정된 사업은 평가담당직원 및 외부 전문평가단의 평가를 통해 평가되고 있으며, 동 자료는 익년도 지원사업 심의에 반영됨.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예술가가 익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에 신청할 경우, “단체의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에 평가점수가 기재되어 심의위원들에게 제공되고 있음. - 익년도 지원심의 시 제공된 평가자료는 지원심의 결과에 영향을 실제로 끼치고 있음. - 공연예술전문단체집중육성사업의 경우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각 분야별 전문인사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단체의 이행조건 준수여부 등 추진실적에 대한 심층 평가를 통해 익년도 지속 지원여부 등을 결정하고 평가결과를 사업운영에 반영하고 있음. 	53.2/100
종합 평가점수		58.6/100

4. 새로운 예술세계의 개척

1)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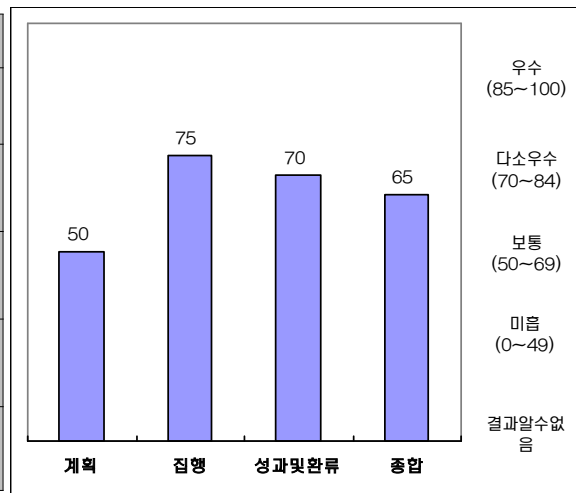
- 예술계의 미래를 개척할 신진 예술가 발굴, 실험적인 창작 활동 진작, 예술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전문인력 육성 등 새로운 예술 및 예술 인력의 발굴·육성

2) 사업내용

- 총사업비 : 55.6억원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지원조건
 - 지원조건 : 사업유형과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 직접경비 일부 지원
 - 지원방법 : 민간경상보조, 일부 자체사업
- 지원대상 : 35세 이하 신진예술가 및 청소년, 무대예술인, 다원예술분야 예술인
- 세부사업내용
 - 다원예술지원, 신진예술가 뉴스타트 및 지속 프로그램 지원, 청소년 문예지 발간지원, 사이버문학광장활성화 사업, 청년인턴채용지원, 무대예술인재교육지원

3) 평가결과

	평가답변					평가점수
	계	예	상당 정도	어느 정도	아니오	평점 (100점환산)
○ 계획	8	4	-	-	4	15.0 (50.1)
○ 집행	4	3	-	-	1	15.0 (75.0)
○ 성과	4	2	1	1	-	35.0 (70.0)
□ 종합	16	9	2	-	5	65.0



4) 성과지표별 주요내용

단계	내 용	평가점수
사업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예술 및 인력 발굴·육성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 대상을 만 35세 이하의 신진예술가 등으로 특화 - 예술계 현장의 자생적 수요기반이 취약하여 수요기반 붕괴 시 이의 재구축을 위한 재정적·정책적 부담이 과도하게 요구됨에 따라 공공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지원 시스템의 유지가 필요함. - 공모사업의 경우 예술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예술 8개 각 장르·분야별 심의위원회 등 총 5단계의 과정을 통해 별도의 선정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함. - 기획사업의 경우 별도 추진단 등을 구성하며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소위원회 등 전문가 그룹의 검토 및 자문을 거쳐 합리성 및 공정성을 제고함. - 그렇지만 신진예술가 육성은 예술의 특성을 고려한 진입장벽 철폐에 초점을 두고, 전략적이고 집중적인 지원, 비재정적 지원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1회성 지원에 그치고 있어 전략목표 달성에 적합하지 않게 추진방식이 설계되어 있음. - 새로운 예술 확대 및 예술인력을 확보를 위해서 예술현장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예술 인력이 지속적으로 유입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미래에 대한 가능성, 잠재력에 대한 투자부담임. 다원예술지원, 신진예술가지원, 예술인력 인턴 채용 등 세부사업별 및 예술장르별 지원대상, 지원방식(재정/비재정), 선정방식(공모/발굴), 추진기간(단/장기) 등을 명확히 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새로운 예술 및 예술인력의 발굴·육성을 통한 새로운 예술 확대 및 예술인력 확보라는 목표에 적합하도록 지원수혜예술가수, 참여자만족도 등을 성과지표로 설계함. - 이러한 성과지표는 신진예술인력 양성, 새로운 예술개척이라는 성과목표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예술지원사업목표나 투입지표로 설정되어 있음. - 새로운 예술활동을 확대되고 신진예술인력이 지속적으로 문화예술계에 유입될 수 있도록 소위원회 워크숍, 포럼 등을 통해 예술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정지원 외에도 인턴대상 교육프로그램운영, 다원예술매개공간운영 등 제도를 마련하는 등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사업을 운영 중임. - 수시지원제도를 통해 신진예술가 등 예술가 및 예술활동에 대한 적극적이며 상시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함. - 일반국민, 현장예술가 및 정책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각종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하며 수시로 전문가(소위원회 위원 등) 및 관계자 회의 개최하고 있음. 	50.1/100
사업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 주관의 고객만족도 조사, CS모니터링 등 주요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와 환류를 강화함. - 각 사업별 교부-성과관리시스템, 내부 담당자 및 외부 평가위원(8개 분야 총 39명) 운영 및 추진위원회 정례회의 등을 통해 추진실태 및 성과정보를 제도화하여 관리함. - 지원대상자의 자체 사정으로 인한 포기사업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됨. - 지원예산은 지원심의를 통해 지원대상과 지원액을 결정하고 연간 집행하는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하였으며, 일부 사업의 경우 외부 협업 등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함. - 문화예술단체의 인턴프로그램 운영시 한국박물관협회, 한국문화의집협회 등 국내 대표적 법인단체들과 협력하는 등 각 사업별로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공동 추진 등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있음. 	75.0/100
사업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 중 ‘예술지원단체활동수준’, ‘참여관람객수’가 성과목표지 초과 달성 - 그렇지만 성과지표의 적절성이 아니므로 평가되었으므로 ‘상당한 정도’로 최종 평가 - 기획재정부 주관 준정부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76.4%로 만족도 ‘어느 정도’ 수준 - ‘07년도 74.2% 대비 2.2% 상승하였으며, 이는 성과목표 75.7%를 상회하는 만족도를 보이는 등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였음. - 다원예술지원사업(공모형)의 경우, 3개년간의 현장평가 및 서면평가 결과를 차년도 심의에 30% 비율로 지원대상 선정에 반영하였고, 다원예술매개공간 사업은 2007년도 평가결과(2008년 1월 25일 평가회의 개최)를 2008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등 평가결과를 환류하고 있음. - 2007년 평가결과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추진함. 	70.0/100
종합 평가점수		65.0/100

5. 예술현장의 자생력 확보

1)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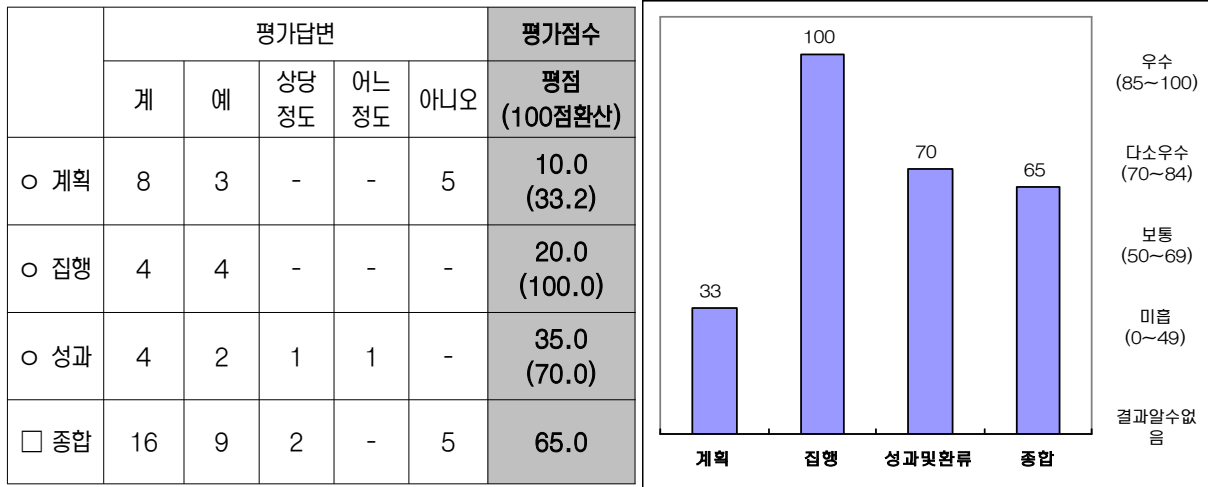
사업명	사업목적
아르코예술극장	한국의 기초 공연예술 발전 선도의 역할을 목적으로 실험적이고 예술적인 공연 제작·발표, 국민의 창조적 예술역량 강화 및 문화 향수권 증대
아르코미술관	비영리·공공미술관으로서 시각문화 중심의 실험성을 지닌 복합미술지원센터를 구현하여 한국미술을 선도하면서, 국민의 시각예술 수용행위를 확산하는 매개공간 역할 추구
아르코예술정보관	예술창작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예술 창조자와 수요자를 매개하는 문화예술분야 종사자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무대·공연예술 신진인력 육성
예술전용공간지원	예술 분야의 공연, 세미나, 향수층 개발 프로그램 발표 공간의 확보 및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예술 활동 거점 확충 및 창작여건 개선
인사미술공간	급변하는 예술현장에 전략적 대응과 선택과 집중을 통한 특성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각예술분야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창조역량을 강화함.
다원예술매개공간	다원예술분야 인프라 확충의 초기단계로 예술가들의 소통공간과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다원예술의 활성화 추구를 위해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
비영리전시공간지원	시각예술 활동 거점인 비영리전시공간의 창의적 전시기획 및 선도적 거점 프로그램의 지원을 통해 미술계 현장의 자생적 역량 강화 도모

2) 사업내용

사업명	사업규모	사업기간	지원조건	지원대상	세부사업내용
아르코예술극장	21.04억원	단년도 계속사업	- 지원조건 : 전문공연장 저렴한 비용으로 대관 : 전문공연장 간접지원형태의 시설공간지원() - 지원방법 : 직접수행(예술극장운영)	공연예술인(단체 및 개인)	- 기초 공연예술의 창작활성화 위해 최고의 시설을 가진 예술 공간을 조성·유지함과 더불어 예술성 높은 공연을 제공함으로써 문화향수권 신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신진예술전문인력 발굴 및 양성, 저적발표 기획과 지원
아르코미술관	12.56억원	단년도 지속사업	작가지원의 경우 작품제작비 지원	국민 및 시각예술계 인사(작가, 전시기획자 등)	
아르코예술정보관	14.15억원	단년도 계속사업	해당 없음	예술 창작 및 연구자	- 아르코예술정보관 시설물 관리 및 운영, 문화예술 콘텐츠 및 기록물 수집 및 관리, 문화예술 콘텐츠 정보화 및 서비스, 한국 근현대 예술사 구술채록사업, 예술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15.15억원	단년도 계속사업	자체사업	교육 수강생 - 공연 예술 아카데미 수강생 및 문화예술매개자	- 예술인력개발원 운영, 공연예술아카데미 운영, 문화예술특화교육 기획 및 운영, 찾아가는 교육 기획 및 운영
예술전용공간지원	17.1억원	단년도 계속사업	자체사업	예술인 및 예술단체	- 문학관 및 창작집필실 지원, 공연예술 전용공간 지원

인사미술공간	6억원	단년도 지속사업	작가지원의 경우 작품 제작비 지원	유망신진작가 및 시각예술전문가	- 전시 및 프로덕션 지원, 워크 숍, 출판, 아카이브
다원예술매개공간	2억원	단년도 계속사업	민간경상보조	전국의 다원예술가 및 흥대를 비롯한 지역 활동가	- 다원예술 창작 워크숍, 외부 무 료대관을 통한 창작물 시연, 발 표 기회 제공, 다원예술분야 비 평활성화를 위한 신진비평가 발 굴, 예술가들 대상 교육프로그 램 및 토론프로그램 운영
비영리전시공간지원	5억원	단년도 계속사업	일반공모로 선정된 16 개 공간을 2년간 지원하 되, 운영경비의 경우 지 원금 20% 내에서 지원	최소 3년 이상 운 영 중인 비영리 전시공간	- 전국의 비영리전시공간 16개 소 지원

3) 평가결과



4) 성과지표별 주요내용

단계	내용	평가점수
사업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예술의 창작환경 개선 및 자생력 강화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사업내용은, 아르코예술극장, 아르코미술관, 아르코예술정보관,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등 예술위원회의 자체 예술시설 운영과 문학 및 공연예술전용공간 지원을 통해 기초공연예술 발전, 시각예술 확산, 예술자료연구지원, 무대공연인력 육성 등으로 구성되어 목표-수단의 인과성이 매우 미흡한 사업임. - 민간의 유사사업이나 문화시설 운영과의 차별성, 역할분담 등이 명확하지 않고, 각 시설별/사업별 고유한 지향목표가 불명확함. - 이에 따라 실제 성과지표는 예술위원회의 고유성이 없이 일반적인 문화시설의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이러한 사업을 예술위원회에서 추진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열악한 기초예술계의 창작공간 지원 및 만성적인 시설노후 개선 및 운영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창작 역량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 - 추진방식에 있어서도 효율성 및 특성을 고려한 운영방식이 도입되지 못하고 예술위원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음. - 기초예술분야의 전용공간지원 사업은 장르별 특성을 고려하여 장르별 소위원회, 지원심의위원회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적합한 지원/평가방식을 운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임. - 예술전용공간지원 사업은 각 장르별, 분야별 소위원회 등을 통해 현장 예술계의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각 시설별로 관람객 모니터링제도, 관객리포터제도 및 외부리서치전문기관 만족도조사 등 적정하며 객관적인 평가/검증 장치 마련됨. -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제도 개선 조치를 수행하고 있음. 	33.2/100

단계	내용	평가점수
사업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시설별 이해관계자(지원대상) 및 내부 회의, 설문조사, 모니터링, 성과평가, 통계 수집을 통해 관련 성과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파악하여 활용함. - 각 장르별 소위원회 정례회의 및 포럼 등을 통해 전반적인 사업과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사업별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해 성과정보를 관리함. - 자체 시설운영 사업의 경우 추진계획에 의거 계획대로 추진됨. - 예술전용공간 지원사업도 각 사업별 추진계획에 의거 계획대로 모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장르별 지원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연간 지원계획에 의거 사업을 시행한 후 성과보고서를 받아 평가를 통해 그 결과를 반영함. - 사업추진 효율성 및 예산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부금 협찬,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반영, 고객 중심 서비스 개선, 프로그램 개선 및 예산 절감 등 다각적인 조치 추진함. - 지원예산은 지원심의를 통해 지원대상과 지원액을 결정하고 연간 집행하는 시스템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사업성과를 높임. - 시설 특성에 기반 하여 관련한 다른 사업/관련기관과의 협조 및 연계 체계 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함. 	100.0/100
사업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별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지만, 성과지표의 적절성이 아니므로 평가되었으므로 ‘상당한 정도’ 로 평가 - 각 시설별로 각종 내·외부 평가결과를 제도개선, 예산배분 등에 반영하고 있음. - 예술전용공간지원사업의 경우 예산배분은 기존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변경이 불가능하며, 전년도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당해연도 세부사업계획 수립 시 제도개선에 반영함. - 2007년도 평가는 전체 단위사업 중 일부 평가로 추진되어 ‘아르코예술극장’ 과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에 대하여 평가결과 개선 권고사항이 제시되었음. - 아르코예술극장은 예술 감독이 자의적인 판단을 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감독 및 자문을 받도록 할 것이 제안되었으며, 동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예술극장 기획 프로그램 선정 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추천작을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전문가들의 모니터링을 받음. - 아르코예술극장은 공공 극장으로서의 존재이유와 비전이 매우 중요하며 공익성을 실현하기 위해 예술위원회의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동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예술극장 기획프로그램의 품질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예산을 증액하고 예술극장 슬로건 마련 및 공공극장으로서의 핵심 운영전략을 수립·조직 개편을 통해 공익성을 높임. -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은 전문인력 및 새로운 무대기술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 제안되었으며, 동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무대현장인력의 재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해외 저명 무대미술전문가 초청워크숍 개최 및 국내 대가 초청 무대예술 실습워크숍을 기획하여 2009년부터 실시할 예정임. -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은 교육프로그램 기획 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동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장·단기 교육프로그램의 기획력을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가들 중심으로 프로그램 기획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마련함. 	70.0/100
종합 평가점수		65.0/100

6. 예술의 생활화

1)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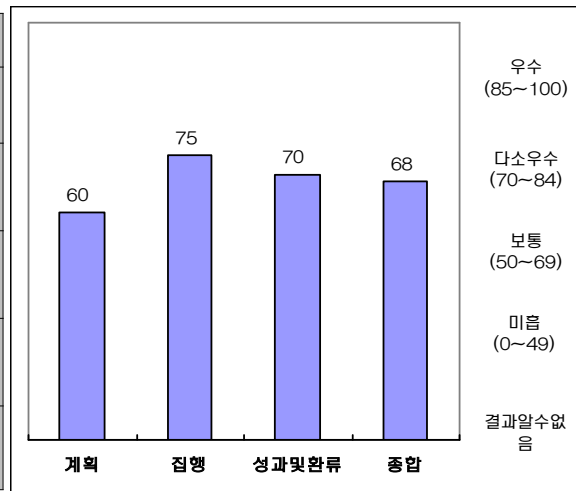
- 독서 생활화를 통한 21C 지식강국의 구현
- 참여와 자치에 기반한 지역문화 공동체 형성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8년 3월~2008년 12월
- 사업규모 : 70개소 내외 조성
- 기준면적 : 1개소당 165㎡(약 50평) 내외
- 지원규모 : 문예예술진흥기금 50억원
 - 문예예술진흥기금과 지방비 매칭 : 지방비(시·군·구)는 30%이상 부담
- 지원절차
 - 시·군·구의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시·도에서 신청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지원대상 심사 및 선정
- 사업주체: 지방자치단체

3) 평가결과

	평가답변					평가점수
	계	예	상당 정도	어느 정도	아니오	평점 (100점환산)
○ 계획	8	5	-	-	3	18.0 (60.0)
○ 집행	4	3	-	-	1	15.0 (75.0)
○ 성과	4	2	1	1	-	35.0 (70.0)
□ 종합	16	10	2	-	4	68.0



4) 성과지표별 주요내용

단계	내용	평가점수
사업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은 전국 마을단위에 주민밀착형 작은도서관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및 주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통해 예술을 생활화 한다는 사업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음. - 법령상의 자금 출연근거 및 사용 용도와 부합하며 공공도서관 설립이 어려운 문화소외지역 등 주민의 도서관 접근성을 개선하여 문화향유 기회확대와 지역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립중앙도서관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부의 고유업무인 도서관조성사업과의 중복성 발생 - 본 사업은 사업수행자인 지자체의 계획에 의거하여 추진하도록 구성함으로써 최대한 절차 및 추진체계의 적정성을 기하고 있으며,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사업을 추진함. - '04 ~ '07년까지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추진하던 동 사업은 '08년 문예기금사업 편입, 기금관리·운영주체(문예위)와 사업추진(국립중앙도서관) 기관이 이원화 되는 등 복잡한 사업진행 체계를 보완하였으며, '09년부터 국고로 전환예정임. -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여건 조성을 위하여 자치단체 자본보조, 매칭사업으로 총사업비의 30%이상의 지방비 및 운영비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사업수행자의 관심과 참여확보를 제도와 하는 등 적합한 지원방식과 외부기관의 공정한 평가방식을 운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임. - 성과지표가 도서관조성건수 등 투입지표 중심으로 구성되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를 의미있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문예진흥기금 연간 운영사업에 대한 종합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작은도서관 조성 평가 및 외부 리서치전문기관 만족도조사 등을 통한 작은도서관 조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검증장치도 마련함. -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도 담당자 간담회 및 사업설명회 개최, 작은도서관 조성 관련 매뉴얼 개발·보급을 통한 적절한 제도개선 조치를 수행함. 	60.0/100
사업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분기 추진주체의 사업실적 및 계획을 제출받아 사업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를 하며, 적절한 현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사업추진상 미진내용이나 보완내용을 파악하여 조치함. - 예산의 합리적 집행을 위하여 사업수행 주체의 예산지출도 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되었으며, 사업추진 상황보고를 통해 사업계획 대비 예산집행실적 및 집행상황을 파악·관리하였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요경비 배분 변경 시 교부조건을 통해 변경승인을 통한 집행으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소소한 변경은 자체 심의를 통해 변경함으로써 적극적 사업추진을 도모하였음. - 사업추진 효율성 및 예산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기업의 후원 등을 통해 예산절감 및 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를 추진함. - 사업수행주체의 예산지출도 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되었으며, 사업추진상황보고를 통해 사업계획 대비 예산집행실적 및 집행사항을 파악·관리하는 등 계획된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함. -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 사업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협조 및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원활하게 협조, 연계함. 	75.0/100
사업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이 명기한 해당 목표에 대하여 달성 노력을 다하여 2가지 성과지표 중 1개 지표는 당초계획을 초과하여 달성하였고, 다른 1개 지표는 상당한 수준으로 달성하였지만, 성과지표의 적절성이 아니므로 평가되었으므로 최종적으로 '상당한정도' 로 평가 - 사업자체평가인 작은도서관 이용자만족도 조사 및 조성평가의 경우, '08년 조성사업 후 작은도서관이 운영되는 시점인 '09년도 상반기 중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 지원대상 만족도 결과가 78.%로 만족도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타남. - 전년도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당해연도 사업계획 수립 시 제도개선에 반영함. - 2007년 개선 및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을 개선함. 	70.0/100
종합 평가점수		68.0/100

7. 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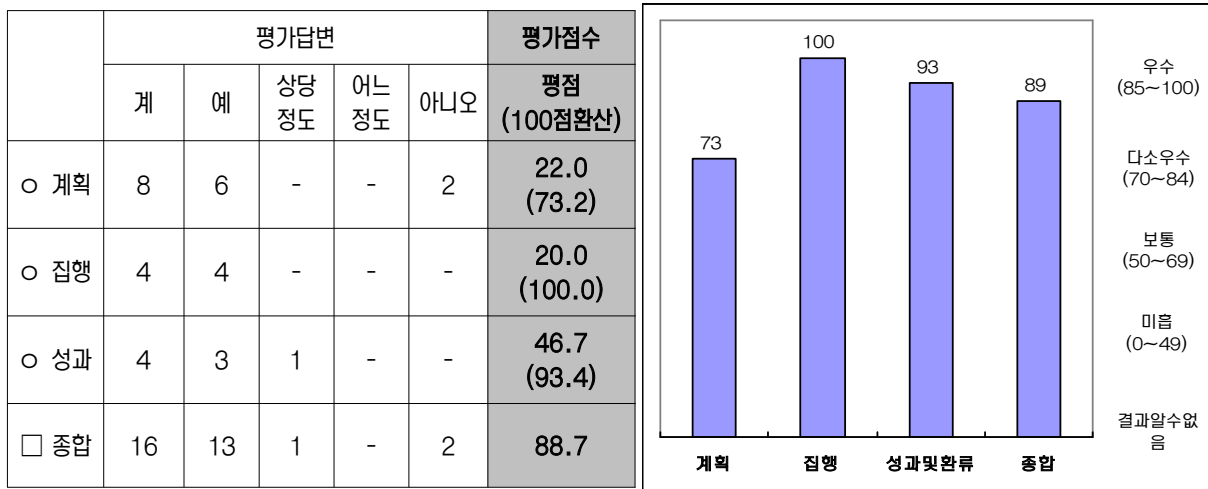
1) 사업목적

-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순회프로그램 및 기초예술을 통한 문화나눔과 노인,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 강화함.

2) 주요내용

- 사업구분
 -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순회
 - 문화소외계층대상 문화나눔(문학, 전통, 사티, 바우처)
 - 지역문예기반시설활용 문예프로그램 제공
 - 지역문화예술기반시설 활용 전시프로그램지원
 - 실버세대의 문화 역량 발굴 · 개발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지원대상 : 소외지역의 주민 및 소외계층
- 지원방법 : 직접수행 및 민간경상보조 병행

3) 평가결과



4) 성과지표별 주요내용

단계	내용	평가점수
사업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상의 자금 출연근거 및 사용용도와 부합하며, ‘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 라는 사업 목표를 위한 세부사업들의 목적이 명확하며 문화예술 향유의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세부사업별 뚜렷한 방법을 갖추고 있음. - 본 사업의 유사사업으로 경기문화재단의 ‘소외계층 문화예술향유증진’ 사업이 있으나 사업 방식 및 사업 범위가 전혀 다름. - 세부사업별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의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제정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금 관리 규정을 비롯한 모든 규정을 준수함. - 본 사업의 사업 목표인 소외계층 문화향수 수준 제고를 위해,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대상 선정의 정밀성을 확보함. -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세부사업별로 주 수혜자 구분 및 지원 장르의 다양화를 위해 사업방식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행정체계의 일원화를 통해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감독기능을 강화함. - 예술의 사회적 역할확대 사업은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문화예술향수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소외계층(노인, 학생, 저소득층, 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적 특성(소외지역 주민, 군인 등)을 포함함. -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는 사업목적에 기초로, 본 사업의 사회적 역할을 과학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으며 인과관계도 설명 가능함. - 성과목표를 객관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스템을 이용하여 주기적인 성과 가동률 점검함. - ‘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 사업을 시행하는데 사업진행의 효율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사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예술계 인사들을 심의에 포함하였으며, 타 기관과의 MOU체결을 통해 외부기관의 요구를 적극 반영 - 복권기금사업의 각 추진주체별 명확하고 효율적인 역할분담, 전체적이고 타분야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전달체계 등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73.2/100
사업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사업들에 대한 내부 점검 및 주간·월간 실적 점검을 통해 성과목표 가동률의 지속적인 수집하며 고객만족도 조사 및 사업운영 점검을 위한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함. - 문제점 및 개선사항 발견 시 조속히 처리하여 원활한 사업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함. - 예산이 사업계획에 의해 집행되었으며, 지원금 관리규정 및 집행지침에 적합하게 지원됨. - 회계관리 시스템 구입을 통한 세부사업별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함. - 사업비 축소에 의해 사업의 사회적 효과성 약화를 막고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를 확보함. - 세부사업별로 사업진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최종수요자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해당 기관 및 단체들과 MOU를 체결하여 긴밀한 협조하도록 사업 시행함. 	100.0/100
사업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평가, 자금운용자율평가, 복권기금사업평가 등에 본 사업이 명기한 해당 목표에 대하여 달성 노력을 다한바 제시한 목표 모두 달성함. - 준정부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82.4%로 만족도가 ‘상당한 정도’ 임. - 고객 만족도 조사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최종수요자들의 만족도 및 지원대상들의 만족도는 모두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함. - 내·외부 평가를 통해 지적된 사항을 총괄 사업계획 수립 시 적극 수렴하여 제도개선 및 예산배분, 지원심의 등에 활용함. - 2007년 평가결과의 개선 및 권고사항을 연 중 3회(사업계획 수립 시, 연중 사업점검 시, 평가 시) 이상 평가 및 보고서를 통해 세부사업별로 환류시킴으로써 사업 추진 방향에 적극 반영함. 	93.4/100
종합 평가점수		88.7/100

8. 예술의 가치확산과 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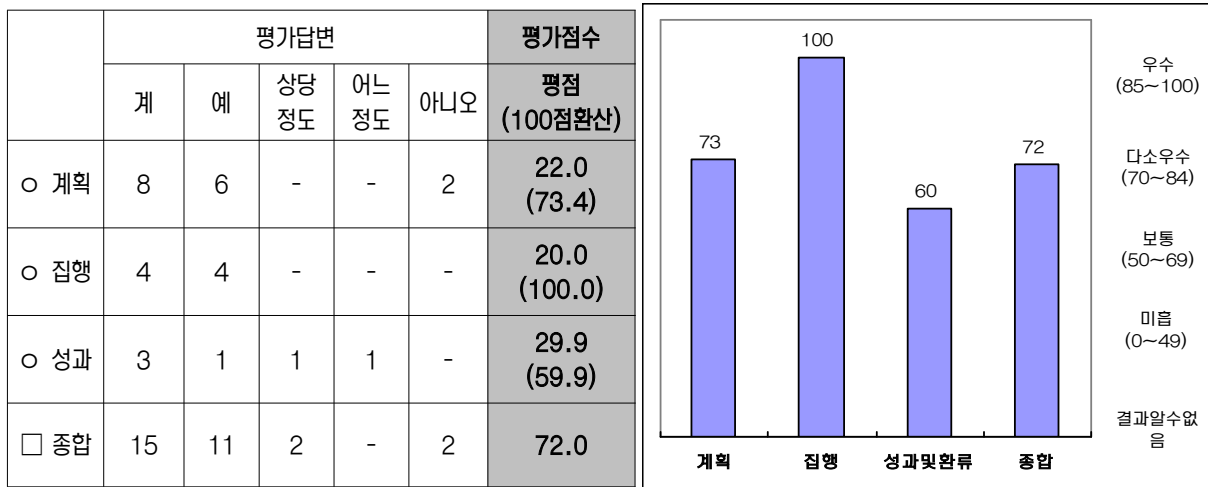
1) 사업목적

- 예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 예술현장의 정책수요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연구함으로써 위원회 정책 수립 및 집행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함.
- 문화예술자료의 구축 및 기록보존, 예술현상에 대한 연구와 비평 활동 지원을 통해 예술유산의 보존·창작기반 및 여건 조성
- 당대 예술의 가치를 보전하고 확산하는 작업의 체계화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사업
- 사업규모 : 85억원
- 지원대상 : 예술인(민간예술단체, 개인) 및 국민
- 지원조건 : 정액보조(사업규모별 차등지원) / 자체 사업
- 세부사업내용
 - 기초예술정책연구조사사업, 예술보존조사연구지원, 예술의 사회적 인식 제고

3) 평가결과



4) 성과지표별 주요내용

단계	내용	평가점수
사업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 『ARKO 2010』에서 설정된 전략목표와 핵심과제에 따라 예술의 성과와 가치를 보전·확대하고 미래에 전승하기 위한 각종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므로써 사업목적과 추진근거가 명확함. · 기초예술정책연구조사사업 : 예술작품과 사료 또는 예술현상에 대한 민간 예술단체나 예술가의 보존·조사연구·비평·발간 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의 지원 및 예술분야 정책개발과 현황조사를 위한 연구용역과 현장 의견수렴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그 내용이나 대상 및 목적이 기초예술분야에 특화되어 있음. · 문화예술이미지제고사업 : 삶의 질 제고에 있어 문화예술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문화예술에 대한 민간 지원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기초예술의 중요성에 대한 캠페인 사업은 중복 사업이 없음. · 예술보존조사연구지원사업 : 예술작품과 사료 또는 예술현상에 대한 민간 예술단체나 예술가의 보존·조사연구·비평·발간 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그 목적이나 수혜대상 및 내용 등은 명확함 - 기초예술정책연구사업은 자체 연구사업으로서 예술의 가치확산과 보전을 위한 사업이외에 예술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내부적인 목적을 가진 사업이 다수 선정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활용방안, 적절한 단체 선정 등에서 일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예술보존조사연구지원 : 예술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예술 각 장르·분야별 심의위원회를 통해 합리적 선정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함. - 기초예술정책연구사업 : 다양한 예술현장의 현주소를 심층적으로 조사분석하기 위한 전문 연구용역과제의 민간위탁과 당면한 예술현안에 대한 정책적 비전과 전략제시를 위한 연구개발 활동의 직접수행 방식을 병행하고 있음. - 문화예술이미지제고프로젝트 사업 : 생활속에 예술이 스며들어 삶의 질이 높아진 다양한 사례를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예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캠페인의 공익적 성격상 예술위원회에서 다양한 채널을 이용하여 하는 방식이 적절함. - 예술보존조사연구지원사업 및 문화예술서적발간사업 : 문화예술 부문 내에서도 지속적인 지원이 더 요청되는 R&D 영역으로서 일반 공모를 통해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민간보조 방식과, 다양한 예술현장의 현주소를 심층 조사·분석하기 위한 전문 연구용역의 추진 및 당면한 예술현안에 대한 정책적 비전과 전략 제시를 위한 연구개발 활동의 직접수행 방식을 병행하고 있음. - 예술의 가치확산과 보전이라는 다른 예술활동 지원사업과 차별화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주로 책자발간 및 연구사업임에도 실제 성과지표는 일반 예술활동 지원과 유사한 성과지표로 구성되고 특히 투입지표가 많아 본 사업의 성과목표에 대응하는 성과지표가 설정되지 못하고 있음. 	73.4/100
사업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전문위원제도를 통한 정책연구사업 상시관리, 관련 연구결과 및 정보수집 등을 상시적으로 수행함. - 본 사업은 직접수행사업 및 일부 민간보조사업으로 당초 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되었음. - 사전 수요조사와 심사를 통한 과제선정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최대한 억제하였고 연구용역 계약 체결 시 부적합한 용역비의 감액 체결로 예산을 절감함. - 대국민 파급효과가 높은 공중파 TV 프로그램 콘텐츠 제공 등 제작지원을 통해 예술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홍보비 절감함. - 정책연구용역의 과제 선정에 있어서 각 소위원회의 의견수렴 및 제안서 접수를 통하여 지원사업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함. - 한국메세나협회의 등과 기업 기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체계 구축하여 운영함. 	100.0/100
사업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달성하였으나, 성과지표 적절성이 아니요 평가되었으므로 최종적으로 ‘상당한 정도’ 로 평가 - 지원대상만족도(PCSI) 조사 결과, 72%로 만족도 ‘어느 정도’ 수준 - 평가제도 운영을 통해 확인되는 미비사항과 부족한 점에 대하여 차후 사업계획 수립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중점 관리하고 있음. - 전년도 평가에서의 개선권고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음. 	59.9/100
종합 평가점수		72.0/100

세부사업 평가

5

1. 세부사업 평가결과 요약 및 개선방안
2. 세부사업 평가 답변 근거 및 자료

제1절 세부사업 평가결과 요약 및 개선방안

1. 평가결과 점수

1) 세부사업 평가 등급 분포 현황

- 평가대상 세부사업 중 매우 우수한 수준(효과적)의 평가결과가 도출된 사업은 없고, 우수한 사업(다소 효과적)이 4건, 보통이 14건, 미흡한 사업(비효과적)이 1건으로 평가되었음.
 - 평균점수는 74.9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저하된 것으로 나타남(2007년 79.1점).
- 단위사업과 마찬가지로 복권기금사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결과를 보였고, 2009년에 폐지되는 사업(청년인턴채용, 무대예술인재교육)은 낮은 평가를 받음.
- 예술위원회 자체에서 운영하는 사업 중 미술관운영 사업의 평가는 미흡(60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집중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표 5-1] 세부사업 평가 등급 분포 현황

등 급	가	나	다	라
평 가 내 용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최 종 점 수	90% 이상	80% 이상 ~90% 미만	60% 이상 ~80% 미만	60% 미만
사업 개수	0	4	14	1

2) 세부사업 단계별 평가결과

[표 5-2] 세부사업 단계별 평가결과

사업구분		계획단계 (20점)	집행단계 (30점)	성과및환류 (50점)	총점 (100점)	평가결과
전국연극제및무용제지원	취득점수	17	22	32	71	보통
	환산점수	85	73	64		
문화의달 행사지원	취득점수	17	26	40	83	우수
	환산점수	85	87	80		
지역문화협의체운영	취득점수	14	24	36	74	보통
	환산점수	70	80	72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운영및전시	취득점수	16	26	35	77	보통
	환산점수	80	87	70		
해외민간문화단체 교류및해외정보서비스	취득점수	18	24	34	76	보통
	환산점수	90	80	68		
예술창조및표현활동지원 (문학, 시각예술)	취득점수	16	22	39	77	보통
	환산점수	80	73	78		
예술창조및표현활동지원 (공연예술)	취득점수	15	24	37	76	보통
	환산점수	75	80	74		
수요자맞춤형지원	취득점수	16	25	36	77	보통
	환산점수	80	83	72		
공연예술전문단체집중육성	취득점수	16	24	38	78	보통
	환산점수	80	80	76		
청년인턴채용지원	취득점수	12	26	30	68	보통
	환산점수	60	87	60		
무대예술인재교육지원	취득점수	10	16	30	56	미흡
	환산점수	50	53	60		
예술전용공간지원	취득점수	16	20	32	68	보통
	환산점수	80	67	64		
작은도서관 조성	취득점수	8	30	36	74	보통
	환산점수	40	100	72		
소외지역을찾아가는문화순회	취득점수	18	26	40	84	우수
	환산점수	90	87	80		
문화소외계층대상문화나눔	취득점수	18	26	40	84	우수
	환산점수	80	87	84		
지역문예기반시설활용 예술프로그램제공	취득점수	16	24	39	79	보통
	환산점수	80	80	78		
문화예술서적발간	취득점수	18	25	40	83	우수
	환산점수	90	83	80		

환산점수(100)
 취득점수

3) 미술관 및 정보관 평가결과

[표 5-3] 미술관 평가결과

사업구분		계획단계 (20점)	집행단계 (30점)	성과및환류 (50점)	총점 (100점)	평가결과
미술관운영및기획프로그램	취득점수	8	18	34	60	보통
	환산점수	40	60	68		

[표 5-4] 예술정보관 평가결과

사업구분		계획단계 (20점)	집행단계 (40점)	성과및환류 (40점)	총점 (100점)	평가결과
정보관운영및기획프로그램	취득점수	16	31	31	78	보통
	환산점수	80	78	78		

	환산점수(100)
	취득점수

4) 사업별 성과지표 적정성 및 달성도 평가결과

[표 5-5] 사업별 성과지표 적정성 및 달성도 평가결과

세세부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	결과치	달성률 (%)	성과지표 적정성 (10)	달성도 (30)
전국연극제및무용제지원	지원프로그램관람객수	88,197명	61,850명	70	5	20
문화의달행사지원	참여자만족도(관람객)	75.6점	77점	102	7	24
	지원프로그램관람객수	184,110명	284,927명	155		
지역문화협의체운영	지역문화협의체가입률	90%	94%	104	6	22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운영및전시	지원프로그램관람객수	39,720명	40,977명	103	7	24
	외부후원실적증가율	50%	76%	152		
해외민간문화단체교류및해외 정보서비스	국제교류기관MOU체결목표건수	2건	3건	150	6	22
	참여자만족도(관람객)	75.6점	77.2점	102		
예술창작 및 표현활동지원	지원프로그램참여관객수	728,625명	1,804,637명	248	7	23
	예술지원수혜예술가수	53,230명	30,380명	57		
	예술지원단체활동수준(건)	16,322건	13,389건	82		
수요자 및 맞춤형지원	온라인예술정보서비스만족도	75.6점	76.8점	102	6	22
공연예술단체집중육성	공연회수	3,484회	3,080회	88	8	22
	발표작품수	2,184편	1389편	64		
	참여예술인수	7,436명	6,902명	93		
	참여관객수	1,168,232명	970,893명	83		
	지원단체역량의 전문성	88.4점	-	-		
청년인턴채용지원	지원프로그램참여자수(인턴)	170명	170명	100	4	20
	수혜자만족도	75.6점	88점	116		
무대예술인 재교육지원	재교육사업참여자수	220명	220명	100	6	20
	참여자만족도(교육생)	75.6점	-	-		
예술전용공간지원	지원단체만족도	79.2점	78.2점	99	6	20
미술관운영	1일이용자수	161명	265명	165	6	22
	미술기획프로그램	이용자만족도	70.0점	73.3점		
	전시별언론보도건수	12.1건	36.6건	302		
예술정보관운영	1일이용자수(온-오프라인)	1,022명	1,341명	131	7	16*
예술정보기획프로그램	이용자만족도	78.4점	78.2점	100		
	수집자료 건수	5,424건	9,572건	176		
작은도서관조성	조성건수	70개소	74개소	106	6	22
소외지역을찾아가는문화순회	참여자만족도(관객)	83.3점	80.2점	96	8	24
문화소외계층대상문화나눔	참여자만족도(관객)	81.2점	83.4점	103	8	26
지역문예기반시설활용 예술프로그램제공	참여자만족도(관객)	76.4점	83.4점	109	7	24
문화예술서적발간	발간부수	7,200부	5,200부	72	8	24
	무료배포처수	2,382개처	2,319개처	97		
	유료판매부수	730부	800부	110		
	독자 만족도	75.6점	77.3점	102		

* 아르코 예술정보관 - 성과지표 적정성(10), 달성도(20)

2. 세부사업별 성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사업명	개선권고사항	개선제안사항
1. 전국연극제및무용제지원	연극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단체 공연 및 경연방식 개선해야 함. - 페스티벌 형식을 지양하고 순수한 연극축제가 되도록 개선해야 함. - 다양한 형식의 연극을 선보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개선되어야 함. ■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객확보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며, 관객확보를 위한 추진 체계 개발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으로 작품의 내용이 평이하고 수준미달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 내용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함. - 경연의 1일 2회 공연은 사업목적과 적합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연 스케줄 조정 필요 - 연극제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프로그램 필요
	무용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보고서 및 심층보고서 작성은 필수적임. - 행사 진행시 축적되는 노하우 등이 피드백 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되어야 함. - 성과지표 및 심사지표는 명확해야 함. ■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 처리의 명확성, 정확성이 현격히 떨어짐. - 행사를 통한 예술성 고취 실패 및 우수작을 통한 새로운 미학적 담론 제공 미비(경연에만 의존하여 경연용 작품만 양산) - 17회를 거치면서 관례화된 사안들이 다수 있고 전반적인 행사 운영이 부정적으로 고착화됨. - 경연 방식은 유지하되 심사 성과지표와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위 역량 미달로 예술위의 책임 하에 독립적인 협의체 구성하여, 일회적 운영에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성과와 노하우 축적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가능함.
2. 문화의달행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자에게 행사취지나 업무분장에 관한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져야 함. - 타시도민 및 외국인의 참여율이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의 질과 체계를 확립하고, 관광상품 및 지역문화상품을 개발하여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속성의 보장이 결여되어 성과를 축적할 미흡한 장치 부재 - ‘삶의 양식이 곧 문화’ 라는 의미를 행사 속에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부족함. -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부재 · 각 지역의 전통문화를 발굴, 계승, 발전시키는 프로그램과 전통의 현대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시도 지속적으로 기획
3. 지역문화협의체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협력네트워크구축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협의체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을 위한 중장기계획수립과 연구개발 필요 ■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 및 기초단위 문화재단의 공동사업(공동연수사업, 인력교류사업, 해외연수사업 등)을 개발·추진함으로써 지역문화재단에 실질적 도움 제공 및 참여 활성화 제고 - 단순 정보교류 차원을 넘어 공동지표 개발을 통해 공동정보 산출, 관리, 서비스하고 나아가 신규 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컨설팅 기능 강화 ■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위 국제문화예술네트워크와 연계하여 협의체가 지역의 국제네트워크 창구역할을 수행 - 신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추진체계 필요 - 협의체 참여 재단 현황 제시 - 홈페이지상 정보제공 수준분석(자료현황 및 이용정도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 및 지역단위 문화재단에 대한 지역문화협의체의 역할이 불분명하며, 구체적 계획 부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문화재단 역할 및 계획을 분명히 기재해야 함. - 지역 문화협의체 운영 중장기 발전계획, 단기 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함. ■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를 주로 회의에 초점을 둬서 사업구조가 비교적 단순하여, 협력네트워크의 구성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공동사업이 취약하므로, 사업 구조를 활성화하여 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광역단위 지역문화재단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역할 및 사업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역문화재단의 참여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역할 방안을 모색 ■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운영사업의 경우 아직 기존 정보 교류 수준이며, 지역문화기관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식정보관리체계가 구축되지 못하므로 지역문화협의체 홈페이지 운영을 활성화시켜야 함.

구분	개선 권 고 사 항	개 선 제 안 사 항	
4.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운영및 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미셔너 선정방식이 선정위원회 추천이 아닌 공모형식으로 개선 필요 - 커미셔너 선정시기가 늦고, 기획과 준비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최소 2년 전에 선정되어 충분한 작업시간이 주어져야 함. ■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 및 모니터링비용, 해외전문가 초빙비용, 작가 전시지원금 확충 등 예산 항목 및 금액 확충 필요 - 낙후된 한국관의 시설보수 및 인프라 확충 필요 - 현지 평가단에 건축 또는 도시 전문가 및 전 커미셔너의 참여가 필수적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협찬금 유치를 커미셔너 개인 능력에만 의존하여 예산항목 및 금액 확충 되어야 함. ■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 및 관람객 모니터링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홍보를 위한 발표회, 토론회, 귀국전 등의 개최 필요하며, 관련기관 인사들의 적극적 초대 필요 - 주최측 및 전 커미셔너와의 소통을 통해 노하우 및 기술 전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관람객 모니터링 필요 - 한국관 위치가 주동선에서 멀어져 인지도가 낮은 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5. 해외민간문화단체 교류및해외정보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문화단체 교류사업을 위한 종합계획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존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해외문화단체의 특성분석 및 교류협력 전략 개발 필요 ■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통신원제도의 경우, 고객수요조사 및 정보 활용도 조사를 통해 해외나라 정보유형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문화단체 및 기관과의 MOU를 통해 상호 정보를 교류하는 체계 구축 필요 ■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문화단체 교류사업의 경우, 국내외 협력기관 선정 시 명확한 원칙과 기준 부재하므로, 국내외 협력기관 선정 시 원칙과 기준 마련되어야 함. - 민간부문 국제교류 지원사업의 경우, 성과지표 및 성과관리체계가 구축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부문 국제교류사업지원에 대한 성과관리모형을 개발하여 체계적 지원 및 관리 필요 -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경우, 장기지원사업 개발 필요 ■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한 해외레지던스 프로그램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체계 구축 - 교류대상인 해외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정보관리체계 구축 필요 - 우수한 해외레지던스 프로그램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체계 구축 -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경우, 장기지원사업 개발 필요 - 교류대상인 해외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정보관리체계 구축 필요 	
6-1. 예술창조및표현활동지원	시각 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기획자의 기획 중 상업성이 내재된 갤러리 대표 자체 기획전이나 유명 작가에 의지한 전시는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함. - 재정자립도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케 해서 기금외 자부담 내역의 허위 정산 보고서가 제출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방침을 마련해야 함. - 지속적으로 수혜 받는 작가나 단체들에 대한 중복 수혜 검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질 향상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지원 규모를 늘리고, 우수 사업에 선별적 집중지원을 고려 - 지역별 할당 문제가 선정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함. - 지역별 할당 불공평 및 소액다건과 선택과 집중의 불균형이 발생하므로, 개인전은 소액다건 위주, 단체전 및 기획전은 선택과 집중 지원이 요구됨. - 형식적인 전문가 현장 평가 지양하고 평가를 및 시스템 마련 필요 ■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과 전문가 현장 평가가 강화되어야 함.
	문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 및 평가등의 절차가 너무 번거로움. · 심사비의 효율화를 위해 시스템을 합리화하여 공정하고 간편한 검증 시스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진흥재단의 연구박사제도와 같이 창작인단체도를 만들어 가능성 있는 창작인들에게 일년치 생활비를 지급하는 방식에 대한 검토 필요 - 개인 창작 역량을 강화하기보다 창작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시스템 개발 필요 - 장편소설 분야는 정액지원하기 보다는 대폭 증액하는 방안을 찾아야 함. - 모든 분야를 동일한 수준에서 정액지원하기 보다 평론과 수필은 다른 분야보다 금액을 낮추거나 지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구분	개선 권 고 사 항	개 선 제 안 사 항
6-2. 예술창조및표현활동지원(공연예술)	연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심의과정에서 평가위원들의 중복 참여는 지원제도의 객관성 확보에 치명적인 장애임. · 평가위원들의 인력풀 확대 필요 - 예술위 산하에 ‘예술지원컨설팅센터협력단’을 두어 지원대상자들 지원컨설팅과 성과관리를 유도했지만, 이 조직의 인적 구성과 역할이 적절한지 의문 · 예술지원컨설팅센터협력단과 예술위 사업간 중복되는 사업들 간의 역할 구성 및 조율 필요 ■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와 같이 연례행사로 지원이 지속된다 보면 지원주체나 수혜자 모두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우며, 평가자 또한 관행적인 평가에 의존하게 됨. · ‘선택과집중’은 좋은 작품에 조금 더 지원한다는 소극적인 방식이 아닌 ‘킬러 콘텐츠’를 육성하는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 있음. - 매년 일정액의 기업 후원금 및 기부금의 확보의 무화를 고려해야 함. - ‘예술지원컨설팅센터협력단’은 해체하거나 설립 근거와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는 등 진로선택에 고심해야 함.
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의 방만한 평가방식을 간소화하고 효율화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확대, 기금 종류 및 지원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각 기금 특성과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이 선정되고 지원받도록 해야 함. - 평가위원선정에 있어 특정인이 여러 분야에 평가 참여하거나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평가위원 인력풀을 확대하여야 함. - 정부와 사업당사자 모두 문예진흥기금 이외의 기금확보노력이 부족함. · 재정자립도 비율 높여야 함.
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 및 평가방식에 있어 공공성을 살리기 위해 ‘대중관객 친인위원회’와 같은 실험적인 평가단을 만들 필요 있음.
전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대상자들의 결정 사유가 불명확함. · 지원자 결정사유를 보다 큰 명목과 명분 항목을 설정하여 사전 고시해야함. - ‘관객만족도’ 성과지표는 확인이 불가능함. · ‘관객만족도’ 등의 성과지표를 정확하게 조사 실시하고 통계화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지원금 확보 외에 기부금 조성, 특별 예산 지원을 통한 일반 사업지원 노력을 기해야 함. ■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실사 실적저조 등 전체 계획 대비 실적을 향상시키고 개선해야 함. - 사업 종료 후 사업의 성과 및 성취업적과 그 효과를 널리 사회에 알리고 홍보하는 일이 부재함. · 예술 창조 및 표현활동 지원 사업의 성과에 대한 홍보 필요함.

구분	개선 권고 사항	개선 제안 사항
7. 수요자 맞춤형 지원	<p>■ 구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위원 구성시 내부직원 비율 축소 필요 · 5차에 걸친 선정단체 중 예술위에서 실시하는 자체 평가인 2008년 문예진흥기금 성과평가위원들(제3기 소위원회, 현장평가위원)의 사업이 선정됨. - 분야별 심한 지원금액 편차 개선 필요 <p>■ 집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방법의 수시상담을 통한 단체지원심의의 형평성 문제 개선 필요 - 5차에 걸쳐 진행되는 만큼 신청기간 관련 홍보를 강화해야 함. 	<p>■ 구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행정적 제도 마련 필요 · 5차에 걸친 신청기간, 심의회의일, 선정단체 발표 시기가 변동이 잦고 행정진행이 늦어짐. - 계획수립이 미리 이루어져 1-3월 사업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해외사업의 경우 평가방안 연구 필요
	<p>■ 구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복된 컨설팅협력단 폐지 · 문화예술위원회의 정규조직(예술지원컨설팅센터)와의 차별성이 미흡하고, 정규조직을 지원하는 역할에 국한 <p>■ 집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업무 직원들의 컨설팅 능력 배양 시급 · 컨설턴트들의 진정한 컨설팅의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 · 컨설팅센터협력단에서 운영하는 지원사업의 경우 실제 예술위원회에서 수행하면서도 형식적인 책임성이 미흡 	<p>■ 구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업무를 재정지원과 분리된 개념이 아닌 사업 구조상 및 다른 지원사업과의 연계된 개념으로 접근 <p>■ 집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지원컨설팅센터의 대부분 업무가 지원사업과 평가에 치중됨. - 문화예술인 또는 단체가 필요로 하는 컨설팅업무 부재 - 적극적인 홈페이지 운영 미흡 · 사용자 입장에서의 관점 필요(사용자가 이용하기 쉬운 홈페이지 구축 등) - 컨설팅보고서의 각 분야별 통일성 있는 양식 및 해당직원들의 성의 있는 자료구축 필요 · 지원신청단체 입장에서 필요한 자료 구축 필요
	<p>■ 집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수립 필요 	
8. 공연예술전문 단체집중육성	<p>■ 정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협력형 사업으로의 이관을 위한 준비 미비 - 지역이관 시 지역 특성 및 분야를 고려하지 않은 1/n의 분배방식 문제 - 지역에서 기금을 배분할 때는 기존의방식과 달리 지역특성에 맞는 분야에 더 많이 배분될 수 있도록 분야별(장르별) 비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식 제안 - 다년간 선택과 집중 사업으로써의 전략 및 성과관리체계가 미흡 -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단체의 순차적 선정과 수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선택과 집중'의 취지가 퇴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원규모와 기간을 늘려 '선택과 집중' 강도 제고 필요. - 지원받은 단체와 공연장이 결합하여 시즌별 레토리를 개발할 수 있도록 간접 지원 방식 등의 도입을 통해 기회확대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 <p>■ 구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률적인 이행 조건은 현실적으로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어려움. 	<p>■ 정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으로 이관되었다 하더라도 효과적인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어떤 형식이든 지도 감독을 위한 기능(control tower)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이런 기능은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예술위원회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p>■ 구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지원으로써 재정의 투명성 강화와 이를 위한 단체의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권고만 있을 뿐 단체의 현실을 고려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함. - 단체의 관리강화를 위한 외부와의 연계, 제도적이고 편리한 운영지침 보급 등이 필요

구 분	개 선 권 고 사 항	개 선 제 안 사 항
8. 공연예술전문 단체집중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단체의 유형과 성격에 맞는 ‘단체별 맞춤형 지원방식’ 필요하며, 맞춤형 컨설팅이 병행된다면 보다 실질적 지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보고서, 전문가 평가서, 관객의 질적 만족도에 대한 정밀한 분석 자료 제공되어야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 	
9. 청년인턴채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목적에 알맞은 운영방식으로 전환 - 사업의 지원목적성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인턴 사업을 취업과 관련하여 인식하고 있는 것이 문제. 인턴은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생각해야 함. 인턴사원이 필요하다면 인턴사원 육성계획 및 교육계획이 갖춰져 있어야 하지만, 현재 갖추어 있지 않음. - 문화예술기관의 현황과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계적으로 실무능력을 교육하고 자질을 키워주는 담당인력이 전무하고, 현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실무경험을 체득시킬 업무를 배정하지 못하고 인턴근무자는 단순업무에 단기간 배치되어 사업기간 종료와 함께 원상태로 복귀하게 됨. - 인턴 프로그램을 기관의 특성에 알맞도록 개발하여 운영하고 예술위원회에서 지원을 하여 활성화 되도록 하는 방법 제안 ■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평가지표 개발 - 평가지표 설계의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체적인 평가지표 개발로 단순 정량화 방식의 한계를 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문예진흥기금 단위사업과 연계방안 강구 -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또는 단체에 인턴을 옵션으로 묶어서 일정기간 동안 그 프로젝트에 대해 직무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제안 - 인턴십을 제도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규모 이상의 문화예술단체는 인턴제도의 도입을 법적으로 강구하고 이에 따라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방법 제안 · 기관의 인력채용 계획과 병행하여 인턴십 제도를 운영하여 차후 정규 취업과 연계하도록 유도함. ■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적절성과 기여도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화예술기획경영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내용 중복됨.
10. 무대예술인 재교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목적의 적합성 모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다체계적인 교과과정과 세밀한 계획에 의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명확한 교육목표 지정 - 교육목표의 불확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대예술인 재교육 지원은 무대 위에서 활동하는 공연예술인 모두를 위한 포괄적인 재교육 과정이지만, 교육내용은 배우들의 기본적 연기교육과 작품제작으로 채워져 있음. ■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운영의 비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교육기관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적 관점에서 연기자 재교육 방안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예술의 지원 방향이 선택과 집중이라면 일회적 지원이 아닌 전문적인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함. 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무대예술 연수원과 교육기관이 협력하여 우수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상시 전문 프로그램을 시군별로 운영함으로써 직업 예술가들이 능동적으로 신청하여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레벨에 의한 수준별 선택 - 소수정예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수의 클래스를 운영하여 교육의 질 향상 도모 - 다양한 교과과정과 교재 개발

사업명	개 선 권 고 사 항	개 선 제 안 사 항
10. 무대예술인 재교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 풀 빈약 · 현재 강사 풀에 대한 심각한 고려가 필요함. 국내와 국외를 망라한 전문적인 다양한 강사 풀을 확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함. - 교육공간마련 - 교육 대상자 선발을 위한 객관적 평가지표 결여 · 교육 대상자 선발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지원신청자들의 수준과 경력, 교육에 대한 열의와 의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의 지표가 필요함.
11. 예술 전용 공간 지원	<p>■ 정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이 분명해야하며, 그에 따른 구체적 성과지표 필요 - 지원대상 및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함. · 집필실은 작가들의 창작여건 제고 및 창작활동 활성화로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문학관은 문학에 대한 인프라 확충 및 접근성 제고 등으로 목표를 정할 필요가 있음. - 사업방식의 전면적 혁신 필요 · 계획단계에서부터 ‘단순히 시설을 지원한다’는 당위론적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 내실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이 되지 못함. - 근본적 수정 필요 <p>■ 집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생력을 위한 프로그램 찾아야함. · 분명한 운영목적 기준에 따라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프로그램 마련해야 함. · 집필실의 경우 보다 뛰어난 작품 집필환경 제공 및 작품 활용 등의 계획 있어야함. · 문학관의 경우 보다 많은 관람객 끌어들이기 위한 작가의 활용전략과 작가와 독자, 주민, 지역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등 보다 다양한 마케팅 프로그램이 만들어 질 필요가 있음. 	<p>■ 구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관리, 관리체계 및 모니터링 제도 필요 · 문학관이나 창작집필실과 같은 ‘문학전용공간 활성화’ 사업은 사업목적이 분명해야 하며, 그에 따른 지표가 반드시 설정되어야 함. · 창작집필실은 작가들의 작업을 전제한 만큼, 입주 작가 대비 산출작품 수 등이 지표로 제시되어야 하며, 문학관은 지역의 주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한다는 목표가 제시된 만큼 이용자 수 및 만족도 등이 제시되어야 함. <p>■ 집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보고 불명료 - 문학에 대한 인프라 확충 및 접근성 제고 차원에서 작가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 · 작가와 독자를 연결하는 프로그램, 작가를 위한 재교육프로그램, 독자를 대상으로 한 창작과 교육프로그램 등
공연 예술 전용 공간 지원	<p>■ 정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목적, 심의기준 등의 재설정, 다른 프로그램 지원사업과의 연계 검토 <p>■ 구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표치와 비교해서 성과단계에서의 실제 목표 달성이 다소 부족 <p>■ 집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심의위원 및 평가위원 선정 시 보다 확대된 인력풀 가동해야 함. - 사업의 심의위원과 평가위원이 동일한 경우 발견됨. 사업의 공정한 평가에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p>■ 구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문화예술위원회 담당 조직 및 인력이 보완되어야 함. <p>■ 집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지원과 공간지원의 성격이 혼재되어 실제 수요자 측면에서 혼선이 있음. - 회계보고를 보다 충실하게 시행할 수 있는 지도가 필요함. - 사업 회계 보고가 부실한 경우 다수 발견됨. - 현장에서의 회계처리가 불명료한 부분들이 발견됨. 특히 수입에 부분이 불명료하게 처리된 사업들이 발견됨에 따라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도가 필요함.

사업명	성과	개 선 권 고 사 항	개 선 제 안 사 항
11. 예술 전용 공간 지원	인사미술공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미술공간이 수행해야 할 보다 명확한 사업 내용의 범위와 목표 등이 구체화 되어야 함. - ‘미술관’ 혹은 ‘아트센터’의 기능과 차별성 이 무엇인지 밝혀야 할 필요가 있음. ■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기관 및 기구의 임무가 지닌 명확성에 따라 각 사업내용을 정해야 함. - 투입대비 효율성, 예술위의 근본적 역할을 고려한 전면적인 사업 재검토 필요 - 위원회 직접 운영방식 보다는 간접지원 및 기존사업과의 연계방식 검토 - 특성화된 전문공간으로 활용 개선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관리 운영 개선과 사업 프로그램 선정 및 추진 (실행)의 객관적인 수월성 지향해야 함. - 예산 운용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위한 방안들이 사전에 논의 되어야 함. ■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성격과 맞지 않는 사업들이 있어 그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함 - 연속사업으로 시작된 경우, 그 사업들을 어떻게 지속 할 것인지 판단해야 함.
	비영리 전시공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안공간의 기여 및 비전에 대한 구체적 적인 목적과 성과관리가 필요함. - 대안공간의 지원방식과 자율성 및 재정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이 고려되어야 함. ■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원매개공간, 비영리전시공간, 국제레지던스 지원사업 등과의 차별성이 미흡하므로 사업의 통합 및 연계 검토 필요 ■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적인 성과목표와 그에 대한 관리체계 및 모니터링 방식이 마련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례사업임에도 혁신에 대한 계획 전무 - 매년 증액되는 예산집행의 근거 부족
	다원예술매개공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선도적인 사업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실행능력이나 사업수행 능력이 부족하면 실험적이고 선도적 예술에 대한 담론이나 비평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함. - 장차 예술창작의 형식적 내용적 발전에 기여할 항목들을 적시하여 그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다원예술창작공간인지 매개공간인지 정체성에 대한 혼란 있음. - 정확한 목표제시 부재는 달성도 불분명하게 만들 ■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지역에 국한된 사업을 예술위의 근본적 미션에 부응하여 전국단위로 전면 재검토 필요 ■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확한 비전을 지닌 디렉터가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지원하여, 성과를 도출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음. - 다원예술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사업이 먼저 시행함으로써, 적절한 사업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의 목적인 지원, 네트워킹 및 다원예술매개 등에 역량의 한계 보임 - 참신성과 수월성에 있어서, 타 공간과의 차별점 전무 ■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수요의 적정수요와 지지가 불투명

사업명	개 선 권 고 사 항	개 선 제 안 사 항
<p>12. 미술관운영 및 기획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 재조정 요망 · 아르크미술관 설립목적과 운영방향이 모호한 상태 · 질적인 수준의 획기적 개선 시급함. 아르크 미술관의 존립위상을 근본적으로 다시 성찰해야 함. - 예술위원회의 근본적인 미션에 부응하여 자체 시설 운영에 대한 전면 재검토 필요 - 인사미술공간 연계를 통하여 실험적 또는 독립 큐레이터 지원공간 등 미술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예술위 미션에 적합한 특화된 공간 전환 검토 ■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르크미술관의 기본 정체성 자체가 모호한 상태이므로, 결과적으로 여러 기획전들의 기획취지 역시 모호하며 파급력이 미약함. - 타 미술관이나 대안공간 등과 차별화 된 아르크 미술관만의 성격과 '브랜드가치' 를 추구해야 함. · 백화점식 행사구성 및 부대행사의 과다, 큰 도움이 안 되는 수익성 프로젝트 등으로 인해, 그간 '미술계를 선도하는 중량감 있는 전시와 쟁점 있는 토론의 장' 으로 기능해 온 아르크 미술관의 위상이 약화된 상태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적으로 어려울 경우 외부전문인력 채용이나 책임 운영기관 등으로 위탁관리 · 운영책임자인 관장이 일정 기간 소신을 가지고 개선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소 3년 이상 임기 보장. 필요시 인사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권한 필요(책임운영기관 전환 시) - 전시장 및 공간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시설개선 검토 및 공간운영계획 수립 필요 ■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 개방을 통한 공공성 강화 - 역량 있고 검증된 전문 학예인력 보강 필요
<p>13. 예술정보관운영 및기획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예연구원, 아키비스트, 컨서베이터, 전산 프로그램 및 기획자 등 예술기록보존기관 운영을 위한 필수 직역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하여 전문성을 갖춘 인력보강이 필요 - 예술위 미션과 관련한 운영방식 또는 기능의 전면적 재검토 필요 - 국가 문화예술정보 허브기관으로서의 대표성 강화 가능성 내지 예술위 사업관련 자료관 역할 등 근본적 기능 재검토 필요 ■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정보화 전략계획부문에 있어서 콘텐츠 수집 및 제작은 원활한 반면, 서비스(정보화)부분에서 다소 미흡하여 문화예술콘텐츠의 다양화 및 서비스 개선이 요구됨. - 저작권 문제로 온라인 서비스가 취약하여 저작권 보상 가능한 방법을 확보하여 온라인 서비스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전문가 평가 및 환류과정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정보 사업의 협력체계 구축 : 기존 또는 신규 공연예술자료관(국립극장 등)과의 역할 분담 및 연계성 강화 ■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사회교육프로그램 조정 필요 : 6개 예술사회교육 프로그램들이 예술정보관 고유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하다고 판단하지만, 고객관리차원에서 불가피한 측면과 수십년간 지속된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단기간 폐지는 어려우나, 합리적인 차원에서 조정이 요구됨.

사업명	개선권고사항	개선제안사항
14. 작은도서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은도서관 건립이란 항목자체는 예술진흥과 관련이 적음. 사업주체 또한 국립도서관으로 민간 예술분야 지원을 목적으로 한 ‘문화예술 진흥기금’ 설치 목적과는 부합되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 자체 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성건수’는 지원만하면 자연스럽게 도출된 목표로, 성과지표로 부적절함. 세부적으로 ‘조성건수’, ‘이용자 수 및 만족도’, ‘상호대차서비스 참여 도서관 수’, ‘도서관 내 대출건수’, ‘도서관 내 프로그램 운영 건수 및 참여자’ 등 도서관 서비스 다양화와 프로그램 다양화 차원에서 보다 다양한 지표를 설정해야 함.
15. 소외지역을찾아가는문화순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력과 진행력 부족으로 행사(사업) 목적이 불명확함. 특히 군부대 순회공연은 대상부대 선정이 늦어져 준비기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중앙과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목적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공연대상 선정을 미리 할 수 있도록 중앙기관의 조정과 감독이 필요함. - 순회사업, 추가순회사업 및 시범사업의 예산구성 비율의 근거가 나타나지 않음. 시범사업의 경우, 연초 당초예산에 반영·지원하여 충분한 시범기간동안 사업결과를 평가하고 사후사업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회공연 장소와 시설(공연장)이 공연에 적합하지 못하고, 접근성과 편의성이 낙후되어 있는 점, 공연시간의 제약으로 공연작품을 축약시키는 등 진행상의 문제들이 나타남. 지원 선정된 단체 책임자와 기획자는 반드시 사전에 순회대상 지역과 시설(공연장, 공간 등)을 답사하여 참여대상자의 특성과 성향을 분석하고, 시설환경을 점검하여 참여자와 시설여건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밀도 있고 짜임새 있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행사에 대한 홍보와 행사 안내 자료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홍보활동을 적극 강화하여 인지도를 높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인 위원회와 협력기관 및 사업시행주체인 예술단체의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하여 사업추진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본격적인 워크숍 또는 컨설팅 기회를 확충·활용하는 방안을 권장해야 함. ■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외된 주민(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이해시키고 관심을 유발시켜 주민들이 문화예술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동기를 제공하고 성취욕을 제고시키는 것에 유념해야 함.

사업명	개선권고사항	개선제안사항
사랑티켓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랑티켓과 문화바우처에 대한 구분의 모호성에 대한 논의 필요 : 사랑티켓과 문화바우처의 대상 및 사업의 범위, 내용 변경과정에서 두 사업의 특징 및 범위 등 차별성에 대한 논의 필요 - 취약계층이 아닌 관객개발 및 문화향유확대를 위한 사업은 복권기금이 아닌 일반 문예진흥기금으로 전환 검토 ■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경로와 매체를 통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랑티켓제도를 홍보해야 함. - 목표관객을 초과하여 관객이 동원되었다고 집행실적을 밝히고 있지만, 일시적 행사인 미판매 공연티켓 통합할인제 등을 통해 관객이 초과 달성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분석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랑티켓 지원대상 공연단체를 통한 홍보가 더 효율적일 것으로 보임. : 해당단체의 공연자에서 사랑티켓 지정단체가 자체수단을 활용한 홍보야 말로 Core Target에 대한 접촉도가 높기 때문 ■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홍보전략 실시해야 함. - 미판매 공연티켓 통합할인제 대상 및 지원범위 파악 필요
16. 문화소외계층 대상 문화나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과 취지가 문예진흥기금사업에 적합한 사업으로 앞으로 확대 보급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 지원금 확보만큼 중요한 것이 사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 확대이며, 이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사회적 관심을 유발할 필요가 있음. ■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문화서비스로 지역에서 홍보되고 인식되기 위해 관리자 중심의 운영에서 수혜자 중심운영으로 운영 중심의 이동 필수적임. -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문화예술단체 프로그램 질 관리는 물론 사업 참여가 영리와의 기회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혜자에게 1인당 5만원으로 지원금이 책정되었으나 이에 대한 융통성 있는 운영방안이 필요함. 액수는 물론 장르 및 참여 방법의 확대로 문화 향유의 유형, 방법의 자율성과 선택권이 보장 되어야함. - 사업에 참여하는 문화예술단체의 사회 참여에 대한 의식을 고조시키고, 참여 단체의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소외계층의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 이념과 적용방안에 대한 재해석과 새로운 접근방안에 대한 모색 필요 ■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업 방향과 추진체계가 구축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사례분석과 연구 필요 ■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와 지지 검토 방법에 대한 새로운 방법과 이를 통한 사업 운영 발전을 위한 쟁점 도출 및 환류 방안 구축 필요 - 문화바우처 운영체계 및 홍보체계 분석
문학나눔, 전통나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 접근성 제고 차원에서 작품 보급과 점점 확산을 위한 노력은 인정되나 단순보급 및 확산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수혜자들이 보다 심층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향후 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한 참여를 유도할 필요 있음. - 단순하고 일회적인 공연형태로부터 진일보한 형태로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 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급 및 확산 단계에서 참여자들의 내용적 심화, 발전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 요망 -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혜자들을 위한 기획이 이루어져야 함. - 고객수요, 환경분석 및 객관적인 모니터링 체계 등에 관한 추가적인 노력 요망됨.

사업명	개선권고사항	개선제안사항
17. 지역문예회관 특이점 공연 프로그램 제공 지역문예회관 특이점 공연 프로그램 제공 지역문예회관 특이점 공연 프로그램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후된 지방문예회관이 지방문화사업의 거점기관으로 자생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문화적 양극화를 해소해야함. ■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의 불안정성으로 사업 효과성이 저하되므로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시급함. ■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문예회관 활성화를 위해 일률적 지원 보다는 각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우수공연프로그램의 장르 및 인기에 따른 편중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 필요 - 타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 활성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여건과 지방문예회관의 운영여건의 차이를 인정하여 각각의 문예회관의 활성화를 위한 차별적 운영전략이 요구됨. - 사업의 목적과 효과성을 정책입안자와 국민들에게 충분히 납득시켜 보다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 마련
지역문예회관 특이점 공연 프로그램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위주가 아니라 직접 참여하여 완성하는 형태의 참여형 전시 확대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가 일방적으로 보여 지는 방식 보다는 관객 참여형 전시들이 최근 들어 많이 행해지고 있어 미술에 대한 소외계층들의 미술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 시킬 뿐만 아니라 지속시키고 있음. 따라서 본 사업의 방향도 앞으로는 각 사립 미술관 · 박물관의 이미지를 알리기 위한 전시의 형태 보다는 관객들과 함께 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이나 참여형 전시와 체험 교육 프로그램의 병행을 실시해야함.
실버문화학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버문화학교 및 문화원의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함. ■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진의 작은 교체는 지양되어야 함. ■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 활성화 필요 -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대상자의 욕구에 기초하여 보다 지역에 밀착된 창의적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 조직들 간의 네트워크의 활성화가 지방문화원들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요소임.
18. 문화예술서적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처와 수주처인 출판사 간 관계의 모호성에 대한 개선 필요 ■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웹진의 경우 최근 많은 후발 주자들과의 중복성을 피하는 기획의 변화가 요구됨. - ‘문화예술’의 경우, 계간화된 2007년과 2008년의 사업 내용과 형태가 비슷하고 큰 변화가 없었음. 2007년부터 타 기관에서 발행한 기관지와 유사성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에 이에 대한 시정 및 모색이 전무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단행본 발행의 경우, 시행초기인 신규사업임을 감안해 진행 사안과 결과물 보다는 과정을 우선시 평가해야 함. - 영문화 되는 계간지 발행의 경우, 발간 뿐 아니라 배포 및 보급에도 적극적인 고민이 따라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역할에 걸맞은 출판사업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대중성 보다는 공공성이 우선시 되어야 함. 더불어 예술 진흥과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보다 전문성을 담보하는 출판물 중심의 발간이 이루어져야 함. ■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웹진 구조 및 내용 등 분석 - 필진 구성 시 대학교수 중심에서 벗어나 젊은 필진들을 적극 수용하여야 하며, 단순한 교재 편찬이나 교수 재임용, 혹은 명망가들의 단조로운 업적용 출판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각고의 주의와 노력이 요구됨. ■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행본의 경우 상업성보다 공공성을 우선시해 양질의 도서 발간에 주력함. 사업에 대한 공모는 적합한 대안으로 여겨지며, 출판관련 사업처나 관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기획을 적극 수용함. 선정 및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며, 순수예술 우선, 전문성 제고 등과 같은 철저한 기획과 원칙을 우선적으로 설정해야 함.

제2절 세부사업 평가 답변 근거 및 자료

1. 전국연극제 및 무용제 지원

1)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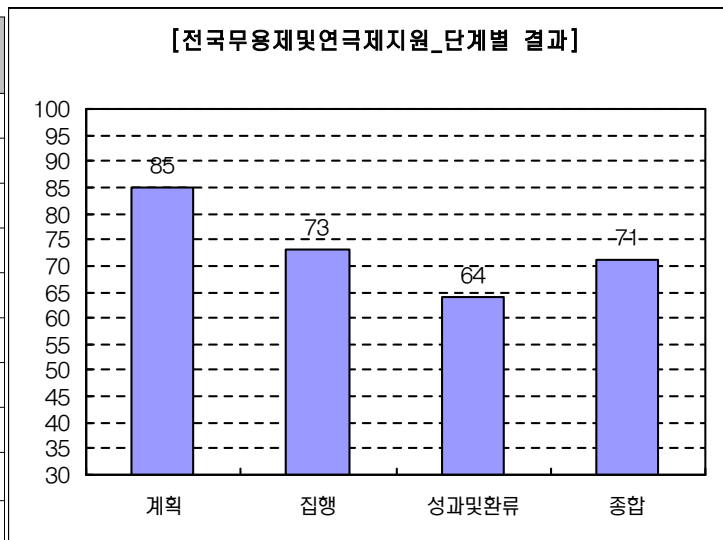
사업명	사업목적
전국연극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연극인의 창작의욕 고취 ○ 지역 연극 활동의 활성화 ○ 지역 연극의 균형발전 도모
전국무용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무용인의 창작의욕 고취 ○ 지역 무용 활동의 활성화 ○ 지역 무용의 균형발전 도모

2) 사업 내용

사업내용	전국연극제	전국무용제
사업기간 및 장소	2008년 5.23-6.10/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일원 - 총 행사기간 : 2008.5.1-6.11(42일간)	2008년 9.3-9.12/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일원
사업 규모	506,000,000원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한국연극협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한국무용협회
주관	개최 시도, 한국연극협회 인천광역시지회	개최시도, 한국무용협회 지회(무용협회 전남지회, 목포)
참가단체	- 경연참가 : 15개 시.도 지역예선대회를 거쳐 선 발된 극단 (해당 시도 거주자) - 비경연참가 : 해외에서 활동 중인 동포극단 등	- 경연참가 :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 지역예선 대회를 거쳐 선발된 무용단(해당 시.도 거주자) - 비경연참가 : 서울대표 무용단, 해외무용단 등

3) 평가결과

구분	평가지표(배점)	취득 점수	환산
계획 (20)	지원목적 적합성(10)	9.0	90.0
	사업구성 적절성(10)	8.0	80.0
집행 (30)	추진방식 효율성(10)	8.0	80.0
	계획대비 집행실적(10)	9.0	90.0
	사업및예산효율성제고노력(5)	3.0	60.0
	재정운영 적절성(5)	2.0	40.0
성과 및 환류 (50)	성과지표 적절성(10)	5.0	50.0
	성과목표 달성도(30)	20.0	66.7
	자체평가 및 환류(10)	7.0	70.0
합계(100)		71.0	



4) 평가근거 및 의견

단계	내 용	평가점수
사업 계획	<p>■ 전국 연극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은 열악한 수준에 있는 지방연극 활동을 지원하여 지방연극인의 창작의욕, 지방연극 활동의 활성화, 나아가서 지역연극의 균형발전도모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 관객참여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제기되고 있으며 새로운 대안과 지원계획이 필요함. - 지역순회개최 사업으로서 지역별 예선을 거쳐 선발된 시도 대표단체가 본선에서 경연하는 형식으로 지역연극 활성화를 높일 수 있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으며 주관처를 개최시도, 한국연극협회 인천 광역시지회로 이관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 - 예선 및 본선대회에 참가하는 단체의 참가 경비지원금에 대한 규모는 실효성 있게 고려되어야 함. - 해외우수단체 초청공연 프로그램은 전국연극제의 질적 제고 및 글로벌화를 위해 바람직함. <p>■ 전국 무용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인 목적과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기관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은 필수이며 각 지역의 고른 예술 함양을 위해서 본 사업 시행의 타당성은 분명함. 또한 지원 규모와 성격 역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지며 지방 무용 예술과 창작 발전에 이바지하는 바가 큼. 본 행사를 통해 지방과 수도권과의 문화 격차가 일정 정도 해소에 일조함. - 문화예술위원회와 해당 지역 시와 도에서 지출된 예산편성 역시 매칭 펀드로 유도하여 예산을 확보함. - 예선 현황 파악이 보고되지 않아 정확한 참여 대상 범위 및 규모 측정에 어려움이 있음. - 수상작 선정 및 심사에 있어서도 심사 근거와 평가 지표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되어야만 수상작의 예술성 높은 작품을 유도함은 물론, 심사의 공정성과 권위를 스스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85.0/100
사업 집행	<p>■ 전국 연극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세계도시엑스포 및 2014년 아시안게임과 연계한 연극예술의 활성화, 문화도시 인천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관광자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장려할 만 하나 구체성과 지속성이 마련되지 않음. - 사업의 계획대비 집행결과가 대부분 일치하지만 계획에 포함된 인천 시티투어와 연극인존 및 사랑방 운영은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즐기는 내용이 아닌, 실효성도 가지도 없는 단일한 계획임. - 예산편성도 계획대비 추진실적 내용 일부가 상당히 차이가 나며 변경된 근거 및 타당성 여부를 제시하지 않음. - 예산의 효율성제고 및 비용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나 노력이 없음. - 경연참가팀의 공연수익을 참가단체 자체수익으로 계정하도록 되었다 하더라도 작품당 관객수(무료, 유료 구분), 총수익금 등 성과통계는 제시되어야 하며, 이는 행사성과를 평가하는 핵심자료임. <p>■ 전국 무용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객과 지역 간 소통에 대해 노력한 흔적이 엿보이나 새로운 시도의 초기 단계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이 다소 발견됨. - 사업 진행의 효율성을 위한 역량 축적, 이를 위한 효율적 컨설팅 및 관리를 통한 해당 지역 무용협회 지부가 운영하는 집행부의 전문성 확보가 시급에 보임. - 티켓 판매에 대한 언급이 전무한데, 유·무료의 여부를 밝힐 필요가 있으며 설혹 전좌석이 무료일 경우에도 그 근거를 타당성 있게 밝혀야 함. - 경연 사업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시민 참여 유도 프로그램 편성 필요 - 계획서대로 100%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세부사업 평가서 및 심층평가서가 전무한 가운데, 사업 정산서를 보면 출연료가 전무한 상태로 공연되어졌다고 판단되는 단체들이 들어남. - 인건비를 예측할 수 있는 행사 관련 조직 구성표나 인력 관련 자료 역시 전무하여 자원봉사자의 활용도나 인건비 효율성 등을 따지기 어려움. 또한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프레스 자료가 전무함. - 사업별 예산 구성 및 내역은 비교적 적절하나 수입이 전무하다는 예산 보고서를 제출하였음. -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 예측 평가에 다소 부정적임. - 시와 도가 지원한 협력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고 있으며 사업 실적이 소상히 밝혀지지 않음. 	73.3/100
사업 성과	<p>■ 전국 연극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시도에서 개최된 예선과 본선에 진출한 15개 단체의 경연, 해외우수단체초청공연, 해외동포초청 공연, 아동극페스티벌, 부대행사 등 양적으로는 풍성한 편이나 질적으로는 저조함. - 관객부재에 대한 문제는 사업의 계획단계, 추진단계, 성과단계를 연계하여 검토해야 할 과제로 판단됨. - 본선 진출 단체의 경우 1일 2회의 공연 횟수는 연극공연의 특성상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음.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참가시도에서 해당시민을 상대로 일정기간 공연하고 주관시도는 폐회식, 	64.0/100

	<p>개막공연, 해외초청공연, 특별기획 공연, 부대행사를 하는 이원행사를 고려할만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 공연 마다 관객동원이 저조하여 축제분위기를 제대로 살려내지 못함. - 특히 단체관람에서 학생동원에만 치중하는 단일한 관객유치는 시정되어야 함. - 해외단체 초청공연은 확대추진이 바람직함. 그러나 지역연극의 활성화와 지역민의 정서에 부합되는 프로그램 선정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p>■ 전국 무용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타당성 및 목적에는 적합한 사업이지만 전문적인 운영 및 세부 성과지표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함. - 집행부가 한시적이라는 한계 때문에 집행의 집중, 분명한 책임, 명확한 사후 정리 및 평가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무용 예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부족으로 인해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인 유료관객 유지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예상되었기에 어느 정도 동원 관객은 필요하다고 여겨짐. - 중앙 도시보다 열악한 환경임을 감안해 보면 순수 무용 예술 감상의 경험을 통해 문화예술 향유 및 교육적 차원의 목적에는 일정 정도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됨. - 행사 참가 단체의 예술성 고취를 단순한 경연 형식에만 의존한다는 점 때문에 경연용 작품만 양산해 내며, 이러한 기준은 해당 작품의 예술성 담보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중앙 무대 진출에 걸림돌이 됨. 	
문제점	<p>■ 전국 연극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행사 작품 35팀이 42일 동안 공연하게 되는 전국연극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관객부재임. 따라서 실효성 있는 관객확보계획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행사전반적인 패러다임의 개선과 경선 참가작품의 질적 제고가 선결과제임. - 본선 경연에 참가한 시도단체에게 1일 2회 공연이 주어진다는 총연습이나 시연회정도로 밖에 볼 수 없는 행사위주의 공연형태로써 전국연극제의 목적과 전혀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극공연의 본질과도 맞지 않으며, 시민에게 진정한 공연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원초적인 문제를 안고 있음. - 연극제 프로그램 중 전통연극공연 혹은 전통연극의 현대화와 같은 작품의 부재는 모래위에 성을 쌓는 일이나 마찬가지로. 전통연극과 더불어 생활 속의 연극을 찾아 생활 속의 연극, 연극 속의 생활이 지속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극형식을 개발해야함. - 경연참가팀의 공연수익을 참가단체 자체수익으로 계정하도록 되었다 하더라도 집행실적을 위한 통계는 되어있어야 하며, 이는 행사성과를 평가하는 핵심자료임. <p>■ 전국 무용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부(무용협회 및 해당 지부)가 정리해야하는 세부사업 평가서 및 심층 보고서 전무 - 행사 집행이 일 년 단위로 한시적으로 진행되어 노하우 등이 제대로 피드백 되지 못함. - 성과 지표, 심사 지표가 보다 명확성을 요함. - 회계 처리의 명확성, 정확성이 현격히 떨어짐. - 행사를 통한 예술성 고취 실패 및 우수작을 통한 새로운 미학적 담론 제공 미비 - 17회를 거치면서 관례화된 사안들이 다수 있고 전반적인 행사 운영이 부정적으로 고착화되어 있음. 	
개선 방안	<p>■ 전국 연극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에 대한 개선은 아무리 좋은 방안이 마련되어도 정해진 시간 내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특성이 있으므로 오랜 시간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때 비로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음. - 좋은 관객은 연극적 삶의 과정과 교육과정 속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되는 특성이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교육되어야 함. - 본선에 진출한 15개의 시도단체의 공연 및 경연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1개 단체가 1일 2회 공연을 끝내고 그날로 귀향하는 방식은 페스티벌로서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극공연의 본질적인 목적과도 반하는 일임. 하나의 대안으로 행사주관과 특별공연, 부대행사 등은 정해진 시도가 관장하되, 공연장(극장)은 참가시도에 소재한 극장을 선택하여 일정기간 공연할 수 있도록 하는 이원제 시스템이 있음. - 백화점식 페스티벌 형식을 지양하고 목적지향적인 순수한 연극축제가 되도록 개선되어야함. 다양한 형식의 연극을 선보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고 관극할 수 있도록 돕고 교육하는 공연예술프로그램이 요망됨. <p>■ 전국 무용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연 방식을 유지하되 심사 성과 지표와 근거를 명확하게 한다는 취지 하에서 무용제의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이 부분이 분명해 진다면 매년 일어나는 심사에 대한 불만족 역시 일부 해소될 것이라 사료됨. 	
종합 평가점수		71.0/100

2. 문화의 달

1) 사업목적

- 문화의 달 및 문화의 날을 맞아 기념식 및 지역순회를 통해 지역민의 문화의식 고취 및 참여 촉진

2) 사업내용

- 문화의 날 기념식, 부대행사를 통해 지역민의 문화행사 참여확대 및 지역의 우수문화 소개
- 지원예산 : 320,000,000원(총 예산 : 640,000,000원)
 - 문예진흥기금 : 320,000,000원
 - 지자체보조금(충북도,청주시) : 320,000,000원

3) 평가결과

구분	평가지표(배점)	취득 점수	환산
계획 (20)	지원목적 적합성(10)	9.0	90.0
	사업구성 적절성(10)	8.0	80.0
집행 (30)	추진방식 효율성(10)	9.0	90.0
	계획대비 집행실적(10)	9.0	90.0
	사업및예산효율성제고노력(5)	4.0	80.0
성과 및 환류 (50)	재정운영 적절성(5)	4.0	80.0
	성과지표 적절성(10)	7.0	7.0
	성과목표 달성도(30)	24.0	80.0
	자체평가 및 환류(10)	9.0	90.0
합계(100)		83.0	

[문화의달 행사지원_단계별 결과]

구분	점수
계획	85
집행	87
성과및환류	80
종합	83

4) 평가근거 및 의견

단계	내용	평가점수
사업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 문화 향유권 및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 명확하고 목적달성의 가능성이 충분함. - 문화예술의 실질적 교류의 장이 만들어짐으로써 연령간의 소통, 계층간의 소통, 지역간의 소통, 시간의 소통, 장르간의 소통이 이루어져 지역문화예술의 정체성이 확립되고 대화합의 장이 마련됨. - 문화예술활동의 저변확대를 통해 청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예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시민의 확고한 지지를 유도함. - 사업비는 총 6억4천만 원으로 문예진흥기금 50%, 충북도비와 청주시비가 각각 25%씩 투입되었으며 경상운영비, 인건비 등은 억제하였음. 도내 기업으로부터 생수, 음료 협찬 받음. - 예산규모를 감안하여 사무국이 구성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 기획과 아이디어 공모 등을 거치면서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예산절감을 꾀하였음. - 불가피한 예산변경은 사전에 예술위원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여 임의집행을 방지하였음. 	85.0/100
사업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단체인 충북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청주시가 당연직 추진위원을 배치하여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였음. - 아울러 민간자문기구로 집행위원회와 지도위원회 등을 배치하여 사업목표달성과 지역총화를 위해 노력한 점은 여타 다른 행사와 비교하여 변별될 수 있는 조직구도로 볼 수 있음. - 국제행사를 비롯한 21개의 연계행사로 구성되어 규모면에서 비교적 큰 행사 규모를 지님. - 사업의 계획대비 집행결과가 거의 일치하고 있으며, 예산의 집행률도 매우 적절하였음. - 총 행사비중 사업별 예산배분과 경상운영비, 인건비 등은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생수와 음료 등은 도내 기업으로부터 협찬 받았음. - 사무국 운영비 절감을 위하여 청주 공예비엔날레사무실 공간을 활용하였으며, 사무국 상설팀 중 기획단은 아이디어 공모와 사업확정 후에는 가동하지 않고 수시로 자문과 회의로 경상비 절감을 꾀하였음. - 불가피한 예산변경은 사전에 예술위원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여 임의집행을 방지하였음. - 예산 총액은 6억4천만 원이며, 이중 문예진흥기금 3억2천만 원, 지자체보조금3억2천만원(충북1억6천, 청주시1억6천)이 투입되어 예산계획이 물의 없이 진행됨. - 광역자치단체인 충청북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청주시가 공동지문으로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측면서 효과적이었음. - 예산의 구성은 행사비 61.5%, 사무행정 16.4%, 홍보비 15.3%, 시설비 6.4%, 예비비 0.4%로 행사비가 강조되어 있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음. - 사업별 예산내역이 적절하고 예산사용이 효율적으로 운용됨. 	87.0/100
사업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의 문화 향유권 및 생활문화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음. - 시대와 세대를 잇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 문화예술의 정체성을 발굴하고 시민대화합의 장을 마련함. - 전문 문화예술인과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열린 만남을 통해 실질적인 문화예술을 교류할 수 있는 터전 마련은 미흡함. - 2008 문화의 달에 대한 관객의 호응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져 성공적인 행사로 평가할 수 있음. - 중심행사로 개최된 ‘청주줄다리기,와 ‘충북 근현대작고예술인 특별전’은 지역고유의 색깔을 강조한 프로그램으로서 시민의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은 행사였음. - ‘문화예술동아리축제’는 문화예술발전을 선도하고 시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행사로서 내용을 보완하여 장려할만한 프로그램임. - 비전문 아마추어 예술인들의 참여가 비교적 활발히 이뤄져 주제와 결맞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며 체험행사 역시 단순한 만들기나 전시, 먹거리를 탈피해 적극적 참여의 형태로 시도한 것은 높이 평가할만 함. - 문화의 달 행사는 국가적 행사임에도 지나치게 지역민 중심으로 이루어짐. 타시도민 및 외국인들에게 까지 널리 알리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80.0/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분석, 시간분석, 내용분석, 참여자분석, 홍보 및 마케팅분석, 경제효과분석, 문화적효과분석, 종합만족도분석, 행사효과분석 등 성과보고서 및 평가보고서가 충실하고 평가체계가 잘 확립되어 있음. - 모든 지표가 모니터링체계에 의해 데이터화되어 있어 사업의 효과성제고 및 평가결과의 환류를 구체화할 수 있음. 다만 설문조사방법 및 내용의 신뢰성은 제고할 필요가 있음.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의 달 행사가 지니는 지명적인 단점은 연속성의 보장이 결여되어 성과를 축적할 마땅한 장치가 없음. - 타시도민 및 외국인의 참여율을 높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지역문화상품개발). -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함. - 삶의 양식이 곧 문화,라는 의미를 행사 속에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함. - 자원봉사자의 교육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의 달 행사는 앞서 열거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극복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위원회, 자치단체, 추진위원회, 실행사무국 모두가 무엇을, 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고민해야 함. - 2008 청주문화의 달 행사 내용 중 가장 돋보이는 행사이면서 연속성을 갖고 타 지역에서도 추진해 볼만한 프로그램으로는 지역 색깔이 강조되고, 전통문화의 가치가 내재되어있으면서, 시민의 참여도가 높고 교육적인 ‘청주줄다리기’ ‘충북근현대작고예술인특별전’ ‘충북문화예술동아리축제’를 들 수 있음. - 일제시대에 명맥이 끊겨다가 88년 만에 재현된 청주줄다리기는 수백 명의 참가자와 관람객이 한데 어우러진 대규모 행사로써 전통문화의 멋과 가치를 재인식 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 단순히 재현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청주줄다리기의 문화적 가치를 학술적으로 증명하고자 했음. 또한 익년도부터 청주시가 자체적으로 청주줄다리기를 연례행사로 만들어냈다는 것은 2008문화의 달 행사의 뚜렷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청주줄다리기와 더불어 충북지역 고유의 색깔을 강조한 프로그램으로 충북근현대작고예술인특별전을 들 수 있음. 지역출신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식과 정보전달의 역할과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가치 있는 프로그램으로 평가됨. - 지역의 문화예술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 인적자원의 발굴과 육성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충북문화예술동아리축제임. 초중고학생부터 대학생, 중장년층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계층이 참여할 수 있고, 댄스, 국악, 풍물, 밴드, 마술 등 다양한 부문이 경합을 벌인 충북문화예술동아리축제는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에 대한 지식제공과 참여욕구를 불러일으킨 프로그램으로서 장려할만한 행사임. - 청주문화의 달 행사의 경우 93.8%가 충북지역 거주민이 참여하고, 타 지역민은 6.2%에 불과하다는 것은 국가행사로서의 위상에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음. 홍보의 질과 체계를 실질적으로 확립하고, 관광상품 및 지역문화상품을 개발하여 행사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함. - 청주줄다리기가 시민의 만족도가 높고 가장 선호하는 행사였던 것은 전통의 재발견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임. 삶 속에 내재되어있는 전통문화의 가치를 인식했을 때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고, 삶에 대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음. 각 지역의 전통문화를 발굴, 계승, 발전시키는 프로그램은 물론 전통의 현대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시도도 지속적으로 기획해야 할 것임. - 지역축제 자원봉사자는 축제의 얼굴이자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는 창구임. 기본적인 소양교육이나 업무분장은 물론 가능한 문화예술에 대한 철학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자원봉사자를 선발하여 행사취지나 업무분장에 관해 충실하게 교육되어야 할 것임. 	
종합 평가점수		83.0/100

3. 지역문화협의체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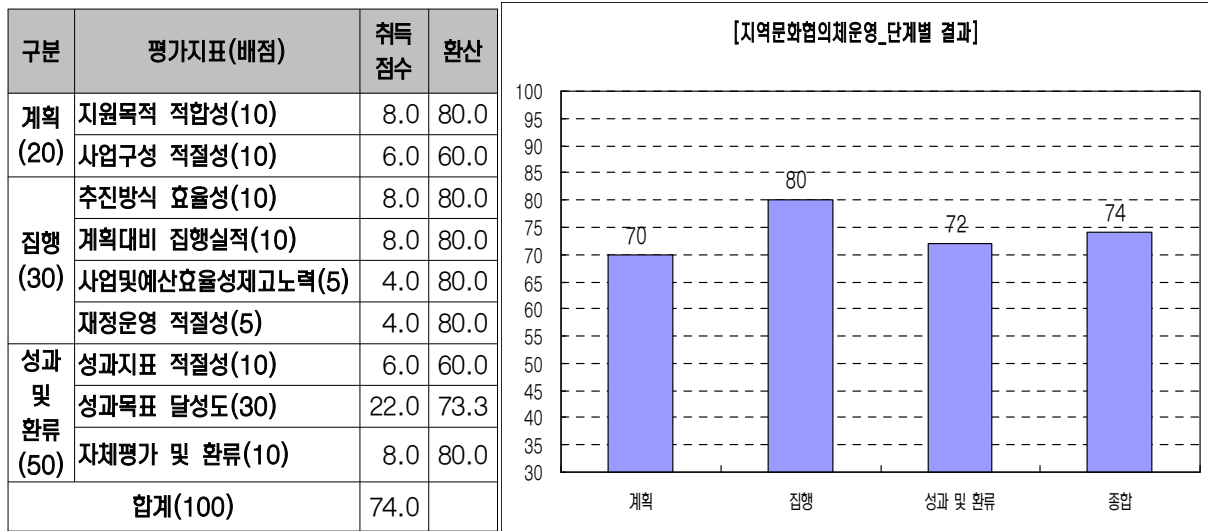
1) 사업목적

- 지역문화지원기구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문화정책, 실행에 대한 공유 및 사업개선 거점 마련

2) 사업내용

- 정기총회, 포럼, 워크숍, 실무위원회 회의 개최, 지역문화정책보고서 발간, 홈페이지 운영 등
- ※ 사무국운영 : 별도 법인발족 전까지 위원회 내부에서 운영
- 총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협의회 의장은 위원장)

3) 평가결과



4) 평가근거 및 의견

단계	내용	평가점수
사업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재단을 비롯한 지역문화기관의 역할이 확대되고, 다양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문화예술교육협력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확대될 전망이기 때문에, 지역문화협의체 운영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목적과의 적합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사업구조가 회의 중심으로 단순화되어 있음. 이것은 사업에 대한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1차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 인식 공감을 위한 차원에서 회의방식이 주류를 이루었다고 판단됨. 	70.0/100
사업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력 및 조직체계가 정립되지 않았지만,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업무개선에 일정부분 기여한 측면이 있음. - 시도별 지원금 예산조정(집중지원의 사업 취지를 반영하여 신청 대비 선정률이 70% 이상인 곳은 패널티 부여 감액, 자체예산 확보 비율이 높은 곳은 인센티브 부여 증액) - 당초계획 수준으로는 사업이 이루어졌음. 또한 무대공연 작품제작지원 사업의 경우와 같이 지원사업을 개선한 실적이 있음. - ‘문예진흥기금 지역협력형 지원사업 운영방안 연구’ 등 신규사업 개발 노력은 인정 - 사업비가 연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이에 따른 사업 다양화 및 전문화 미흡 	80.0/100
사업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관리체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음. - 지역문화기관 및 문화재단 등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가 아직은 낮지만, 지원사업에 대한 개선 및 조정 노력이 인정되며 향후 협의회 발전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판단됨. - 문화예술지원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 계획 및 중장기 실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고객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수요조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72.0/100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이 정기총회, 포럼, 워크숍, 실무위원회 회의 등으로 협의를 위한 회의에 초점을 둬으로써 사업구조가 비교적 단순하여 협력네트워크의 구성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공동사업이 취약 - 광역단위 지역문화재단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역할과 사업을 아직은 충분하게 수행하고 못하고 있다고 판단됨. - 홈페이지 운영사업의 경우에도 아직은 기존 정보를 교류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지역의 문화기관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식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음. - 앞으로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의 문화사업 협력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협의, 조정, 협업 등의 기능이 활발하게 될 전망이지만,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또한 앞으로 늘어나고 있는 광역단위 및 지역단위의 문화재단에 대해 지역문화협의체가 어떤 역할을 수행할 인지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없음. 이런 측면에서 ‘문예진흥기금 지역협력형 지원사업 운영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행한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고 보임.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역협력형 사업 확대 및 지역으로의 기능이전, 그리고 광역단위와 기초단위의 문화재단 설립 확대 등으로 지역문화협력네트워크 구축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바, 지역문화협의체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연구개발이 필요함. - 공동사업으로 광역 및 기초단위 문화재단 직원들의 공동연수사업, 인력교류사업, 해외연수사업 등을 개발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문화재단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지역문화협의체 참여를 활성화 시켜야 함. - 단순 정보교류 차원을 넘어 공동지표를 개발하여 공동정보를 산출, 관리, 서비스하고, 나아가서는 신규 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컨설팅 기능을 강화해야 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국제문화예술네트워크와 연계하여 지역문화협의체가 지역의 국제네트워크 창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단위의 국제문화예술교류 협력기반을 조성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함. - 신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추진체계를 갖추어야 함.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지역협력부서와의 업무협의 및 조정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종합 평가점수		74.0/100

4.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 및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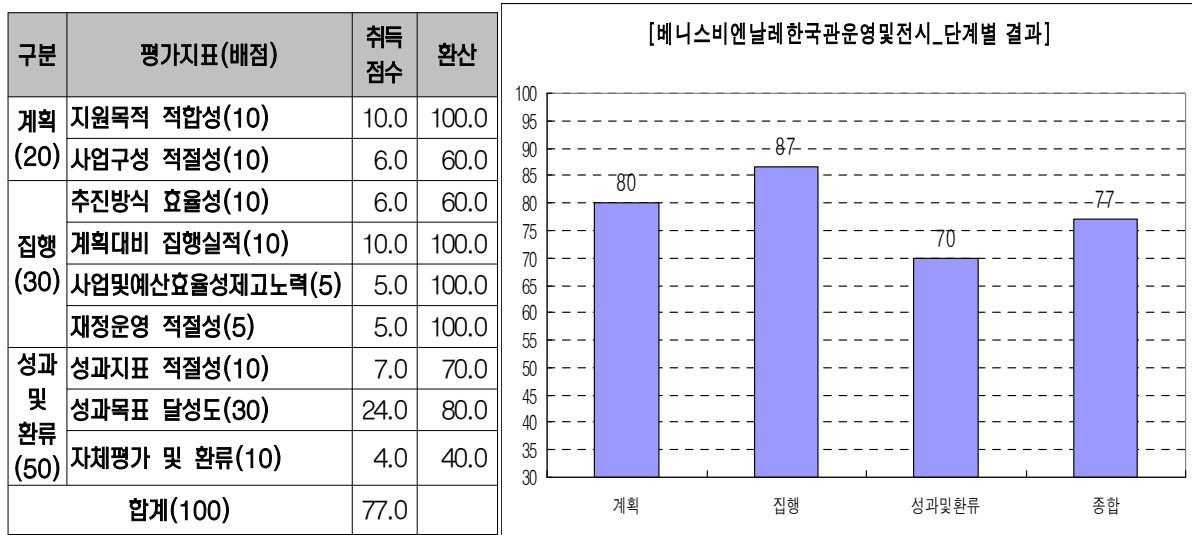
1) 사업목적

- 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을 통하여 우리 건축의 적극적인 해외 소개와 세계 건축계에서 한국 건축의 위상을 제고함.
-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을 우리 문화와 예술의 해외 소개를 위한 교두보로 최대한 활용하고 그 역할을 지속 강화함.

2) 사업내용

- 사업명 : 2008년 제 11회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건축전 전시 지원
- 사업기간 : 2008.9.14~11.23 / 단년도 계속사업

3) 평가결과



4) 평가근거 및 의견

단계	내용	평가점수
사업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니스비엔날레의 세계적 위상을 고려할 때,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원은 그 목적이 명확하고 적절함. 베니스 비엔날레는 지속적으로 세계건축의 새로운 경향을 기록해왔으며, 그중에서도 1980년의 'Present of Past'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세계화에 기여했으며, 2000년의 'less aesthetics, more ethics'는 새로운 밀레니엄의 건축의 방향을 제시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 - 베니스 비엔날레에 한국관은 우리 문화와 예술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며, 한국의 작가, 건축가들이 세계적 서클에 동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교두보임. - 특히 베니스비엔날레가 개최되는 카스텔로 공원에 한국관이 마지막 국가관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더욱 한국관의 전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세부사업의 구성 중, 초대작가에게 충분한 시간과 예산을 지원하여, 작업의 내용 및 전시물 제작 (presentation의 방법의 다양성 제고 등)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지금까지 초대된 건축가는 지원금의 부족으로 인하여 개인적 출혈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음. - 베니스비엔날레의 국제적 성격을 고려할 때, 초대작가의 대상을 국외로 확장하는 등, 당해 건축전의 성격에 따라 커미셔너의 기획의 가능성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음. 	80.0/100
사업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인력 및 조직의 다양성을 꾀할 필요가 있음. - 금회(2008년), co-commissioner로 초대된 Francisco Sanin, documentator를 담당한 배형민교수(건축이론가/서울시립대), curator를 담당한 최문규교수(건축가/연세대 교수)의 역할과 그 성과는 지대하였으나, 그의 활동을 원활히 할 충분한 활동비지원이 미약하였음. - 집행을 위한 예산의 부족은 커미셔너의 개인적 부담에 의존하였음. - 커미셔너의 사업의 효율성 제고 노력 및 성과가 탁월하였음. - 2004년 이래 한국관 건축전의 수준은 획기적으로 향상되어, 타 국가관의 수준을 넘어, 한국관의 이슈가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다고 판단됨. - 커미셔너 승효상 개인의 역량으로 외부 후원금, 기부금의 유치가 전례에 비하여 탁월하였음. 	87.0/100
사업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회의 한국관 전시는 전체주제인 "Out There, Architecture Beyond Building"에 부응하여, 'Critical Topic Paju Book City as Cultural Scape'를 주제로 설정하였고, 파주 출판도시의 도시건설에 참여한 건축가 뿐 아니라, 건축주 그룹의 위상을 제고함으로써, 건축 및 도시의 건축가, 건축주의 협동작업에 의해 실현된다는 사과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꾀하였으며, 이를 위한 commissioner, co-commissioner, curator, documentor, contributors, advisors, administrative director, administrative coordinators들의 상호 역할분담과 협업수행에서 그 노력과 성과가 탁월하였음. - 상기한 금회 한국관의 전시주제와 내용은 지금까지의 건축과 도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개념과 더불어 그에 상응한 전시내용과 presentation의 질적인 면에서 탁월하였고, 국가관 수상도 충분히 예측되었으나, 주제의 이슈화, 관람객의 모니터링, 홍보 등에서 미흡하여, 국가관상 등 주목의 대상으로 충분하게 부각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음. - 주최 측과의 원활한 소통이 부족하였고, 특히 커미셔너 승효상과 전체 커미셔너 Aaron Betsky와의 직접면담기회가 없었다는 점은 앞으로 특별히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자체 평가자의 구성원에서 '건축가'의 참여가 필수적임. 가능한 전회의 커미셔너를 평가자의 일원이 되어야 할 것임. - 관람객의 조직적, 체계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연구 및 예산의 확보가 필수적임. 	70.0/100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항목 및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co-commissioner의 초대 및 역할 부여 • 관람객 모니터링 예산 확보 • 전시 참여 작가 지원금의 확충 • 커미셔너 활동비 확충 - 외부 협찬금의 유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까지 외부 협찬금의 유지가 커미셔너 개인적 능력에만 의존하고 있음. - 홍보 및 관람객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 안일한 홍보 • 관람객 모니터링의 조직적 체계적으로 시행하지 않음. - 커미셔너 선정방법과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미셔너 선정방법의 임의성 • 커미셔너 선정 시점이 촉박하여, 충분한 기획과 준비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 - 주최측 및 전체 커미셔너와의 소통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엔날레 주최측과의 소통부족 • 전체 커미셔너와의 실질적 소통 없음. 	
<p>개선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적인 부분의 예산의 항목 및 확충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전문가 중 당해연도의 주제와 관련하여 co-commissioner로 초대하여 임무를 부여하고, 그에 상응한 경비를 예산에 지속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체계적, 조직적으로 관람객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방법연구 및 예산 확보 • 작가 전시지원금의 확충. 특히 앞으로 해외작가를 초대할 경우에 적절한 수준의 예산으로 지원할 필요성 부각 • 종전에는 커미셔너+작가로 구성되었으나, 금회의 주제와 전시내용과 관련하여, documentor, contributors 등 새로운 구성원이 초대됨과 같이 차우, 전시주제, 내용에 따라 새로운 임무를 가진 구성원이 필요함에 따라 그에 상응한 예산을 미리 예측하고, 지원되어야 함. - 커미셔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방식 : 지금까지 선정위원회에서 추천된 인물 중에서 선정하였으나, 앞으로 공모형식으로 점진적 개선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커미셔너 선정대상의 다양화(전문분야/년령대 등)를 꾀할 필요가 있음. • 선정시기 : 커미셔너의 선정은 전체 커미셔너가 결정된 후, 당해연도 초 또는 전해의 말에 선정되었음. 이는 작업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 차우, 커미셔너의 선정은 최소한 2년 전에 선정되어 충분한 작업시간이 주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자회견 회수의 확대 • 전시주제, 성과평가 등의 국내외 홍보를 위한 발표회, 토론회, 귀국전 등 개최하고, 기업의 문화재단,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단 및 유관기관, 외교관 등 관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초대하여, 베니스 비엔날레 및 건축의 문화적 위상을 충분히 홍보하며, 이를 후원금 유지의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베니스 비엔날레 주최 측과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관계수립 • 전체 커미셔너와의 소통을 위한 국가적 차원(문화부/외교부)의 지원 • 2008년 비엔날레의 국가관상을 수상한 폴란드관의 내용과 전시수준은 2004년 한국관의 ‘방의도시’ (커미셔너 정기용)의 일부에 지나지 않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 - 평가의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평가단의 구성원에 건축 또는 도시 전문가 및 전(前) 커미셔너의 참여가 필수적임. • 관람객 모니터링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여, 차기의 전시방향 등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관의 위치가 주동선에서 떨어져 있어 인지도가 낮음.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낙후된 한국관의 시설보수, infra의 확충 	
<p>종합 평가점수</p>	<p>77.0/100</p>	

5. 해외민간문화단체교류 및 해외정보서비스

1) 사업목적

- 세계 주요 문화기관과의 인사교류 및 문화예술교류 협력사업을 통하여 문화예술 해외교류 거점을 확보
- 해외 문화예술정보를 수집하여 문화예술 기관과 예술인들에게 제공
- 해외의 영향력 있는 예술인(예술행정인)을 초빙, 국내 문화예술계와의 교류(강연, 워크숍, 포럼 등) 기획 제공

2) 사업내용

- ① IFACCA 아시아지역회의 개최 → 아시아지역 “예술위원회”간 협력네트워크 기반 구축
- ② 몽골예술위원회와의 협력사업 추진 → 해외 기관간 새로운 협력사업 모델 제시
- ③ 기관간 MOU체결을 통한 국제교류 협력사업 모델 제시 →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 문예진흥기금과 외부자원을 활용한 사업시너지 활용, 해외거점 확대
- ④ “BAM 대표 초청” 사업 추진 → 해외 예술인 초청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

3) 평가결과

구분	평가지표(배점)	취득 점수	환산
계획 (20)	지원목적 적합성(10)	10.0	100.0
	사업구성 적절성(10)	8.0	80.0
집행 (30)	추진방식 효율성(10)	8.0	80.0
	계획대비 집행실적(10)	8.0	80.0
	사업및예산효율성제고노력(5)	4.0	80.0
	재정운영 적절성(5)	4.0	80.0
성과 및 환류 (50)	성과지표 적절성(10)	6.0	60.0
	성과목표 달성도(30)	22.0	73.3
	자체평가 및 환류(10)	6.0	60.0
합계(100)		76.0	

[해외민간문화단체교류및해외정보서비스_단계별 결과]

단계	점수
계획	90
집행	80
성과 및 환류	68
총합	76

4) 평가근거 및 의견

단계	내용	평가점수
사업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문화예술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반을 조성하고, 이에 대한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은 앞으로도 그 중요도가 커질 것으로 전망됨. - 국제문화예술교육사업의 특수성을 사업관리체계에 어떻게 고려하였는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가 필요함. 개선했다고 자체평가 보고서에 나타나 있으나, 구체적으로 개선한 사항이 무엇이고, 그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사항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경우, 기존의 단순 지원사업과는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걸 맞는 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함. 아웃바운드 레지던스 사업의 경우 우수한 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해외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또한, 단기 지원사업 외에도 장기 지원사업을 개발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90.0/100
사업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FACCA와의 연계사업은 의미가 있으며, 향후에 어떻게 관계를 형성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전략개발이 필요 	80.0/100
사업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적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 - 직접추진사업의 경우, 해외교류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체계화된 원칙과 기준 및 절차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음. - 지원대상만족도가 다소 감소하였으며, 지원프로그램 참여관람객수 및 수혜자수 또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특성화된 지원 및 성과관리메뉴얼을 작성할 필요가 있음. 장르별, 기간별, 권역별 특성을 최대한 고려할 필요가 있음. 	68.0/100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문화단체 교류사업의 경우, 국내외 협력기관 선정에 있어서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종합계획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음. - 해외통신원 제도인 경우, 구체적으로 운영 및 활용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며, 해외 나라 선정에 있어서도 원칙과 기준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다. 해외정보에 대한 수요조사 또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민간부문의 국제교류 지원사업인 경우, 성과지표 및 성과관리체계가 명확하지 않음.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문화단체 교류사업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존의 해외문화단체 교류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해외 문화단체의 특성 분석 및 교류협력 전략을 개발함. - 아웃바운드 레지던스 사업의 경우 우수한 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해외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또한 단기 지원사업 외에도 장기 지원사업을 개발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해외통신원제도인 경우에는 고객수요조사 및 정보 활용도를 조사하여 해외나라 및 정보유형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인터넷검색으로 정보접근성이 취약한 나라 및 현장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향후 국제 문화예술교육 지역과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통신원제도를 운영할 필요 있음. 또한 해외 문화단체 및 기관과의 MOU를 통해 상호 정보를 교류하는 체계 또한 구축될 필요가 있음. - 민간부문의 국제교류사업 지원에 대한 성과관리모델을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 필요 	
종합 평가점수		76.0/100

6. 예술창조 및 표현활동지원

1) 사업목적

- 창의성과 예술성 높은 창작·발표 활동의 지원을 통해 문학 분야 창조 역량을 강화함.

2) 사업내용

- 지원신청 자격 : 문학 작품을 발간할 계획이 있는 개인 및 문학 기관지 발간 단체
- 지원대상사업
 - 개인 창작 : 시, 시조, 소설, 희곡, 평론, 동시, 동화, 수필 등 개인의 문학작품 창작지원
 - 2008년도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3년 이내(2010년도 말까지)에 작품(집) 발간을 완료해야 하며 그 중 단 한 편이라도 이미 발간된 작품집에 수록된 적이 없어야 함.
 - 주요 문학단체 기관지
- 지원규모
 - 개인 창작 : 건당 1,200만원 정액 지원
 - 주요 문학단체 기관지 발간 : 600만원~3,600만원
- 지원심의기준 : 신청 작품(무기명 원고)의 예술적(문학적) 수월성

3) 평가결과 : 6-1. 예술창작 및 표현활동지원(문학, 시각)

구분	평가지표(배점)	취득 점수	환산
계획 (20)	지원목적 적합성(10)	8.0	80.0
	사업구성 적절성(10)	8.0	80.0
집행 (30)	추진방식 효율성(10)	7.0	70.0
	계획대비 집행실적(10)	7.0	70.0
	사업및예산효율성제고노력(5)	4.0	80.0
	재정운영 적절성(5)	4.0	80.0
성과 및 환류 (50)	성과지표 적절성(10)	7.0	70.0
	성과목표 달성도(30)	23.0	76.7
	자체평가 및 환류(10)	9.0	90.0
합계(100)		77.0	

[예술창조및표현활동지원(문학,시각예술)_단계별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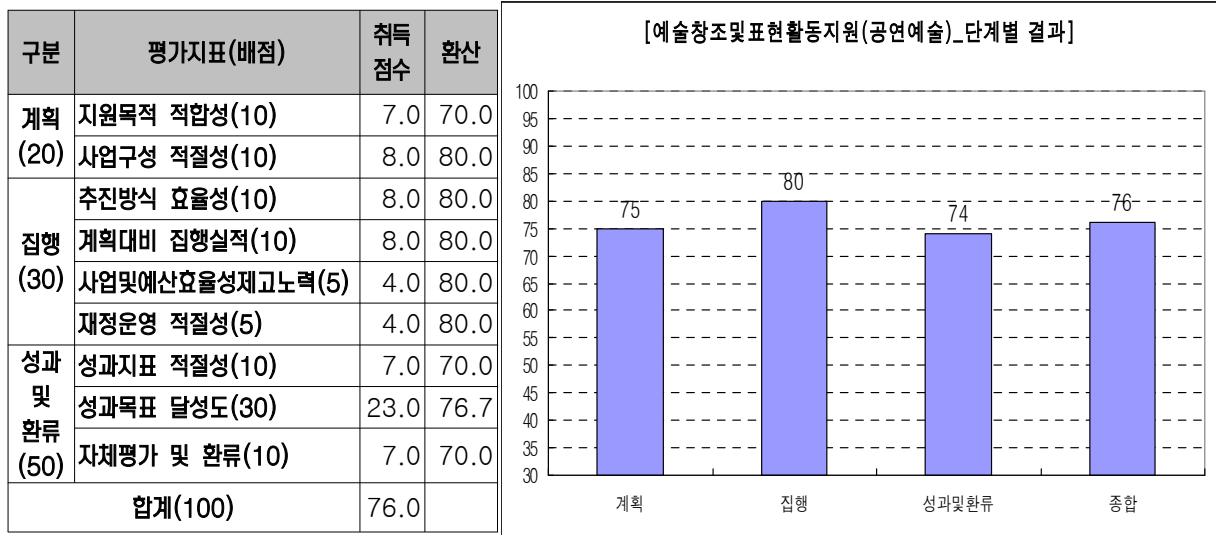
구분	취득 점수	환산
계획	80.0	80.0
집행	73.0	76.7
성과및환류	78.0	76.7
종합	77.0	76.7

4) 평가근거 및 의견

단계	내용	평가점수
사업 계획	<p>■ 시각예술 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성과 예술성이 높은 다양한 창작, 발표 활동과 독창적인 기획행사 및 전국 단위의 대규모 시각예술분야 행사를 지원함으로써 예술창조 역량을 강화” 하려는 목적의식이 비교적 명확함. - ‘사업내용의 창의성 및 참신성, 프로그램 참가자의 예술적 기량, 신청인(단체)의 사업수행역량’ 이라는 3가지 항목에 대한 심의와 객관적 평가를 통해 결정된 지원체계는 기금 지원 목적과 부합함. - 상대적으로 재정상태가 불안정한 젊은 작가들을 중심으로 창작의 기회를 제공해주었으며, 지원의 결과가 창작활동의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됨. - 10년 이상 지속적인 활동을 해 온 작가 및 1회 이상 개인전 개최 경력이 있는 작가의 전시는 시각예술의 특성상 대상자 설정의 적절성 확보. 단체전시도 그룹 전시와 전문기획자의 기획전으로 대별 구성도 적절함. <p>■ 문학 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에 창의성과 예술성이 높은 창작, 발표활동의 지원을 통해 문학 분야 창조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 했는데, 지금까지 소액 다건의 개인적 지원의 비중이 많은 상황에서 소기의 성과를 얻기에는 미흡함. - 희곡, 수필을 제외하여 실질적인 문학 중심 장르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게 한 것은 적합함. 전통연희 대본과 희곡은 문학과 공연예술분야에서 담당하여 적극 지원이 있어야 함. - 장르의 특성상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 노동이 드는 소설 장르의 지원액을 대폭 늘여야 함. - 참여 대상자들에게 조금씩 돈을 나누어주는 소액다건의 미온적인 지원방식은 전혀 목적에 도움이 되지 않음. - 2008년도 지원대상사업은 총 150건으로서, 모두 지원을 통한 창조역량과 활동역량의 강화를 위한 세부사업으로서 적절한 구성이라고 판단됨. 	80.0/100
사업 집행	<p>■ 시각예술 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가 개인 및 단체의 직접 공모 신청에 따른 전문가들의 심의와 선정을 통해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는 지원조건 및 세부사업의 범위와 사업추진 방식이 비교적 적절함. - 전시 장소 운영자와의 협력 또는 대관이 무난히 이루어진 편이며 사업 추진 과정도 무난함. - 계획대비 집행결과의 일치도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 지원결정 건수 149건 자료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평가자료 불충분으로 확인할 수 없음. - 실제 심의, 선정 결과에서 애초의 기금의 지원 방침에 어긋나는 지점이 드러나 사업 수혜 대상자의 범위를 벗어나기도 함. - 기획전시는 ‘전문 기획자가 선명한 기획의도로 기획한 다수 작가 참여의 전시’ 를 근거로 하고 있지만 기성의 유명작가를 내세워 그들의 작품성에 기대고 있는 미술관의 전시기획이나 대중적 참여를 독려하는 대중 눈높이의 전시 유형을 선별한 것은 지원사업이라는 취지와는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음. - 상업적 이윤이 기본이 되고 있는 단체인 갤러리 전시기획을 지원한 것은 지원사업 목적과는 크게 벗어남. -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예술 활동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를 지원한다는 취지를 살렸으나 시각예술 149명(단체포함)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갔는지는 의문임. - 신청 및 지원확정 세부사업 동일하게 재정자립도에서 심각한 불균형을 보임, 개인전의 경우는 거의 없음. <p>■ 문학 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은 심의기준을 “작품의 예술성·수월성 ‘으로 한정하고, 무기명으로 원고를 제출받아 심의함으로써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음. - 주요 문학단체 기관지 및 문학 장르별 대표성을 갖고 있는 문예지를 지원함으로써, 각 문학단체 및 문학 장르의 구심적 역할을 도모하도록 함. - 사업 추진 방식의 적절성과 효율성은 동 사업에 대한 문단에서의 평가와 이를 반영하는 연도별 지원 신청 건수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음. - 개인창작집 지원과 기관지 발간은 각각 96%와 100%의 집행률을 보임. - 「문학창작집 발간지원」의 지원조건(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3년 이내 작품집 발간)은 우리나라 문학출판시장의 규모와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한 것으로서 동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기에 적합함. 	73.3/100
사업 성과	<p>■ 시각예술 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의 설정은 ‘지원프로그램 참여 관객수’, ‘예술지원수혜예술가수’, ‘예술지원단체활동수준’ 등으로 설정되어 있어 사업의 성과목표인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 및 전문예술단체 육성’ 을 이루기 위해서 비교적 적절하나 지원프로그램 참여관객수라는 정량적 평가는 시각예술의 관람객 산 	78.0/100

	<p>출 근거 상 명확하게 확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지원사업의 예술성과 작품성을 평가하는 지표로서도 피상적임. 시각 예술 부분에서는 이 성과지표는 ‘관객참여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마케팅 노력’과 같은 지표로 수정되는 것이 바람직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 창작 및 표현활동가의 창조역량 강화 및 전문예술 단체 육성이라는 성과목표의 달성도는 07년 결과지의 지원건수대비 선정건수 증감을 적용해서 산출한 결과 예년 대비 증가함. - 전시회에서 발표자 중심으로 노력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관람자를 위한 편의나 관람자들을 유인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은 전반적으로 부족한 편임. - 성과보고서에 나타난 자체 평가 결과는 형식적이지만, 그나마 평가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p>■ 문학 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8년도 성과목표 달성률은 117%로, 성과목표치는 달성된 것으로 보임. - 보고서 충실한 것은 좋으나, 지원금액에 비해 형식적인 증거물이 지나치게 많은 것은 문제라고 생각됨. - 선정되는 지원대상 건수가 우리나라 문학출판시장의 규모와 여건에 비추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실제로 발간 기한 이내(현재는 3년까지 허용) 출판 완료 비율의 저조함이 이를 반증하고 있음. - 현재 주요 문예지에 발표되고 있는 장편소설은 1년 간 총 5편 내외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문학계 및 문학지원사업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장편소설에 대한 지원을 특화하여 현실화함으로써 장편 서사 문학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문제점	<p>■ 시각예술 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혜작가나 단체가 전시장을 확보하여 단순하게 전시를 개최하는 소극적 형태의 활동이 대부분이고 관람객과의 적극적 소통을 시도하지는 못함. - 지역별 할당 불공평하며, 소액 다건과 선택 집중의 불균형이 나타남. - 상업적 주체의 지원금 수혜와 유명 작가 모으기를 통한 기획의도 수립에 대한 부정적 견해임. <p>- 재정 자립도 부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 지속 수혜자 등장에 대한 기금 지원 형평성에 대한 문제 <p>■ 문학 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창작 부문에서 시, 시조, 소설, 희곡, 평론, 동시, 동화, 수필을 건당 1200만원으로 정액 지원하는 것은 다시 검토해 볼 필요 있음. - 기획, 평가 등의 절차가 너무 번거로움. 	
개선 방안	<p>■ 시각예술 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주체가 관람객과의 보다 활발한 소통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그 방향으로 노력한 성과가 지금보다 더 성과평가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사업의 질을 높이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보다 지원 규모를 늘리고 우수 사업에 선별적으로 집중 지원하는 방식을 좀 더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세부사업 모니터링과 전문가 현장 평가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개인전은 소액 다건 위주, 단체전 및 기획전은 선택 집중 지원이 요구됨. - 상업성이 내재되어 있는 갤러리 운영자나 대표의 자체 기획전에 지원하는 일은 배제되어야 함. - 유명 작가 위주의 구성에 의지한 채 독창적인 전시기획 의도를 보이지 않는 전시는 배제되어야 함. - 재정 자립도에 대한 근거자료를 일정부분 제출케 해서 기금을 제외한 자부담 내역의 허위 정산 보고서가 제출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방침을 마련해야 함. - 중복 수혜를 막기위해 2년 이상 지속 수혜를 받았던 작가들에게는 익년의 기금사업에서 휴식년제를 도입하여 다른 작가들에게 형평성 있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p>■ 문학 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택과 집중의 지원이 필요함. 창작인턴제도를 만들어 가능성 있는 예술후속세대 지원사업을 할 필요가 있음. - 문학특성화 사업으로 하나의 아이টে를 선정하여 문학분야의 창조역량을 강화해야 함. 개인에게 혜택이 돌아가서 창작 역량을 강화하기보다 창작역량 강화의 기반 조성의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시스템을 합리화하여 공정하면서도 간편한 검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함. - 개인 창작 부문의 액수 조정은 장편소설 분야의 경우 지원을 특화하여 현실화함으로써 장편 서사 문학 분야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장편소설 분야는 다른 분야와 동일하게 1200만원의 정액제를 유지하기보다는, 대폭 증액하는 등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함. - 시, 시조, 소설, 희곡, 동시, 동화와 평론, 수필을 동일한 수준에 놓고 정액 지원을 하기보다는, 평론과 수필은 다른 분야보다 지원 금액을 낮추거나 지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종합 평가점수	77.0/100	

5) 평가결과 : 6-2. 예술창작 및 표현활동지원(공연예술 및 기타)



6) 평가근거 및 의견

단계	내용	평가점수
사업 계획	<p>■ 연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지표와 기준은 잘 제시돼 있으나, 페스티벌은 사업목적과 성과목표간 인과관계가 다소 부족함. - 페스티벌 지원은 ‘창조 및 표현 활동’ 이라기보다는 ‘유통 활동’ 에 가까우나, 페스티벌의 가치 또한 중요한 만큼 다른 차원의 독립적 지원으로의 고려가 필요함. - 사업수혜 대상자의 범위, 규모 등에서 애초부터 ‘나눠 먹기식’ 관행을 부추길 가능성이 큼. <p>■ 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예진흥기금지원 사업은 예술계의 자체 의사결정에 관한 역할을 보여주며 새로운 창작 동력을 점검하는 시금석임. - 소액다건주의에서 ‘선택과 집중’ 이란 방법론을 택하여 “될성부른 나무” 를 지원한다는 방침은 그 자체 매우 좋으며 제도적 뒷받침 역시 그 방향으로 이동한 것이 고무적임. - 사업수혜 또는 대상자가 늘 무용계의 인맥과 관련된 적자생존이라는 것은 반성해야 할 대목임. <p>■ 음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지원사업 선정방식의 경우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목적과의 적절성 및 기여도에 충실한 사업 보다는 과장되었거나 행사 자체에 목적을 둔 사업이 선정될 우려가 있음. - 기금지원의 취지를 살리고 효율성을 제고를 위하여 선택과 집중의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지원 및 평가 시스템 구축과 그 지속적 시행이 요구됨. <p>■ 전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으며, 성과지표도 성과목표와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반영함. - 시행에 있어 특히 심사위원의 선정, 단체 선정 결과 등 면에서 편중된 점이 일부 있다고 봄. - 세부사업의 범위나 지원예산 사용, 사업수혜 범위규모는 적절하다고 봄. 	75.0/100
사업 집행	<p>■ 연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지원컨설팅센터협력단’ 의 조직 구성 필요성뿐만 아니라 인력의 전문성에 관해 설득 가능한 자료가 부족함. - 예산절감 및 혁신의 의지 부족하기 때문에, 개선을 유도하는 예산지원방식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함. - 계획에 따라 전반적인 재정운영은 양호한 편이나, 외부재원 확보 등 수익성 제고 노력은 전무함. <p>■ 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환보직 제도 때문에 전문성과 지속성의 결여가 파악됨. - 형식적 의미의 효율성은 많이 높아졌고, 사업추진 과정 자체의 하자나 문제점은 거의 발견할 수 없었음. - 기금 규모에 비해 지원사업 무용 부문 전반의 과정은 비교적 잡음 없이 진행됨. 다만 예술에서 효 	80.0/100

	<p>을 따지기는 어렵지만, 사업 목표 대비 결과를 본다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보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처리에서 하자가 발생하거나 전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외부 스폰서를 받는대거나 대중적 호소를 한다거나 하는 노력은 미흡함. <p>■ 음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기관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인력의 순환으로 인한 연계성 및 지속성이 결여되어 사업의 목적을 실현하고 효율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움. - 시행된 사업의 결과가 계획과 다른 경우가 자주 발생되지만 그러한 경우에 대한 예방, 혹은 방지책이 미흡함. - 선택과 집중이 사업 및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선행되어야 함. - 사업을 기금에만 의존되지 않고 외부의 재원확보와 수익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p>■ 전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인력 및 조직, 다른 사업 또는 연계 협력, 환경 변화 및 사업성격 변화에 따른 대처방안 등 면에서 우수함. - 계획대비 사업실적 면에서 일부 불일치함. - 사업 및 예산의 집행률 불일치하며,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근거 및 타당성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함. - 사업 추진의 효율성추구, 예산 및 비용절감을 위한 조치나 연례적 사업의 경우 혁신의지 및 노력이 명확하게 발견되지 않음. - 사업을 기금 외에 외부의 재원확보와 수익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사업 성과	<p>■ 연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가 계수화한 기계적인 방식으로 설정돼 예술의 본질적인 측면의 평가는 미흡함. - ‘에세이’ (정성평가) 등을 보강함으로써 예술성의 측면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행 고객 만족도 조사가 과연 작품의 질적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임. - 평가의 객관성 유지 위해 마련한 복잡한 평가체계가 오히려 객관성을 훼손을 가져오는지 따져볼 필요 있음. <p>■ 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작력 제고를 객관적 수치로 표시하고자 하는 노력은 인정하나, 질적 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평가 틀’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고객 만족도 조사는 작품성의 질적 저하를 인위적으로 부양된 관객수로 조작하는 장치가 된 지 오래됨. 즉각 재검토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창작성, 작품성을 꼼꼼히 따져 묻는 방식을 제안해야 함. - 성과보고서가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기계적임. - 평가결과의 공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음 심의에 반영하라는 요구가 의미를 희석시키긴 하나, 자금과 같이 문제를 개선하거나 작품성의 필터링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더욱 더 문제임. <p>■ 음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량평가만으로는 사업의 질적 평가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정성평가를 병행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함. - 참여자수 뿐 아니라 참여자의 질적 구성비, 만족도 등의 객관적 측정 척도개발이 요구되며, 설정된 성과목표와 달성도 간 허용 격차의 평가지표 개발이 요구됨. - 실사단의 현장평가 내용에 비하여 서면평가의 평가등급점수가 상향조정되는 경향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평가의 환류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개선되어야 함. <p>■ 전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의 설정이나 지원대상 만족도(PCSI)결과 추출 과정이나 집계화의 객관성과 과학성이 요구됨. - 성과지표 중 ‘지원대상만족도’, ‘지원프로그램 참여관객수’, ‘예술지원단체 활동수준’의 성과목표지 등 초과달성함. - 지원심의를 통해 선정된 사업에 대한 현장평가와 성과보고서 점수를 통해 사업성과를 확인하고 익년도 지원심의에 참고함. 	74.0/100
문제점	<p>■ 연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과 집행, 평가가 이뤄지는 현행 지원방식은 외견상 큰 문제점이 없어 보이며, 엄격한 기준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는 ‘기계적인’ 객관성과 편리성이 이런 지원방식의 장점이라고 판단됨. - 하지만, 연례행사로 이런 지원방식이 계속되다 보면 지원주체나 수혜자 모두 매너리즘에 빠지기 십상이며, 평가자 또한 관행적인 평가에 의존하게 됨. - 각종 심의 과정에서, 평가위원들의 중복 참여는 지원제도의 객관성 확보에 치명적인 장애임. - 문화예술위원회는 그 산하에 ‘예술지원컨설팅센터협력단’을 두어 지원대상자들의 지원컨설팅과 성과관리를 유도했지만, 이 조직의 인적인 구성과 역할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는 의문이 듦. <p>■ 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으로 현행 문예진흥기금 지원 방식의 제도를 폄하할 수는 없음. 오랜 기간 제도의 장단점을 검토하 	

	<p>여 정비하고 개선한 것은 인정해야 하며, 계량적인 방식으로는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러나 이 지원 사업의 실제적 운용 방식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음. 문제는 추진 과정에서 불거지는 인적 모순이나 운용상의 헛점들이 엇보인다는 것임. - 현행 제도의 문제는 심의과정이나 평가과정에 특정 인사들의 전횡과 능단이 개입할 때, 견제와 균형을 발휘할 장치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임. - 사회적 상호작용이 부족한 무용계로서는 문예진흥기금 지원이 매우 중요함. 그러나 지원사업 자체가 자생력과 공공성 획득 그리고 사회적 공명과 이어지고 있지는 못하고 있음. <p>■ 음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대상자나 그 관련인이 평가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점으로 보임. - 정부와 사업당사자 모두 문화예술진흥기금 이외의 기금확보노력이 부족함. - 장르별 지원금 편차의 폭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p>■ 전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창작 및 표현활동 지원(전통예술) 지원 대상자들의 결정 사유가 불명확함. - 현장 실사 실적 저조 등 전체 계획 대비 실적이 불일치함. - ‘관객만족도’의 성과지표는 확인 불가함. - 전체 사업을 종료하고 본 사업의 성과 및 사업의 수행에 따른 성취업적과 그 효과를 널리 사회에 알리고 홍보하는 일이 부재함. 	
<p>개선 방안</p>	<p>■ 연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의 ‘선택과 집중’을 유도할 수 있는 기준과 지원방식을 공모과정에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선택과 집중’은 좋은 작품에 몇 푼 더 준다는 소극적인 방식이 아니라 ‘킬러 콘텐츠’를 육성하는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심사와 평가 방식의 개선도 필요함. 현행 심사와 평가방식은 복잡하며 번잡하며, 이런 단단계 복잡한 장치는 외견상 객관적으로 보이지만, 객관성이라는 명목 하에 본질을 회피하려는 태도로도 보임. 소수더라도 심의와 평가자를 다년간 선임해 그 사람에게 막중한 권한을 부여해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음. - 기금확보의 다양한 채널이 필요함. 예산을 두고 그에 맞춰 적절히 배분 지원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 아니며, 매년 일정액의 기업 후원금 및 기부금의 확보를 의무화하는 것을 고려할 만함. - ‘예술지원권설정센터협력단’은 차체에 해체하거나 설립 근거와 역할을 보다 명확해야 함. <p>■ 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 방식의 혁신이 필요함. 심사에 참여하는 인력풀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며 순환적이라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음. 무엇보다 작품을 보는 눈이 창작성이란 기준에 맞춰져야 함. 대중과 커뮤니케이션하려는 노력에 대한 존중이 필요함. - 심의 과정에서 문예진흥기금을 사금고화하려는 무용계 일부의 시도를 차단해야 함. 인력풀을 넓혀서 형식적인 공정성을 넘어 불편부당한 인사의 기용이 시급함. - 평가 방식의 혁신이 필요함. 지원사업이 선순환의 결과를 낳기 위해서는 평가의 감식안과 비평안이 중요한데, 이 대목이 간과된 감이 있음. 무용계 내부의 평가뿐만 아니라 외부의 평가까지 포괄하는 것도 한 가지 방책일 것임. - 창작성 제고를 위해 젊은 세대의 지원이 특화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음.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는 안무 경향을 받아줄 수 있는 ‘쿼터제’ 같은 것을 검토할 수 있음. <p>■ 음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의 확대, 기금의 종류 및 지원방식의 다양화를 통하여 각 기금의 특성과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이 선정되고 지원받아 의도된 목적에 부합하고 결과가 예측되는 문화예술진흥 사업이 수행되어야 함. - 개인이나 개별사업에 대한 지원보다는 전문공연장이나, 단체를 지원하여 개별사업을 흡수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전문성이 강화되도록 지원해야 함. <p>■ 전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자 결정사유를 보다 큰 명목과 명분 항목을 설정하여 사전 고시해야함. 즉, 널리 홍보하고 결과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예: 심사위원별 획득점수 고시 조치 등). - 현장 실사 실적 저조 등 전체 계획 대비 실적을 향상시키고 개선해야 함. - ‘관객만족도’ 등의 성과지표를 정확하게 조사 실시하고 통계화 해야 함. - 자체 지원금 확보 외에 기부금 조성, 특별 예산 지원(나라음악큰잔치 등 복권기금)을 통한 일반 사업 지원 노력을 기해나가야 함. 	
	<p>종합 평가점수</p>	<p>76.0/100</p>

7. 수요자 및 맞춤형지원

1) 사업목적

- 예술현장의 다양한 정책 수요에 대한 맞춤형 예술활동 지원을 통하여 고객 만족도 제고 및 민간역량 활성화
- 고객의 요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예술지원컨설팅서비스를 통하여 비재정적 지원 확대 및 수요자맞춤형지원 기반조성

2) 사업내용

- 총사업비 : 12억원
- 지원조건
 - 지원조건 : 직접 경비 일부 지원 및 자원 분담
 - 지원방법 : 민간경상보조, 자체사업 등
- 세부사업내용
 - 수요자맞춤형예술활동지원(공모사업) : 2008년도 기획 확정된 문화예술활동 지원
 - 예술지원컨설팅서비스 : 지원사업 대상 컨설팅 및 네트워킹 서비스, 지원사업 관련 기초 조사 분석, 예술창작기반 관련 정보 구축 제공
 - 국민제안예술프로젝트사업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수요자인 국민이 직접 문예진흥기금 사업을 제안하고 추진에 참여하여 사업 기획부터 완성까지 함께 만드는 사업

3) 평가결과

구분	평가지표(배점)	취득 점수	환산
계획 (20)	지원목적 적합성(10)	8.0	80.0
	사업구성 적절성(10)	8.0	80.0
집행 (30)	추진방식 효율성(10)	6.0	60.0
	계획대비 집행실적(10)	10.0	100.0
	사업및예산효율성제고노력(5)	5.0	100.0
	재정운영 적절성(5)	4.0	80.0
성과 및 환류 (50)	성과지표 적절성(10)	6.0	60.0
	성과목표 달성도(30)	22.0	73.3
	자체평가 및 환류(10)	8.0	80.0
합계(100)		77.0	

[수요자맞춤형지원_단계별 결과]

구분	취득 점수
계획	80
집행	83
성과및환류	72
종합	77

4) 평가근거 및 의견

단계	내용	평가점수
사업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공모사업과는 차별적으로 5차에 걸쳐 지원신청을 받아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명확한 사업의 이해를 위해 컨설팅을 시도하고 있음. - 사업지원대상을 해당연도에만 국한하지 말고 그 다음해까지 지원신청의 폭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함. - 선택과 집중 그리고 사후지원의 원칙을 위해 지원건수에 집중하지 않고 파급효과 높은 단체에 집중 지원하는 것이 사업목적에 적합하다고 사료됨. -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는 계획수립과 지원신청공고에 취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80.0/100
사업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수립이 2월에 이루어지는 것은 연중 5차에 걸쳐 지원신청을 받는 사업진행에 너무 늦은 계획수립이라고 사료됨. - 지원심사위원의 50%가 예술위원회의 내부인원으로 구성됨으로써 공정심사에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존재함. - 지원신청기간(5차)에 따른 홍보수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신청기간과 심의일, 공고일의 진행을 신속명확하게 하여 수요자들에게 불편한 점이 발생 하지 않도록 행정처리 필요함. - 수요자맞춤형지원사업의 경우 예산편성에 맞추어 예산집행이 되었고 다른 사업도 예산사용에 있어서는 계획에 맞추어 진행되었음. - 기존의 지원사업과는 차별성을 두어 진행하려는 의지가 보이는 사업임. - 특히 갑자기 결정되거나 늦게 계획된 해외사업이나 일반 공모사업의 지원시기를 놓친 사업에 대한 기회제공을 하여 의미 있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됨. - 외부재원의 조달을 위해 앞으로 끊임없는 노력이 더욱 필요함. 	83.3/100
사업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람객 수, 공연 횟수 보다는 예술성에 대한 평가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으며, 정량평가보다는 정성 평가를 강화하여 사업취지에 맞는 평가지표 개발이 필요함. - 성과목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사업의 성격에 맞게 세울 필요가 있음. - 해외사업의 경우 평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음. - 보고서 작성은 전반적으로 충실하였으나 중요한 점은 객관적인 서류작성보다는 지원사업이 실질적으로 파급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됨. 	72.0/100
문제점	<p>■ 수요자맞춤형지원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방향을 구체화하고 심사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중심으로 계획수립을 할 필요가 있음. - 지원시기를 해당연도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음해의 사업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계획성 있는 기획 사업진행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수요자맞춤형사업에 맞게 공개적으로 수요자의 요구를 제안할 수 있는 방법 고안 - 5차에 걸친 신청기간, 심의회의일, 선정단체 발표시기가 변동이 잦고 행정진행이 늦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기간이 각기 다르고, 접수 마감 후 심의일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되며, 심의 후 선정단체 발표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장르별 선정건수, 예산지원 편중 현상에 대한 문제점 분석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개 분야에 대해 5차에 걸친 지원신청결과 총241건 지원접수 중 65건이 선정(26.9%), 건당 평균 지원액은 7,692천원임. · 건당 지원금액은 무용이 11,083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문학이 건당 10,000천원, 다원예술 9,666천원, 연극 8,166천원, 문화일반 7,500천원, 시각예술 6,000천원, 전통예술 5,000천원, 음악 3,866천원으로 무용이 가장 높고 음악이 가장 낮음. · 신청건수 대비 선정건수는 무용 50%, 문학 40%, 연극 37.5%, 음악 28.5%, 시각예술 25.6%, 다원예술 22.2%, 문화일반 12.5%, 전통예술 3%로 무용이 가장 높고 전통예술이 가장 낮음. · 총선정건수(65건)대비 분야별 선정분포를 보면 중 시각예술 30.7%, 연극 12.4%, 무용 12.4%, 음악 12.3%, 다원예술 9.2%, 문학 6.1%, 문화일반 3%, 전통예술 1.5%(1건)으로 시각예술이 가장 높고 전통예술이 1건으로 가장 낮음. · 예산 총 5억중 장르별 지원분포를 보면 무용 26.6%, 시각예술 24%, 연극 19.6%, 다원예술 11.6%, 문학 8%, 음악 6.2%, 문화일반 3%, 전통예술 1%로 무용이 가장 높고 전통예술이 가장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차에 걸친 선정단체 중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자체평가인 2008년 문예진흥기금 성과평가 위원들(제3기 소위원회, 현장평가위원)의 사업이 선정됨. ■ 예술지원컨설팅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지원컨설팅센터의 대부분의 업무는 지원사업과 평가에 치중되어 있음. - 문화예술인들이나 단체가 필요로 하는 컨설팅업무에 대한 강화 필요함. - 적극적인 홈페이지 운영필요(자료공개수준 높이고, 다양한 자료보완필요) - 예술지원컨설팅센터협력단 역할 모호함. - 2008년 컨설팅 서비스의 내용은 실질적인 컨설팅 업무보다는 지원선정단체에서 수행해야 될 잔무를 처리한 것이 더 많음. 컨설턴트들의 진정한 컨설팅의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함. ■ 국민제안예술프로젝트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수립이 필요 	
<p>개선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자맞춤형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위원 구성의 개선(내부직원의 비율축소) 필요함. - 지원방법의 수시상담에 대한 문제점 보완(수시상담을 통한 단체지원심의의 형평성문제) 필요함. - 지원대상에서 해당연도에만 국한하지 않고 그 다음해의 사업도 신청할 수 있도록 폭을 넓히는 것이 필요함. - 지원사업에 대한 전체 계획수립이 미리 이루어져 1-3월 사업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5차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기간과 관련된 공고의 홍보를 강화해야 함. - 분야별 지원금액의 편차가 심하게 나타남. 무용(133,000천원)과 시각예술(120,000천원)에 지원이 가장 많이 되고 전통예술분야(5,000천원)에는 가장 적게 지원됨. 금액의 편차가 너무 심하게 나타나는 문제점 개선이 필요함. - 해외사업의 경우 평가방안 연구가 필요함. - 지원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계획수립과 사업홍보 시 정책방향을 충분히 설명하여 수요자들이 이해하고 지원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수요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행정적 제도 마련이 필요함. ■ 예술지원컨설팅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신청단체 입장에서 필요한 자료 구축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단체선정내역과 사업내용 지원금내역, 정산처리방법, 해외마케팅방법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의 자료보충 - 문화예술인이나 단체, 즉 사용자 입장에서의 관점필요 : 사용자가 이용하기 쉬운 홈페이지 구축 등 - 질문내용이나 답변을 모두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누구나 쉽게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컨설팅보고서의 각 분야별 통일성 있는 양식필요, 해당직원들의 성의 있는 자료구축이 필요함. - 해당업무 직원들의 컨설팅 능력 배양이 시급함. 컨설팅의 범위가 해외업무에서부터 다양하기 때문에 의뢰한 단체보다 직원들의 업무경험이나 올바른 컨설팅이 가능한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지원컨설팅센터협력단의 폐지 또는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 	
	<p>종합 평가점수</p>	<p>77.0/100</p>

8. 공연예술전문단체 집중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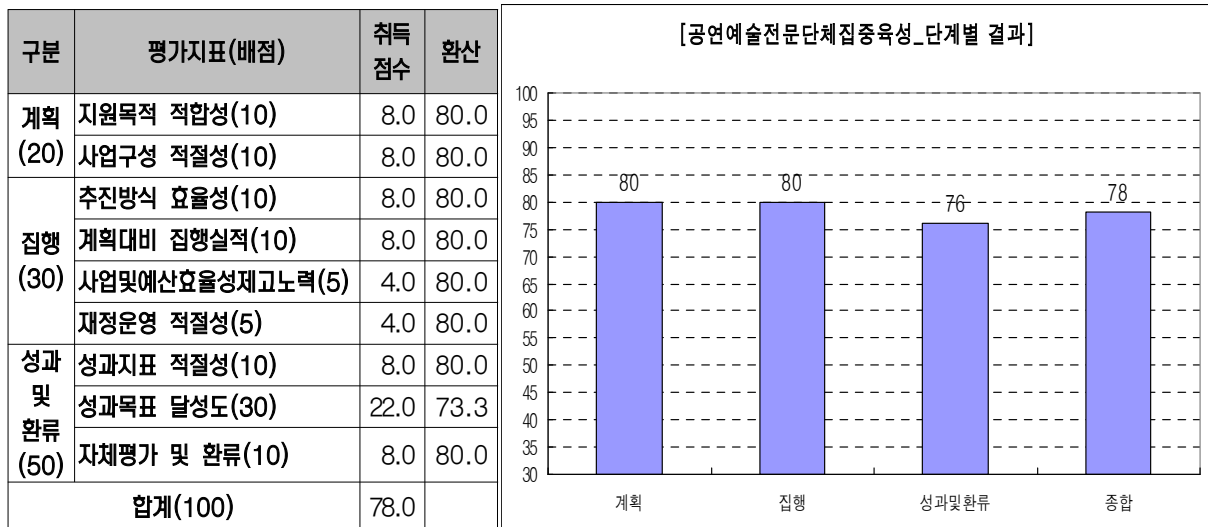
1) 사업목적

- 창작능력, 인적구성, 운영 시스템의 전문성 등 여러 측면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공연예술 단체를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다년간 지원하여 단체의 예술창작 역량 및 국제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창작활동 기반을 제공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국내 공연예술단체로서 창작 및 공연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단체
- 지원규모 : 단체별 연간 5천만원~1억 5천만원
- 지원항목
 - 공연장 대관료, 무대제작비, 홍보비, 조명·음향 디자인비, 출연(연주)료, 작품료, 저작권료, 행사보조요원 수수료 등 공연제작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일체
 - 정규단원, 기획행정인력 인건비 등 단체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전체 지원금액의 20% 이내)
- '08년도 지원대상사업
 - 지원대상 : 음악, 연극, 무용, 전통예술 분야 총 50개 단체
 - 지원예산 : 4개 분야 총 4,447,000,000원

3) 평가결과



4) 평가근거 및 의견

단계	내 용	평가점수
사업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측면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공연예술 단체를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다년간 지원하여 단체의 예술창작 역량 및 국제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창작활동 기반을 제공함”이라는 지원사업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대체로 기 선정된 단체들은 이미 공연계에서 상당한 기량과 업적을 보여온 단체들로서 이런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짐. - 다만 지원액수(5천-1억5천), 3년간 한정지원 등을 고려한다면 ‘선택과 집중’의 강도가 약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단체의 순차적 선정과 수혜’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선택과 집중’의 취지가 퇴색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선택과 집중’이란 취지에 비춰볼 때 5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 사이의 지원액수는 한편의 공연을 제작하기에도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음. 그러므로 필수이행조건은 오히려 공연의 질적수준 저하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됨. 사업의 목적은 명확하나 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원 단체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연 횟수가 유연성 있게 책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유사 맥락에서 80% 직접 경비/20% 인건비 비율도 지원 단체별 특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어야 한다고 봄. 단체에 따라 제작비보다 기획인력이 더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임. - 목적에서 밝히고 있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공연예술 단체”의 기준이 모호함. 유료 관객 비율이나 재정자립도, 경쟁력 지수에서도 각 단체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해야하는지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며 “신진 공연예술단체”와 “중견 공연예술단체” 등으로 분리하여 맞춤형으로 지원기준을 정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음. 	80.0/100
사업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사업과의 연계 협력 방안 : 지원단체 중 많은 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워크숍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무대예술인재교육지원” 프로그램으로 활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됨. - 2009년도부터 실시될 “지역협력형 사업으로의 이관”을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매칭펀드 방식으로 예산이 두배 늘어나는 것은 아주 긍정적이나, 서울 이외의 지역은 다시 종전처럼 소액다건으로 돌아갈 위험성이 큼. 또한 지역예술단체의 속성상 지원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음. 마지막으로 지역에서 기금을 배분할 때는 기존의 방식과 달리 지역 특성에 맞는 분야에 더 많이 배분될 수 있도록 분야별(장르별) 비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해야함. - 대부분의 단체가 “단체 재정자립도” 면에서는 미미한 성과를 보였으나 “참여 관객수”에서는 당초 목표를 웃도는 결과를 나타냄.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지원뿐 아니라 기업협찬이나 후원금, 개인기부금과 같은 민간 자원 확보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사적자원 유인이 만만찮은 환경이라 하더라도)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대부분의 단체가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었으므로 이 기준을 다소 강화하여 단체의 노력을 조금이라도 더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짐. - 많은 단체들이 해외 진출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재 해외 진출을 통해 실제 수익을 거두고 있는 단체는 거의 없으며, 오히려 해외 진출을 위한 경비 때문에 적자를 보는 경우가 많음. 이에 현 단계에서 해외 진출 노력을 통해 실수익을 보고 있는가를 볼 것이 아니라, 적자를 보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꾸준한 시도를 하고 있는지, 또한 그 시도가 다음 단계를 위해 효과적인 방식인지에 대해 평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외부의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부족은 지원단체 내에 재원확보를 위한 전문 역의 부재에 따른 것으로 생각됨. - 회계처리의 적절성 및 정확성은 자료 부족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나 지원단체의 지원신청서만으로 볼 때는 적절하다고 여겨짐. 	80.0/100
사업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과의 인과관계를 볼 때 성과지표는 적절히 설정되었다고 보이나 최소 공연 횟수에 대한 조항은 단체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제출된 자료만으로 볼 때는 대부분의 단체가 성과목표치를 달성했다고 보여짐. - 고객 만족도 조사는 자료를 제출한 단체 중 단 한 개만이 실시했고 그나마도 매우 미흡했음. 고객 만족도 조사 자료는 전체 평가 자료 중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고객 만족도 조사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조사 방법 등을 표준화하여 각 단체가 이에 맞추어 조사 결과를 제출하거나 외부 기관에 의한 고객 만족도 조사가 실시되도록 해야함. - 2008년 고객만족도는 78점 목표에 76.8점 기록으로 평균이상의 만족도를 보임. - 연극 분야의 성과보고서 작성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충실했고, 무용 분야와 전통예술 분야는 연극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세밀한 분석이 미흡했음. 모범이 될 만한 성과보고서를 사전에 보여주어 충실한 보고서를 작성토록 참고케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임. 	76.0/100

<p>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를 위한 자료가 적절하게 제공되지 않음. - ‘공연예술전문단체 집중육성’ 사업은 ‘단기 지원’ 사업이 가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모토로 소수의 단체를 3년간 집중육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으나 현재의 방식이 과연 그 의도를 제대로 구현해 냈는지에 대해 3년이 지난 지금 냉정히 평가해 볼 필요 있음. - 이 사업의 지원 조건을 보면 필수 이행 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질적인 수준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연간 공연횟수에 대한 강제적 기준 없이 각 단체의 상황과 특수성에 따라 융통성 있게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함. 물론 동시에 병행되어야 할 점은 연간 공연횟수라는 일률적 필수 이행 조건에 더하여 공연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도 만들어서 이를 통해 지원의 효과를 확인하는 일일 것임. - ‘공연예술전문단체 집중육성’은 2009년부터 지역으로 이관되어, 개별 예술 단체들이 시도별 지자체나 지역문화재단, 지역예술위원회에 기금을 신청하는 것으로 변경됨. 물론 이러한 변화는 지금까지 문예진흥기금의 분배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던 점을 보완하여 지역 문화가 활성화되는 데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는 보임. - 그런데 기금이 지역으로 이관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며, 적은 기금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지침이 있어야 할 것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역의 속성상 소액단건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 장르간 안배, 골고루 나눠주기식 등 종전의 방식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지역별로 장르를 불문하고 1-2개 단체만 지원이 되는 한이 있어도 제도의 장점을 살려나가는 의지와 결단이 필요할 것임. 지역의 특수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이들의 업무를 보조해주는 사무 인력, 단체의 사업 진행을 평가하는 평가위원 등 전반적인 인프라도 동시에 구축되어야 함. - 또한 지역별로 1/n 식의 분배를 한다는 것도 ‘선택과 집중’이라는 면에서 볼 때 지적되어야 할 문제점이라고 보임. 더불어 음악, 무용, 연극, 전통예술 네 분야에 거의 균등하게 배분되는 지원 예산도 지역 특성에 맞게 재구성되어야 함. 전통예술에서 강세를 보이는 지역에서는 이 분야에 더 큰 예산을, 연극의 전통이 강한 지역은 연극 분야에 더 큰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됨. 물론 강조되어야 할 점은 지역별, 분야별 분배 구조에 대한 분명한 근거(예컨대 예술단체 보유 수 등)가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는 사실임. 그렇지 않다면 지역 간 또는 수혜단체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부정적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p>개선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자료 - 성과지표에는 분명 평가에 있어 필요한 자료인, 계량적 측정방법을 통해 나오는 성과보고서, 질적 측정 방법을 통한 전문가 평가서, 관객 만족도를 측정한 보고서가 작성되었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이러한 자료는 적절한 시점에 제공되지 못했으며 이는 앞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점이라고 사료됨. 공연회수나 작품수, 또 참여예술인수나 관객수에 대한 성과 보고서와 공연의 예술적 수준 및 단체 운영의 효율성을 분석한 전문가 평가서, 관객들의 질적 만족도에 대한 정밀한 분석 자료가 제공되었을 경우에만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할 것임. ○ 단체별 맞춤형 지원 방식 필요 - ‘공연예술전문단체 집중육성’ 사업은 개별 단체의 유형과 성격에 맞게 예산 배정을 하고 동시에 그 단체를 위해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 이 경우 단체가 가진 경영상의 문제점이나 작품 제작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체계 구축 등 맞춤형의 컨설팅이 병행된다면 보다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지원받은 예술 단체와 공연장이 결합하여 시즌별 레퍼토리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식의 간접 지원도 검토할 수 있음. 이미 예술의 전당을 비롯한 여러 극장들이 예술단체들과 공동 제작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회를 잡는 일이 쉽지는 않으므로, 지원조건의 변경을 통해 이러한 기회가 보다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함. - 한편 이 제도는 지원규모(5천-1억 5천), 3년간 한정지원 등을 고려할 때, 지원규모와 지원기간을 늘리는 것도 검토하여 ‘선택과 집중’의 강도를 더 높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단체의 순차적 선정과 수혜’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결국 ‘선택과 집중’의 취지가 퇴색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p>종합 평가점수</p>		<p>78.0/100</p>

9. 청년인턴채용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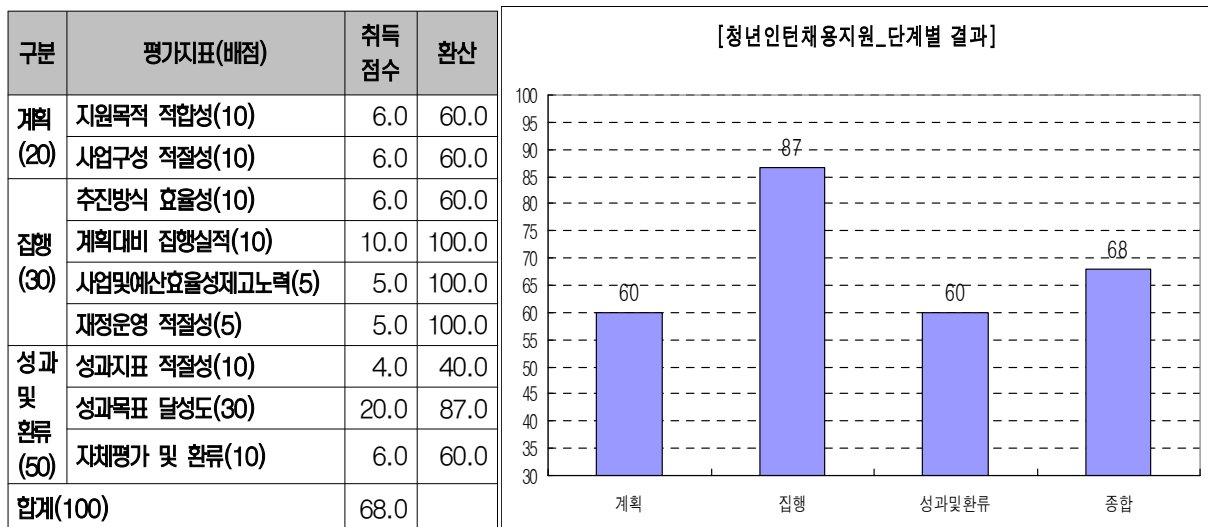
1) 사업목적

- 문화예술 행정 및 창작현장에서의 실무 체험을 통해 인턴 근무자들의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향후 전문분야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함으로써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

2) 사업내용

- 인턴채용대상
 - 18-29세 중에서 문화예술 관련 학과 및 전문과정 이수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전공자가 아닐 경우 문화예술분야에서 1년 이상 관련 활동 종사자
- 지원신청자격
 - 공공 성격의 문화예술 단체 및 개별 문화예술 단체
 - 전국 조직의 문화예술단체
 - 개별 문화예술 단체
- 지원조건
 - 예술위원회는 지원 대상처에 해당 인턴의 월 보수만을 지원함.
 - 인턴을 채용하는 단체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가입 의무 및 보험료 중 고용주 부담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

3) 평가결과



4) 평가근거 및 의견

단계	내용	평가점수
사업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법(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근거하여 ‘문화예술분야청년인턴채용지원 ‘을 통해 ’ 문화예술 향유 매개활동 증진 ‘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한 목적은 분명하고 사업의 신청인원(2008년도 121개 단체 619명)을 볼 때 사업의 수요와 지지가 있었다고 판단됨. - 그러나 ‘문화예술 향유 매개활동의 증진’ 이 단기간(6개월), 비전문 인력에 대한 지원으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실제로 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자체적으로 인력을 고용할 여력이 있는 단체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진 점 등은 기금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이 있음. - 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화예술전문인력양성사업과 내용이 중복되고 있어 사업설계의 적절성에 문제점 노출됨. 	60.0/100
사업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턴이 선호하는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문화예술단체를 중심으로 근무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인턴의 지속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은 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의문을 갖게 함. 2007년 176명 대상자 중 22명이 취업한 실적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취업기관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체적으로 필요인원을 채용할 능력이 있는 기관들이란 점에서 본 사업의 성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인턴근무 종료 후 동 단체에서 인턴을 직원으로 채용할 경우의 특혜는 실제적이지 못함. - 사업 중 발생한 잔액을 평가에 의해 1개월간 20명 연장 근무 지원 - 총 예산 900,000,000원 중 정부 시책에 의거하여 10% 절감하고, 810,000,000원으로 146개 문화예술단체에 인턴 170명 채용 지원 - 사업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잔액을 활용하여 1개월간 20명 연장 근무 지원 	86.7/100
사업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는 지원프로그램 참여자수, 수혜자만족도(인턴근무자만족도0.6+지원수혜단체만족도0.4)로 구성 - 성과지표의 단순성과 성과목표 달성이 용이하도록 구성된 지표체계는 사업내용의 성과를 입체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음. - 성과목표 달성률은 100%로 결과가 나왔으나 지표체계의 단순성이 발견되며 사업구성의 적절성과 기여도를 감안할 때, 보통의 성과로 판단됨. - 반면 본 사업 참여자와 대상 기관들의 설문조사결과의 내용으로 본 수혜자 만족도 목표치를 초과 달성함. - 민예총 제주지회, 예총 제주지회, 청주 신미술관, 충주 세계술문화박물관의 현장평가를 통해 실제 근무현황(주요업무, 근태관리 등), 인턴사원 및 단체 인터뷰를 통한 의견수렴, 개선방안 등을 협의하고 문제가 된 민예총 제주지회의 지원을 중단함. - 단체 및 인턴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 결과를 활용함. - 단체로부터 연장 근무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여, 공정한 평가를 통해 1개월간 20명 연장근무 지원한 점 등은 모니터링 체계가 적절하게 이루어 졌으나 이미 본 사업의 시작 전부터 예상된 인턴의 근무 환경, 실무 교육 프로그램의 미비 등에 대한 사전 대책 강구가 없었음. 	60.0/100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지원목적성 문제 - 청년인턴 사업을 취업과 관련하여 인식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며, 인턴은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생각해야 함. 사업목적의 훌륭하고 사업추진계획이 적절하게 잘 설계되어 있다고 해서 사업의 타당성과 명분이 분명한 것은 아님. 사업목적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방향에 현실적인 여건이 적절하게 고려되어 있느냐가 오히려 더욱 중요함. - 인턴사원이 필요하다면 인턴사원 육성계획이라던가, 교육계획이 갖춰져 있어야 하나 실상은 그렇지 못함. 6개월간의 인턴을 통해 지원되는 사업은 취업률을 높인다는 인식에서 단기간에 걸친 교육지원 사업이라는 점임. ○ 문화예술기관의 현황과 문제점 - 문화예술매개활동의 증진은 생산(창작활동)과 소비(향유)를 활성화 시킨다는 점에서, 인적자원의 양성은 매우 시급한 과제임. 그러나 역으로 시장의 여건이 건전하게 조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인력의 공급은 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왜곡시키기도 함.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문화예술기관들은 본 사업의 취지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는 있으나 현실적인 여건들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보임. - 관심과 배려 속에서 체계적으로 실무능력을 교육하고 자질을 키워주는 담당 인력이 전무하고, 현장 	

	<p>의 특수성으로 인해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실무 경험을 체득시킬 업무를 배정하지 못하고 인턴 근무자는 단순 업무에 단기간 배치되어 사업기간 종료와 함께 원상태로 복귀하게 됨. 이에 따라 인턴근무 경험이 실제 취업과 연계될 가능성이 매우 낮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적절성과 기여도 문제 - 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화예술기획경영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내용이 중복되고 있어 사업설계의 적절성에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 또한, 문화예술전문인력이 단기간 경험으로는 양성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청년인턴을 통해 사업예산이 소모성 지원으로 끝나고 외형적 성과에 치중하게 될 우려도 있음. ○ 평가지표 설계의 문제점 - 예술위원회의 자체 평가한 내용과 제출된 자료로 정량화된 평가를 하기에는 문제점이 있으며 관련된 세부적 자료들이 미흡함. - 사업추진목표 설정 :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적절성, 효율성에 대하여 상당히 상반된 시각 차이를 가질 수 있음. 집행단계에서는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될 부분들은 없음. 그러나 성과목표달성도의 경우 170명 뽑기로 목표해서 170명 뽑았다면 달성도는 당연히 100점을 부여 받게 됨.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업 실시전의 준비 단계에서부터 보다 세심한 부분까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평가 지표를 설계해야함. 성과지표는 지원프로그램 참여자수와 수혜자만족도로 지나치게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어 입체적이고 심층적인 평가를 하기에는 문제점이 발견됨.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목적에 알맞은 운영방식으로 전환 - 인턴근무가 문화예술기관에서 매우 필요한 인력양성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현장 기관에서 인턴십을 꺼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이 시행되어야 함. 기관과 대학교가 인턴 프로그램을 기관의 특성에 알맞도록 개발하여 운영하고 예술위원회에서 지원을 하여 활성화 되도록 하는 방법도 있음. ○ 인턴십의 제도화 - 일정규모 이상의 문화예술단체는 인턴제도의 도입을 법적으로 강구하고 이에 따라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음. - 프로젝트별로 해당 인력의 인턴사업 추진 - 기관의 인력채용 계획과 병행하여 인턴십 제도를 운영하여 차후 정규 취업과 연계하도록 유도함. ○ 각종 문예진흥기금 단위사업과 연계방안 강구 -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또는 단체에 인턴을 옵션으로 묶어서 일정기간 동안 그 프로젝트에 대해 직무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야 함. ○ 새로운 평가지표 개발 - 예술위원회에서 자체 개발한 지표만을 적용할 경우 사업에 대한 평가는 매우 우수한 것으로만 결과가 도출되므로, 입체적인 평가지표의 개발로 단순 정량화 방식의 한계를 넘어서야함. 	
종합 평가점수	68.0/100	

10. 무대예술인 재교육지원

1) 사업목적

- 현장에서 활동하는 무대예술 전문인력의 역량강화와 매너리즘 극복을 위한 재교육프로그램과정으로 전문 인사로 구성된 선발위원회의 엄격한 오디션을 거쳐 기량과 장래성이 인정되는 전문배우 집중육성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연중
- 연도별 교육내용
 - '04~'05년에는 단기 교육과정 추진
 - '06년에는 단기 교육과정 이외의 전일집중 심화과정, 지역무대예술인재교육 및 평가워크샵 공연 등 3개 과정으로 확대 추진
 - '07, '08년에는 인원 중심교육의 틀을 벗어나 단기 교육과정을 없애고 심화과정에 더욱 집중하여, 성과중심으로 추진
- 전일집중 심화과정 교육내용
 - 전문훈련과정 : 1일 8시간, 주 5일 집중심화교육과정으로, 공연작품을 선정 교육전담 총감독 지도하에 고도의 신체훈련 및 몸만들기, 대본 읽기 및 분석, 무대동작 실기, 화술 및 동작 이론, TV 및 카메라 영상매체 실전, 종합평가 및 리허설 등 작품제작 전 과정을 집중적으로 훈련
 - 지도위원 교육 : 평생을 연극계에 헌신해 온 원로 선생님들로 구성. 월 1회 이상 초빙하여 그분들의 연극관과 연기술을 전수 받으며 정신 교육도 함께 병행하는 한편 연극계 전통과 역사의 맥을 잇도록 함.
- 여의도 홍보사업국 운영
 - '07년도에 여의도에 사무실을 개설하여 연극배우들을 위하여 방송, 영화 등의 출연교섭에 주력
 - 촬영이나 녹화 등의 사전연습장으로 활용함.
- 지역연극인 재교육 및 평가워크샵 공연 지원
 - 배우재교육사업의 연장으로서 서울에서 수강하기 어려운 지역연극인들에게도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
 - 중앙 밀집 연극문화로 인하여 생긴 지역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와 함께 낙후된 지역에 활력을 주어 지역연극인의 연기력을 향상시켜 수도권과 동등한 대우와 권리를 찾아주고자 함.

3) 평가결과

구분	평가지표(배점)	취득 점수	환산
계획 (20)	지원목적 적합성(10)	6.0	60.0
	사업구성 적절성(10)	4.0	40.0
집행 (30)	추진방식 효율성(10)	6.0	60.0
	계획대비 집행실적(10)	6.0	60.0
	사업및예산효율성제고노력(5)	3.0	60.0
성과 및 환류 (50)	재정운영 적절성(5)	1.0	20.0
	성과지표 적절성(10)	6.0	60.0
	성과목표 달성도(30)	20.0	66.7
	자체평가 및 환류(10)	4.0	40.0
합계(100)		56.0	

[무대예술인재교육지원_단계별 결과]

단계	평가점수
계획	50
집행	53
성과및환류	60
종합	56

4) 평가근거 및 의견

단계	내용	평가점수
사업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개요와 내용 중 “새로운 예술세계의 개척” 지원목표와 “새로운 예술 및 인력육성”의 하위 목표는 배우협회가 지향하는 “직업적 연계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의 교육목표와 많은 차이점을 지니고 있음. - “무대예술인 재교육”이라는 사업명칭과는 다르게 실제로 진행된 교육내용은 “연기자중심의 재교육”으로 판단되며 명목상 사업목적과는 다르게 주로 교육대상이 배우로 한정되는 모순점을 발견됨. - 모호한 교육대상과 “전문성 함양”이라는 목적은 목표달성의 가능성을 희박하게 함. - 다만 집중적인 직업 무대예술인 재교육사업의 중요성은 매우 강조되고 있는 시점임. - 배우들의 일자리 연계와 같은 내용은 재교육의 범위와 벗어나는 사항이며 지원예산의 상당 부분이 교육에 직접 투자되기 보다는 운영과 교육을 위한 생활비 지원과 같은 보조적인 부분에 과다하게 책정됨. - 세부사업 중 현장 실습교육과 지역무대예술인 재교육 및 평가 워크숍은 공연형태로 제작하므로 공연 작품 제작 지원의 목적과의 차별성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내용을 활용한 참신성을 보여주기에 미흡함. 	50.0/100
사업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적 목표달성을 위한 교육과정연구와 관리를 위한 조직이 좀 더 충실하게 보강되어야 할 것임. - 전문성 함양이 가장 중요한 재교육의 목표라면 보다 전문적인 인력에 의해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필요함. - 연기자 재교육을 ‘직업 연기자 육성을 위한 재교육’이라는 성격으로 분명히 하고 교육체계를 좀 더 집중적으로 강화해야 함. - 계획과 집행실적은 대부분 일치하나 지역 무대예술인 재교육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시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음. - 감사원 지적사항을 일부 시정조치 완료하는 등 그 동안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음. - 배우협회에서 주관하는 “무대예술인 재교육” 사업의 성격은 성실성, 전문성 등에서 한계가 인정됨. - 재교육을 위한 직접 예산보다 보조적 예산의 범위가 과다함. - 사업목적과 다른 운영과 복지 차원의 예산 전용사례가 다수 발견됨. 	53.3/100
사업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성 향상”과 사업 추진 배경에서 배우들의 경제적 상황에 관한 언급은 적절하지 않음. - 정량적 평가가 어려운 연기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성과지표 마련이 어려운 상황임. - 참여도는 우수한 편이나 성과지표가 “전문성 향상”이라면 220명의 인원을 단기간 우수한 연기자로 육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목표지일 것으로 판단됨. - 교육생의 만족도는 07년 74.1, 08년 75.6 정도로 중간 이상 정도를 유지함. - 성과 보고서는 지극히 간략한 사업의 개요와 추진 방향에 대한 기술, 조직도, 연극 줄거리 요약, 개략적 교과과정과 주소록과 같은 일반적 정보와 사진 자료와 공연 평이 수록 되었으나 실제적 성과를 파악하기에는 불충분함. - 좀 더 충실한 성과평가를 위해 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위한 구체적 문항과 교육일지 등이 첨부되어야함. 	64.0/100

<p>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목적의 적합성 모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대 예술인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은 보다 체계적인 교과과정과 세밀한 계획에 의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이 수립되고 이루어 져야 함. 그러나 연간 지원형태로 지원되는 본 사업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정확한 목적과 대상을 선정하고 수행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교육목표의 불확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대예술인 재교육 지원”이라는 사업명은 마치 무대 위에서 활동하는 공연예술인 모두를 위한 포괄적인 재교육 과정으로 비추어지고 있지만 교육내용은 배우들의 기본적 연기교육과 작품제작으로 채워져 있음. ○ 교육 대상자 선발을 위한 객관적 평가 지표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대상자 선발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지원신청자들의 수준과 경력, 교육에 대한 열의와 의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의 지표가 필요함. ○ 사전 교육과정의 수립과 공지 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생들이 필요에 의해서 열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나 현재의 자료로서는 기본적인 교육과정 자료와 이것을 사전에 공지한 자료들을 발견할 수 없음. ○ 교육과정의 참신성 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훈련과정, 지도위원 교육, 지역 연극인 교육 및 평가워크숍 등 세 개의 별도 과정에 의해 운영되었으나,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는 연기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크게 변화된 과목들을 발견할 수 없음. ○ 예산운영의 비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극배우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재교육이 추진되는 과정은 본래의 지원목적과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며, 예산의 많은 부분이 운영을 위한 용도로 전용되었음. ○ 강사 풀의 빈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연기자 재교육을 위한 전문 강사 풀에 대한 심각한 고려가 필요함. 국내외 국외를 망라한 다양한 강사 풀을 확보하고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함. ○ 교육공간의 부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의 연기자 훈련을 위해서는 이에 적합한 공간과 시설이 필요함. 연기교육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며 훈련시 신체적인 무리가 없도록 설계된 전문 연습실이 구비되어야 함. 	
<p>개선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교육기관의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적 관점에서 연기자 재교육 방안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전문적인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며, 현실적인 방안으로서 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무대 예술 연수원과 교육기관이 협력하여 우수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상시 전문 프로그램을 시군별로 운영함으로써 직업 예술가들이 능동적으로 신청하여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명확한 교육목표의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적 연기자를 위한 실재적이며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목표라면 “연기자 재교육을 통한 훌륭한 연기자 양성”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세워야 함. ○ 프로그램은 레벨에 의한 수준별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교육대상별 교육수준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고 그에 대한 합당한 교과과정을 제시함으로써 교육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소수 정예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명 이상의 교육인원으로서의 집중적인 연기 교육이 불가능함. 전문적 연기자들을 위한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수준을 달리하는 소수 인원으로 클래스를 운영해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다양한 교과과정과 교재의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기훈련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의 수립과 효과적인 교재개발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이미 많은 연기 테크닉에 대한 저서들이 국내외에 출판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번역과 출판에 대한 지원이 연계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함. ○ 교육공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무대예술인 교육을 위한 교육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함. 	
<p>종합 평가점수</p>	<p>56.0/100</p>	

11. 예술전용공간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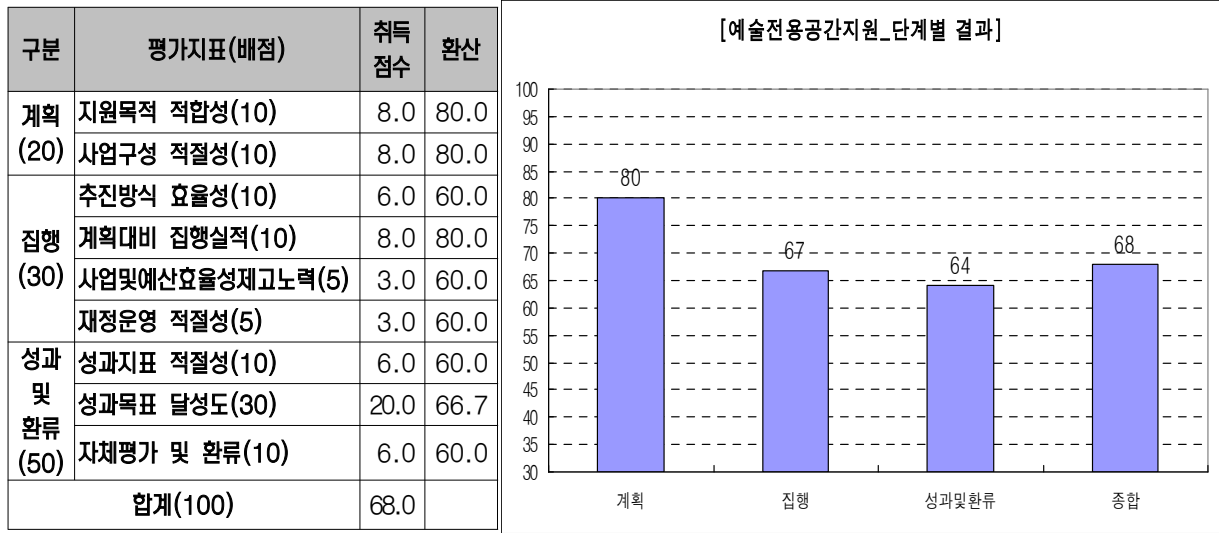
1) 사업목적

사업명	사업목적
문학관 지원	- 문학창작에 필요한 하드웨어 공간을 지원하여 최적의 집필환경을 제공하며, 문학관이 지역의 주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위한 기반사업을 지원
연극 분야 : 민간소극장 특성화 사업 지원	- 민간소극장의 특성화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극장 자체가 제작자가 되어 좋은 기획프로그램을 공급하게 함으로써 단순 대관 중심의 소극장의 역할을 기획제작형 극장으로 전환시켜 민간소극장의 활성화에 기여
무용, 음악, 전통예술 분야 : 전용공간 지원	- 무용, 음악, 전통예술 분야의 공연 발표 및 연습 공간의 확보 및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예술 활동의 거점 확충 및 창작 여건을 개선
인사미술공간 지원	- 유망작가를 위한 복합/교류/지속형 기능체제를 구축, 아카이브와 워크숍, 출판 미디어와 프로젝트 연구개발을 연계 추진함으로써, 국내외 미술기관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국제적 작가군을 지속적으로 배출
비영리전시공간 지원	- 시각예술 활동 거점인 비영리전시공간의 창의적 전시기획 및 선도적 거점 프로그램의 지원을 통해 미술계 현장의 자생적 역량 강화 도모
다원예술매개공간지원	- 실험적인 예술활동, 예술주체의 다양성, 문화다원주의적 공공성 증진을 통한 예술의 창조적 중 다양성 확대

2) 사업내용

사업명	사업내용
문학관 지원	○ 지원신청 자격 - 창작 집필실 운영 : 10실 이상 집필실을 완비하고 이를 연중 운영할 수 있는 문학관 - 문학공간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문학공간 및 관련단체
연극 분야 : 민간소극장 특성화 사업 지원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규모 : 1개 극장 당 사업내용이나 규모에 따라 5천만원~ 억원 내외 ○ 지원항목 : 공연제작과 관련한 직접경비 일체, 극장운영요원(기획홍보마케팅) 인건비 ○ 지원대상사업 : 창작 집필실 운영, 문학공간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무용, 음악, 전통예술 분야 : 전용공간 지원	○ 지원대상 : 무용, 음악, 전통 공연을 발표할 수 있는 공간을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문화예술 단체 및 개인 ○ 지원대상사업 - 무용, 음악, 전통공연 전용 소극장 및 복합공간 운영 - 무용 스튜디오, 음악전통공연 전용 연습실 ○ 지원규모 : 공간유형·규모, 공간운영 프로그램 규모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
인사미술공간 지원	○ 추진전략 - 유망작가 지원을 위한 다각적 기능체계 구축 - 창작의 가치 유연화를 위한 연구개발기능의 심화 및 국제교류 강화 - 작가지원의 외연 확대를 통한 지속적 가치 창출 및 성장기반의 공고화
비영리전시공간 지원	○ 지원대상 : 최소 3년(2005.1.1-현재) 이상 운영 중인 비영리 전시공간 ○ 지원규모 : 공간별 연간 3천만원~6천만원 내외 ○ 지원항목 - 전시 등 프로그램 기획, 운영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일체 - 공간운영, 기획인력의 인건비 등 단체운영에 소요되는 필요 경비(전체 지원금액의 20%)
다원예술매개공간지원	○ 사업예산 : 2억 원 ○ 프로그램 : 자체 제작 및 외부 제작 프로그램으로 구성 ○ 자체 제작 프로그램 : 다원예술 담론 및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다양한 토론 형식 ○ 외부 제작 프로그램 : 예술가 및 단체에게 쇼케이스가 가능한 공간과 진행인력을 지원하고 결과물(영상, 출판물 등)을 공유

3) 평가결과



4) 평가근거 및 의견

단계	내용	평가점수
사업 계획	<p>■ 문학관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관, 창작집필실, 문학관협회 지원으로, 문학분야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문예진흥기금 지원목적에 적합함. - 향후 문화예술진흥사업이 단순한 사업지원이 아닌 인프라 확충에 있다 할 때, 그 의미가 매우 큼. - 다수의 창작실과 문학관 지원에 있어 비교적 적절하게 사업수혜 및 참여대상자의 범위, 규모가 적절함. <p>■ 공연예술전용공간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악한 공연 제작 환경을 고려할 때, 연극의 경우 민간소극장특성화사업 지원은 적절하고, 무용, 음악, 전통예술의 전용공간지원의 필요성 역시 인정됨. - 사업수혜 또는 참여 대상자의 범위는 확대되어야 함. <p>■ 인사미술공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과 계획을 비추어 볼 때 지원 및 기금목표달성에 대한 적절성이 있다고 판단됨. - 문예진흥기금을 통해 보다 실험적이고 진취적인 신진작가 양성 및 토론을 위한 장을 마련하는데 지원한다는 취지에 부합함. - 지원수요의 타당성은 긍정적인 반면, 운영방식과 지원지지도에 있어서는 제고의 여지가 있음. - 세부사업들 가운데 특정 외국작가(온복)의 국내전시에 대한 예산지원과 평론집 '볼'에 대한 예산은 다소 규모에 있어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사료됨. - 사업선정 또는 대상자의 범위와 규모에 있어 좀 더 객관적인 시행이 요구됨. - 타사업과의 차별성, 고유성은 유효하나 예술의 수월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p>■ 비영리전시공간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안공간에 대한 지원목적은 분명하나 장기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얻어지는 목적의 정확성이 결여됨. - 지원을 통해 대상 사업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결여되어 있음. - 해당 단체들에 대한 지원의 적합성은 담보되었다고 판단됨. - 사업수혜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의 내용에 대해 정확한 범위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음. <p>■ 다원예술매개공간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원예술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사업을 먼저 시행함으로써 정확하고도 적절한 사업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함. 따라서 정확한 목표제시가 애초에 어려웠으며 그에 대한 달성정도 역시 불분명함. - 지원목적은 있다고 보지만 지원수요의 적정수요와 지지가 불투명하고 논란의 여지 있음. - 다원예술창작공간인지 매개공간인지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있음. - 예산의 사용에 있어 공간을 운영하는데 들어간 예산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실제 예술가 및 창작에 	80.0/100

	<p>대한 지원은 많지 않았음에도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수용하고 있어 사업의 내용과 질을 담보하기 어려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혜 및 참여대상자의 범위, 규모 역시 1-1의 문제점에 근거하여 불분명하게 운영됨. - 다원예술매개공간의 목적인 지원, 네트워킹, 다원예술매개 등에 역량의 한계가 보임. - 사업 기금 지원목적과 해당 지원사업 목적과의 적합성에 대한 논의의 전제가 있어야 함. - 세부사업의 지원 범위 및 대상이 한정적인 모순이 있으며, 예산의 집행 항목의 현실성이 부족하고 시행 범위의 한계와 혼동이 있을 수 있음. - 참신성이나 수월성에 있어서 타 공간과의 차별점이 보이지 않음. 	
<p>사업 집행</p>	<p>■ 문학관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사업은 문학활성화 차원에서 지원되었으나, 타사업과 연계된 사례는 없음. - 예산집행률이 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계획대비 예산집행률에 문제가 있음. - 지원받은 집필실 및 문학관을 대상으로 결산보고를 받았으나, 현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찾으려는 노력과 외부재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그다지 보이지 않음. <p>■ 공연예술전용공간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문화예술위원회 담당 조직 및 인력이 보완되어야 함. -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 자료를 발견할 수 없음. - 사업 계획에 비해서 세부 사업 현장에서의 실제 집행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다수 있음. - 세부사업에서, 전반적으로 소공연장들은 대관료를 통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보이거나 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오히려 해당 사업의 예산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세부사업 전반적으로 현장에서의 회계처리가 불명료한 부분들이 발견됨. 특히 수입 부분이 불명료하게 처리된 사업들이 발견되었으며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도가 특히 필요함. - 세부 사업은 전반적으로 외부 자원 확보 노력이 부족함. <p>■ 인사미술공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 및 연계협력 등이 이루어졌음. - 사업성격에 따른 조건들에 있어 좀 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음. - 사업추진과정의 적절성과 객관성을 입증하는 장치나 자료가 부족 - 사업계획에 비추어 집행결과들은 대체로 일치함. - 예산대비 사업의 효율성이 미흡하고 비용절감의 노력이 보이지 않음. - 재정운영은 일반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졌으나 몇몇 항목에서 사업 목표나 성격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함. - 외부재원과 수익성제고에 대한 노력이 미흡하고 결산자료와 회계처리 자료가 미흡함. <p>■ 비영리전시공간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표가 불분명하고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으므로 집행결과에 대한 일치도를 판단할 수 없음. - 연례사업 임에도 혁신에 대한 계획이 없음. - 매년 증액되는 예산 집행의 근거가 부족하며 자원확보 및 효율성을 위한 노력이 없음. <p>■ 다원예술매개공간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 및 조직의 구성, 연계협력 등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판단됨. -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성격의 명확성을 제고하기가 어려웠다고 사료됨. - 주어진 사업계획을 놓고 보았을 때 대부분 주어진 임무는 완수되었음. - 예산의 집행 역시 대체로 사업계획 당시에 수립된 내용에 따라 이루어졌음. - 사업의 핵심문제인 다원예술에 대한 정확한 규정 및 범위설정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았음. - 사업 운영의 초기단계이므로 문제해결에 대한 노력과 의지는 있으나 효율적인 사업운영이 어려움. - 외부의 자원확보나 수익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없음. 	<p>66.7/100</p>
<p>사업 성과</p>	<p>■ 문학관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전용공간 활성화’ 사업은 사업목적이 분명해야 하며, 그에 따른 지표가 반드시 설정되어야 함. - 성과지표가 제시되지 않아 달성여부를 알 수 없음. - 사업의 모니터링 체계가 갖추어 있지 않아 지원금이 실제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없음. - 그 결과 문학관에 지원한 비용은 대부분 ‘시낭송’ 등과 같은 일회성 이벤트에 사용되었으며, 창작 집필실에 대한 지원은 집필실 자체의 운영비로 사용되는 모습을 보임. - 더구나 현장평가 등에서 이미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시정의지는 별로 보이지 않음. <p>■ 공연예술전용공간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적인 성과지표가 설정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만큼의 충분한 자료를 발견하기는 어렵지만, 명시 	<p>64.0/100</p>

	<p>된 자료에 국한해서 볼 때 예상 가능한 성과계획은 비교적 적절하게 보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정된 성과목표지는 상당 부분 달성되었지만, 성과목표지와 실제 성과에서 차이를 보이는 경우들이 발견됨. - 전반적으로 성과보고는 다소 미흡함. - 사업 효용성 제고를 위한 고객수용, 환경분석, 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 등에 대한 모니터링체계가 부족함. <p>■ 인사미술공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적으로 설정한 사업성과들은 상당히 있었다고 봄. - 전반적으로 사업 자체의 목표와 부합되는 성과지표들은 사전에 설정되어 있지 않음. - 자체 사업평가 자료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설문조사 및 지도도 등 외부평가 조사 내역이 부족함. - 고객만족도 평가의 대상이 31명으로 객관적 수치에 달하는지 논의의 여지가 있음. - 성과보고서와 모니터링은 비교적 충실했음. - 고객 수요, 환경분석, 모니터링 체계 등에 대한 효용성 제고, 환류 및 개선노력 등은 다소 미흡함. <p>■ 비영리전시공간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은 대안공간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으나, 그에 대한 근거가 부족함. - 각 대안공간들의 자체평가는 있으나 지원주체의 성과지표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음. - 설정된 구체적 성과지표가 없어 목표지의 달성여부도 알 수 없으며, 고객 만족도 역시 불분명함. - 공간별 성과보고서가 있으며, 성과보고서가 지원대상 별로 작성되어 있음. - 객관적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p>■ 다원예술매개공간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확한 사업 성과지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음. - 구체적인 성과목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성과목표지 달성 여부가 불분명함. - 성과보고서에 나타난 자체평가가 매우 간략하고 자의적이고, 객관적 자료가 미흡함. - 자체 평가결과의 환류 및 개선 노력은 있으나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매우 자의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p>문제점</p>	<p>■ 문학관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작기반 조성 및 문학인프라 확충과 접근성 제고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나 계획단계에서부터 창작집필실 및 문학관을 활용, 창작의 수와 질을 높이고, 문학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의 폭을 넓히겠다는 사업의지 없이 ‘단순히 시설을 지원한다’는 당위론적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 내실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이 되지 못함. - 이에 사업목표는 그대로 두되, 사업방식에 대해선 전면적 혁신이 필요함. <p>■ 공연예술전용공간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으로 설정된 사업 목표지에 비해서 성과단계에서의 실제 목표 달성이 다소 부족함. - 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가 부족함. - 사업 회계 보고가 부실한 경우가 다수 발견됨. - 전반적으로 세부사업 대상자들의 외부 자원 확보 노력이 부족함. <p>■ 인사미술공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미술공간의 사업목표 및 운영실태에 있어 전반적으로 많은 노력과 준비가 따랐음은 분명하나, 구체적인 성과목표의 사전설정이나 그에 대한 관리방안 등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음. - 가장 예산이 많이 배정된 대표적인 몇몇 사업의 경우 인미공의 사업목표와 부합하는지 불분명한 경우 (‘윤복’ 개인전 및 ‘뮤지엄 애즈 허브’)가 있어 차체에 이런 방식의 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사업목적과 추진전략이 타당하고 추진방향도 유효하나, 시행된 사업항목 중 사업선정 및 시행에서 객관성이 부족하고 편협한 문제점이 발견됨. - 운영사업의 시행성과실적 여부와 유효성과 지도도에 의문이 제기됨. <p>■ 비영리전시공간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영리 전시공간 지원은 그대로 대안공간의 지원이라고 볼 수 있어, 각 대안공간들의 ‘대안성’이 어떻게 미술창작 및 신진작가 지원과 시민들의 미술문화향수에 기여하는지 정의를 내려야 할 필요가 제기됨. - 지원기간을 늘리고 액수를 증액하였으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음. - 대부분의 지원대상들이 4~5년 간 연속 지원을 받고 있으나 그에 대한 근거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음. - 대안공간의 구체적인 기여 및 재정 자율성 확보 노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마치 공공기관처럼 운영되고 있음. <p>■ 다원예술매개공간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와 방향이 불분명한 상태로 사업의 실효성과 성과를 담보하기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현황 점검, 사업목표설정, 성과모니터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내용이나 사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았음. - 개별 창작 및 작품의 지원 및 매개에 할당되어 있는 예산이 너무 적고 대상은 너무 많아 자칫 지원의 질이 낮은 사례들을 양산할 우려가 있음. - 자체적으로 사업의 계속적 추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며 폐쇄도 고려하고 있어 성과에 대한 평가가 높지 않음. - 사업목적에 대한 방향성은 일견 타당하나 수요와 지지에 대한 세부검토가 필요함. - 다원매개공간에 대한 개념정의와 운영방안에 대한 제고가 필요함.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장 중요하게는 지원대상 및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필실은 작가들의 창작여건 제고 및 창작활동 활성화로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문학관은 문학에 대한 인프라 확충 및 접근성 제고 등으로 목표를 정할 필요가 있음. • 집필실에 대한 성과는 ‘연간 산출 작품 수’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최소한 1작가 1작품 기준과 같은 객관적 지표가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문학관은 문학에 대한 인프라 확충 및 접근성 제고 차원에서 작가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공연예술전용공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으로 문화예술위원회의 사업 담당 인원을 확대함으로써, 사업 집행단계에서부터 계획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게끔 지도하는 것이 필요함. - 간접지원방식과 연계한 지원방식 개선 및 사업확대 조정 검토 - 회계 보고를 보다 충실하게 시행할 수 있는 지도가 필요함. - 사업 심의위원 및 평가위원 선정시 보다 확대된 인력풀을 가동해야 함. ■ 인사미술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직접 운영방식 보다는 간접지원 및 예술위원회 사업과의 연계성 검토 - 사업 실행 초기단계에서 구체적인 사업성과목표에 대한 평가지표들이 제시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함. - 예산 운용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위한 방안들이 사전에 논의되어야 함. - 사업내용의 범위와 목표 등이 구체화되어야 하며, ‘미술관’ 혹은 ‘아트센터’의 기능과 차별성이 무엇인지 밝혀야 할 필요가 있음. - 비평적, 학술적 기능과 ‘정치적’ 기능의 상관관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조직관리 운영의 개선과 사업 프로그램 선정 및 추진(실행)의 객관적인 수월성을 지향해야 함. ■ 비영리전시공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안공간의 기여 및 비전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과 성과관리가 필요함. - 2년 간 지원하고 평가하기로 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방식과 효율성 제고방안이 필요함. - 그에 따라 자체에 무조건 적인 운영자금의 지원 대신 대안공간의 지원방식과 자율성 및 재정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이 고려되어야 함. - 이를 위해 세부적인 성과목표와 그에 대한 관리체계 및 모니터링 방식이 마련되어야 함. ■ 다원예술매개공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운영에 대한 시행착오 개선이 필요함. 이것저것 해보면서 개선하겠다는 생각보다는 구체적인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선도적인 사업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원예술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지원범위 설정 대신 구체적인 지원범위와 항목들의 제시 필요 - 사업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및 내·외부의 평가체계를 운용함으로써 불분명한 사업 진행을 개선해야 함. - 공간운영 부분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예산의 운용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정확한 지원 및 매개 항목들을 사전에 설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지원 및 매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내부적으로 사업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동기들이 마련되어야 함. 	
	종합 평가점수	68.0/100

12. 미술관 운영 및 기획프로그램

1) 사업목적

사업명	사업목적
미술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슬림한 조직의 기초를 유지하되 내부인력 및 외부인력 구분에 따른 인력운용시스템을 구축. 내부인력은 운영팀과 학예연구팀으로 이원화하고, 외부인력은 협업큐레이터, 게스트 인력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 ○ 내부인력의 자기개발을 위한 연구 프로그램 기획추진 ○ 프로젝트별로 인력의 유동적 배치와 조합이 가능한 기능별 업무분장을 작성하며, 책임기획자 (Chief Producer)가 전체 프로젝트를 총괄 진행 ○ 리노베이션과 그에 따른 공간 운영계획은 미술관의 MI 구축을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기초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급히 요구되는 사안임. ○ 따라서 아르코미술관의 퍼블릭 서비스드 공간화를 위한 하드웨어를 설계할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리노베이션, 로비공간, 기타 시설물 정비에 대한 계획을 추진
미술관기획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히 전시를 구현하는 기능에서 나아가 새로운 프로덕션을 기획 및 제작하는 기능을 강조, 작품 제작 매니징과 홍보, 유통 기능을 제고 ○ 공공적 성격의 프로덕션을 미술관 소장품으로 흡수하는 방안 모색 ○ 위원회 내부의 프로그램 및 시설과 연계하여 기금운용의 시너지 효과 도모 ○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 '09년 프로덕션 전시기획과 연속 추진, 또는 '08년 HW, PA 프로그램과 통합추진 ○ 기존의 교육프로그램을 전시 및 프로덕션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개편, 관객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퍼블릭역세스 프로그램으로 콘셉트를 변경 ○ 아르코미술관 인근의 학교 및 커뮤니티와 연계한 프로그램, 멤버십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아르코 미술관에 대한 관객의 선호도 및 친밀감 증진 ○ 기업, 재단, 병원 등 외부기관과 협업하여 문화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 ○ 아르코미술관의 MI를 구축하는데 기반이 되는 캐릭터 개발 및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진행 ○ 전시프로덕션의 성격에 따라 일간지, 월간지, 텔레비전, 라디오 등의 전통적인 매체뿐만 아니라 인터넷방송, 블로그, DMB 등의 새로운 매체별 PR프로그램기획 ○ 아트펀드 조성운동을 포함하는 미술관의 새로운 운영체계 구축과 마케팅 프로그램 기획을 위한 연구개발 프로젝트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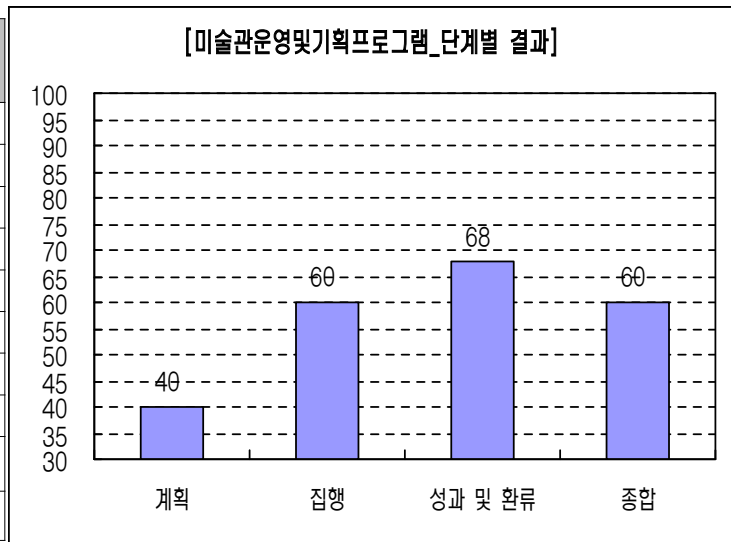
2) 사업 내용

사업명	사업내용
미술관 운영	HR-1 : 인력운영 네트워크 구축 - 내부인력을 운영팀과 학예연구팀으로 이원화하고 각 팀별 총괄기능을 두어 유기적인 조직운영. 국제교류, 홍보, 네트워크 기능 신설 - 외부인력은 게스트큐레이터, 코디네이터, 인턴십 등 이용하여 프로젝트별 운영
	HR-2 : 인적자원 연구개발 프로그램 - 지식생산을 제고하는 직원의 자기개발 연구프로그램을 신설하여 미술관 운영 및 기획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
	HW-1 : 미술관 시설 리노베이션 - 시설 리노베이션을 통해 미술관 공간을 브랜드화하고 제3갤러리를 프로젝트 카페 공간으로 운영, 관람객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수입구조의 다변화를 도모
	HW-2 : 제3갤러리 운영개선 - 기존 제3갤러리를 관람객 확보 및 휴식공간 제공, 전시관련 행사추진 등을 위해 프로젝트 카페로 운영
	HW-3 : 소장품 관리운영 - 아르코미술관 소장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효과적인 활용방안 검토 및 추진
미술관 기획프로그램	PP-1 : 기획전시 추진 - 기존의 기획초대전, 주제기획전, 국제교류전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전시프로그램을 통합관리하여 매 전시별로 '아르코미술관PPP'에 따라 집중도와 연계성을 높이는 전시프로그램을 개발

PP-2 : 프로덕션 프로젝트	- 현재의 전시지원, 소장품관리, 시설관리 기능을 통합연계하여 전문화된 프로덕션 관리체계를 구축
PA-1 :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외부기관과 공동기획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학교연계 프로그램,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대학생 및 일반인 대상 프로그램 등으로 구분하여 추진
PA-2 : 네트워크 프로젝트 개발	- 인근 공공기관 또는 학교, 커뮤니티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참여자들을 충성도 높은 아르코미술관의 고객층으로 연계
PA-3 : AAC 멤버십 프로그램	- 아르코미술관의 각종 프로그램 참가 및 도서 구입, 카페이용 시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아르코예술극장, 예술정보관, 인사미술공간, 인근 레스토랑 등과의 연계를 통해 멤버십 가입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 제공
PR-1 : MI구축을 위한 온라인 프로그램	- 미술관 캐릭터를 개발하여 기존의 미술관 CI와 병행하여 운영 - 아르코미술관의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동시에, 이용자의 참여가 필수적인 블로그 기능에 기반한 미술관 홈페이지 제작
PR-2 : 홍보물 제작	- 미술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광고하는 다양한 매체 홍보물 제작
PR-3 : 마케팅 프로그램 연구개발	- '아트펀드' 등 미술관 운영 및 네트워킹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운영체계 연구개발

3) 평가결과

구분	평가지표(배점)	취득 점수	환산
계획 (20)	미술관운영방향의적절성(10)	4.0	40.0
	사업구성의 적절성(10)	4.0	40.0
집행 (30)	수행조직의 역량평가(10)	6.0	60.0
	서비스 체계 평가(10)	6.0	60.0
	혁신수행평가(5)	3.0	60.0
	재정운영 적절성(5)	3.0	60.0
성과 및 환류 (50)	성과지표 적절성(10)	6.0	60.0
	성과목표 달성도(30)	22.0	73.3
	자체평가체계 수준(10)	6.0	60.0
합계(100)		60.0	



4) 평가근거 및 의견

단계	내용	평가점수
사업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관의 정체성, 적절성, 현실적 가능성 등에 있어 올바른 방향설정이 심각하게 부재함. 기존의 타 미술관이나 대안공간 등과 차별화된 아르코미술관만의 성격과 '브랜드 가치'를 추구할 필요가 있음. - 백화점식 행사구성 및 부대 행사의 과다, 큰 도움이 안 되는 수익성 프로젝트 등으로 인해, 공간 '미술계를 선도하는 중량감 있는 전시와 쟁점 있는 토론의 장'으로 기능해 온 아르코미술관의 위상이 약화된 상태임. - 과거 아르코 미술관은 기초예술 육성 및 강화라는 취지 하에, 타 미술관 및 미술공간들이 가지지 못한 미술계 내의 위상과 영향력을 지닌 공간이었음. 현재 침체한 미술계의 상황에서는 바로 그러한 아르코 미술관만의 활동이 크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자신의 잠재력을 살린 방향설정이 시급히 요구됨. - 공공미술관으로서 전시기획의 질과 성격이 적절하지 않음. 충분한 내용과 대외적 파급력, 기획관점의 참신함을 갖추지 못함. 최근의 트렌드를 의미 없이 부각하는 전시들은 문제가 있음. - 세부사업들을 미술관 역할에 맞도록 충실히 구성하려 노력은 하였으나, 부속프로그램들이 너무 잡다하고 실효성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본 미술관의 성격에 맞지 않음. 본 미술관만의 대안성과 이슈의 성격이 높은 전시에 승부를 거는 태도가 요망됨. - 전체적 예산 배분은 미술관운영(41.5%), 프로그램(58.5%)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그러나 구체적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미술관 큐레이터와 직원들이 당연히 담당할 업무를 외부인력과 기획으로 충당해나가는 등 예산사용의 방만한 면이 있음. 	40.0/100
사업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기획단계에 있어서 전문적 역량과 경륜이 부족하고, 전시주제설정에서 폭넓은 전문가의 조의를 통한 객관성 도출이 부족함. - 반면 직원들 간 업무 배분, 다양한 행사들 간 유기적 연계, 외부인력 참여를 위한 네트워크 운영은 적절한 편임. - 제3갤러리 편의시설 조성, 전시장 매니저 운영, 자체 모니터링 제도 추진, 어린이 전용 교육 공간 조성, 온라인 그림 배달 등 고객의 요구에 대응하려는 노력을 상당히 기울였음. - 그러나 이와 같은 서비스들 중 상당수는 그 실효성이 의문스러울 뿐만 아니라 최근 아르코 미술관이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원인에 대한 대처방안으로서 미흡하며, 업무인력 낭비의 원인이 됨. - 웹사이트, CI문제, 홍보 등에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는 부차적인 요소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시 행사 자체의 수준과 파급력이어야 함. - 전시공간이 매우 노후하여, 최근 미술관 및 갤러리들의 성향과 평균적 수준에 비교하여 크게 미흡함. 이는 최근 아르코 미술관이 미술계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하나의 원인이기도 함. - 전면적인 공간운영계획에 의한 리노베이션이 시급하며, 수준 낮은 공간 장식프로젝트의 남발에 대해 재고해야 함. - "제3갤러리"를 카페로 운영하는 것은 수익창출에 별 필요가 없으며, 본 공간을 미술관의 본연의 기능에 맞게 바꿀 필요가 있어 보임. - 자체 인력으로 커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외부비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음. - 온라인 관객개발, 커뮤니티 프로젝트, 인턴운영, 외부 전문 인력 네트워킹을 통한 인건비 절감, 후원, 협찬, 기부 등을 추진한 점은 우수하나 자체 인력으로도 커버될 수 있는 부분들에 비용발생이 많이 사용되는 것은 조절되어야 함. - 방법적 측면에서는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평가함. 예를 들어 외부 네트워킹을 통한 후원, 협찬, 기부 등을 통한 사업비 절감, 사업별 예산구성 내역 및 집행실적은 적절하다고 평가됨. 반면 많은 외부 조직, 인력과의 협업으로 사업의 집중도가 떨어짐. - 그러나 전체적 성과라는 측면에서는, 성과에 부응하지 못하는 과다예산으로 평가됨. 아르코미술관의 공공적 위상을 감안하면 예산의 증액도 가능하나, 질적 수준이 걸 맞는 사업이 되어야 함. - 모니터링은 객관성이 부족함. 외부기관에서의 공정한 조사과정이 요구되며, 자체조사로 대체하는 것은 무의미함. - 일반 대중관객에 의한 만족도 조사만을 제시할 뿐, 미술전문가들에 의한 광범위한 평가를 수용하고 평가받으려는 노력이 부재함. 	60.0/100
사업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르코미술관의 기본 정체성 자체가 모호한 상태이므로, 결과적으로 여러 기획전들의 기획취지 역시 모호하며 파급력이 미약함. - 각 기획전들은 현대미술의 흐름과 국내미술계의 구도 속에서 참신성과 영향력을 가지기 힘든 주제들임. 	68.0/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편 고객만족도, 시설만족도, 관객증가율 등 성과지표는 대부분 정량적 평가할 수 있도록 짜여 있음. - 전체적으로 '전시주제의 설정', 창의적인 기획관점', '비평적 학술적 내용', '전시를 통해 아르코미술관의 정체성을 부각하려는 전략' 등에 있어 두루 미약함. - 전체적으로 전시들이 이루어내는 하나의 지평, 즉 아르코미술관 만의 색깔이 부재함. 또한 전시의 외적 형식은 갖추고 있으나 내용적 깊이와 비평적 내용이 부족함. - 전시 작가선정 및 외부 참여 전문가등이 특정 계열의 인사들에게 폐쇄적으로 편중되어 있음. 이러한 폐쇄성은 아르코미술관의 공공적 위상과 설립목적에 역행하는 중대한 하자임. 현재 대부분의 미술계 전문가들이 2008년 아르코미술관의 활동에 대해 매우 낮은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을 중시해야 함. - 향후 특정 미술인만의 취향이나 트렌드에 영합하는 전시보다는, 현대미술의 중요한 이슈들을 접근하고 지속적 파급력과 이정표로서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중량감 있는 기획전을 해나가야 함. - 관람객 동원에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관람객 개발을 위한 대안제시가 추상적임. - 전시만족도, 관람목적의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편이나, 향후 자체조사보다 외부 전문가의 평가로 공신력을 가질 필요가 있음. - 미술관의 가장 핵심적인 행사인 기획전시에 대한 미술계 전문가들의 정성평가시스템과 환류과정이 부재함. - 현재 미술계에서 아르코미술관의 공공적 위상 및 파급력을 조사, 분석, 환류하려는 노력이 없음. - 주로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한 고객만족도, 시설만족도, 프로그램참가자만족도 등에 대한 정량적 평가는 자체적으로 많이 수행하였으나, 다양한 성향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객관적 평가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르코미술관의 설립목적과 운영방향이 현재 모호한 상태임. 아르코 미술관의 전신인 '미술회관'이 한국미술사의 여러 중요한 계기들을 담당했던 역사에 비교해 볼 때, 최근 짧은 시일 내에 "아르코미술관이 기존의 다른 사립미술관이나 대안공간들보다 나은 게 없다고 할 정도로 위상이 약화되었다"는 것이 미술계의 폭넓은 평가임. 아르코미술관이 안정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반성과 자기비판이 필요함. - 문예진흥기금으로 운영되는 유일한 공공미술관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동시대 사조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슈를 제시하는 전문성을 제시해야 함에도 기획방향, 전문성 모두 부족함. 이 상태에서 어린이, 대학생, 대학원, 초등교사 교육 등 잡다한 교육프로그램까지 실시하는 등 방만하고 중심축이 없는 무성적 미술관이 되어버렸음. 전시기획하나만으로도 힘이 부치는 상황으로서 역량을 모아야 함. - 전시기획의 내용으로 볼 때 근무인력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하며, 이는 고급 미술관 운영에 큰 문제가 됨. - 인사미술공간과의 이중적인 운영체계도 문제임. 두 개의 공간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위원회 미션과 관련한 운영방식 또는 기능의 전면적 재검토 필요 - 인사미술공간 연계를 통하여 실험적 또는 독립큐레이터 지원공간 등 미술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예술위원회 미션에 적합한 특화된 공간으로 전환 검토 - 아르코의 미술관의 존립위상을 근본적으 다시 성찰해야 함. 아르코미술관은 현재 아무런 대외적 파급력이 없는 '나홀로 미술관'이 되어가고 있으며, 질적인 수준의 획기적 개선이 시급함. - 학예연구인력의 전문성과 경륜의 부족을 시급히 개선토록 하며, 역량 있고 검증된 전문학예인력의 보강이 필요함. - 특히 운영책임자인 관장이 일정 기간 소신을 가지고 개선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소 3년 이상 임기를 보장하며, 필요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함. - 다른 미술관들의 열악한 예산을 고려해 볼 때, 두 기관에 투여되는 18억원의 예산은 적은 예산이 아니며, 새로운 체계로 대폭 개선이 요망됨. - 전시장 및 공간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시설 개선이 요망됨. 단기간적 필요에 의한 시설개선보다는 전시시설의 전면적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확보, 수장고 확충, 편의시설 확대 및 고급화 등 근원적인 공간운영계획에 따른 시설 개선이 필요함. - 무료 개방을 통한 공공성 강화: 전시입장료의 경우 유료관객에 비해 무료 관객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음. 이미지연대기(864:7,069), 고우영전(1,684:10,209), 윤석남전(1,569:7,857)으로 이런 상황에서 유료 운영은 의미가 없음. 보다 많은 사람들이 미술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공공성적인 측면에서 무료로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함. 	
종합 평가점수	60.0/100	

13. 예술정보관 운영 및 기획프로그램

1) 사업목적

- 예술 창작 및 연구를 위한 정보 지원의 거점공간으로서 아르코예술정보관의 서비스 환경 유지
- 예술창작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여 보존·정리하고 그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의 예술적 창조력을 개발함.

2) 사업내용

- 사업내용
 - 아르코예술정보관 시설 및 기자재 관리·운영
 - 아르코예술정보관 이용자 서비스 운영
 - 각종 예술콘텐츠와 기록물의 수집 (예술사구술채록 포함)
 - 예술콘텐츠와 기록물의 DB 구축 (메타데이터와 콘텐츠 자체)과 서비스
 - 예술콘텐츠의 활용과 예술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사업기간 : 연중

3) 평가결과

구분	평가지표(배점)	취득 점수	환산
계획 (20)	운영방향의 적절성(10)	8.0	80.0
	사업구성적절성및기여도(10)	8.0	80.0
집행 (40)	수행조직의 역량평가(10)	6.0	60.0
	서비스체계평가(20)	17.0	85.0
	역신수행평가(5)	4.0	80.0
	재정운영 적절성(5)	4.0	80.0
성과 및 환류 (40)	성과지표 적절성(10)	7.0	70.0
	성과목표 달성도(20)	16.0	80.0
	자체평가체계 수준(10)	8.0	80.0
합계(100)		78.0	

[정보관운영및기획프로그램_단계별 결과]

단계	점수
계획	80
집행	78
성과및환류	78
종합	78

4) 평가근거 및 의견

단계	내용	평가점수
사업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기록보존기관으로서 관련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예술의 가치를 확산하고 보전하는 업무를 문화예술위원회의 비전과 전략의 연관 하에서 설정함으로써 기초예술의 창작환경개선 및 자생력 강화 달성에 부합함. -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고 있으며, 사업추진전략과 추진과제의 선정하기 위해 정책 환경 변화를 적절히 진단하고, 추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정되어 목표달성의 가능성이 높음. - 예술정보화 전략계획부분에 있어서 콘텐츠의 수집, 제작은 원활한 반면 서비스 부분에서 다소 미흡함. - 인력과 예산이 사업추진에 적절하게 책정되고 있으나, 국가 문화예술정보 허브기관으로서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개발이 요구됨. - 아르크예술정보관 세부사업은 예술정보관운영, 예술정보기획프로그램으로 예술콘텐츠수집, 예술콘텐츠서비스, 예술사구술채록사업과 6개 예술사회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예술정보관 운영과 적합함. - 예술정보관 프로그램 사업은 예술 콘텐츠의 수집, 생산, 이용, 보존의 차원에서 균형 있게 진행됨. - 희곡작품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것은 고유성 부분에서 우수한 사업으로 사료됨. - 예술사구술채록사업은 예술사 콘텐츠에 이용 및 보존가치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80.0/100
사업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년 이후 인력이 감소하여 현재 계약직을 포함하여 10명으로, 유사한 규모의 공공도서관이나 전문도서관의 평균 사서 확보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실정임. - 인력 부족의 한계로 다양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 - 고객서비스 현장 및 고객서비스 매뉴얼 등 명시된 고객서비스 프로세스를 충분히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음. - 예술의전당 내 각종 편의시설을 활용할 수 있으며, 아르크예술정보관 내 자료열람과 휴식을 위한 충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음. - 매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이용자의 이용 현황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있고 있음. - 고객별로 이용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제공을 하고 있음. - 예술사구술채록사업 수행 체제를 외부연구영역방식에서 자체 수행으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연구기획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직원연구원을 채용하여 장르별 연구계획 수립함. - 협력형 사업을 진행하여 예산 및 비용절감을 위해 노력한 것을 확인 - 예산절감을 위한 협력형 사업 개발로 약 2,400천원의 사업비 절감됨. - 연구 사업은 정보전문가에 의해 수행될 수 있는 영역이므로, 예술정보관 내의 자체 전문인력을 활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였고, 연구내용을 검토한 결과 현황분석 및 기술사항, 법률사항 등 중요한 부분을 균형 있게 고려한 연구로 평가됨. - 운영, 서비스, 보존, 교육 프로그램 등에 고르게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판단됨. - 회계처리는 예술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어 적절하고 투명함. - 다양한 협력사업을 개발하여 관련 사업비를 절감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사업에 대한 예산은 예산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균형 있게 집행하였고,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는 예산의 30% 이내 수준에서 필요시에만 집행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음. 	77.5/100
사업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는 고객만족도, 이용도, 자료충실도의 세 항목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설정한 도서관 평가지표 및 국립중앙도서관의 공공도서관 평가지표에 나타난 중요한 지표 항목으로 구성되어 성과지표가 적절하게 구성된 것으로 평가됨. - 전년도 추세치를 반영하고, 적극적인 업무추진 의지를 반영하여 성과목표치를 상향 편성하였음. - 대부분의 정보관/도서관 이용자는 시설/환경 등의 물리적 조건보다 장서 및 이용 서비스를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도서관 평가 연구들에 나타남. - 고객만족도를 제외한 2개의 성과지표 모두 성과목표치 초과달성 - 고객만족도 지표의 경우, 품질지수, 만족지수, 성과지수의 측면에서 2007년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8.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용도 측면에서는 200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온라인 이용도가 최근 2-3년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콘텐츠 및 서비스 확충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됨. - 소장 자료는 도서, 비도서, 영상, 음악, 뉴미디어 자료 등으로 일반 타 도서관에 비하여 특수 자료를 다량 제공하고 있음. - 월별 통계수집 정례화, 프로그램별 고객만족도 조사 등 사업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체제 구축하고, 	77.5/100

	<p>설문평가, 평가보고 등을 통하여 효과성 및 개선사항을 파악하는 노력을 실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사구술채록사업의 경우, 중간점검 워크숍, 전문가 활용, 세미나를 실시하여 사업 추진 중간 단계에서의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함. - 사업효과성 지수의 개발 및 관리로 투입 대비 실적에 대한 평가체계 강화 - 사업의 기획단계와 성과평가단계에서 내부 자체세미나를 통해, 비교적 효율적인 사업추진체계를 제도화함.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콘텐츠의 다양화 및 서비스 미흡 - 예술활동 종사자 또는 예술활동 현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함에 있어서 장르별로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활동이 부족하여, 특정 장르의 자료를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국가 문화예술정보 허브기관으로서의 대표성 취약 - 예술정보 허브기관으로서의 대표성 강화를 위한 사업 개발이 다소 미흡. - 중장기 사업비전에서 명시되고 있는 문화예술종합정보센터로서의 선도적 지위와 교류협력부문에 대한 좀더 적극적인 사업개발이 요망됨. ○ 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에 대한 예술정보관의 역할 - 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내부의 지원활동에 관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생산하고 전국의 문화예술재단과 연계한 자료수집 및 활용이 필요함. - 위원회의 정책홍보부와 연계하여 업무 효율적 분담이 필요하며, 이에 적합한 인력의 추가적인 확보 및 전문가 충원이 필요함. ○ 전문가 평가 및 환류과정 필요 - 개별 기획프로그램의 자체평가와 외부전문가 평가 등이 상시화 되어, 비교적 활발히 실시되고 있으나, 상위 수준에서 예술정보관의 정보자원개발과 보존, 서비스 등 기본적 정책방향에 대한 전문가 평가 및 환류과정이 설정되지 못함.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정보 사업의 협력체계 구축 -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 서울문화재단 서울연극센터 등과 공연예술기록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시각예술 분야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국가기록원, 지방자치단체들의 문화예술진흥재단, 문화예술기관, 도서관, 민간기관이 연계된 협력체계구축이 필요하며, 협약 체결을 확대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정례화 하는 등 협의체 구성과 협력사업 개발 ○ 국가 문화예술정보 허브기관으로서의 대표성 강화 - 예술정보에 특화된 것은 아니나, 국가기록원이 국가적으로 분산, 존재하는 기록물을 수집, 보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예술분야 기록에 대한 사업이나 연구도 계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따라서 이러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제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국내 문화예술정보센터의 개념을 확장하여, 국내외 문화예술정보자원을 연계하는 글로벌 포털로서 개발할 필요가 있음. 세계적인 범위가 부담스럽다면, 동북3개국 문화예술교류를 촉매하는 포털로서 발전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대한 중국어, 일본어, 영어 등 다국어 서비스의 개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예술위원회내에서 문화예술정보허브기관으로서의 발전가능성이 미흡할 경우 별도의 독립도 검토 ○ 문화예술콘텐츠의 다양화 및 서비스 개선 - 콘텐츠 확충은 이용자별 서비스 확대, 고객만족도 증대를 위해 중요한 분야로 파악되므로 사업 분야별 비중에서 가중치를 높게 주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소장 자료들의 온라인 서비스의 내용과 품질을 다양화하기 위해 저작권 보상이 가능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논문, 저술, 사료집 출판 등에 있어서 예술정보관 소장 자료들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언론이나 방송관계 기관에 적극 홍보하여 예술정보관의 존재와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주력하여야 함. ○ 전문성을 갖춘 인력 보강 - 예술정보관은 정보전문가, 주제전문가, 관련 서비스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인력 부족의 한계로 다양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보존이나 기술 분야의 전문성이 보강되어야 하는 상황임. - 예술정보관 운영에 필수적인 학예연구원, 아키비스트, 컨서베이터, 전산프로그래머 및 기획자 등 전문 직역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함. ○ 예술사회교육프로그램 조정 - 6개의 예술사회교육프로그램들이 예술정보관 고유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하다고 판단하지만 고객관 리차원에서 불가피한 측면과 수십년간 지속된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합리적인 차원에서 조정이 요구됨. 	
종합 평가점수		78.0/100

14. 작은 도서관 조성

1) 사업목적

- 독서 생활화를 통한 21C 지식강국의 구현
- 참여와 자치에 기반한 지역문화 공동체 형성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8년 3월 ~ 2008년 12월
- 사업규모 : 60개소 내외 조성
 - 지역 거점 작은도서관 조성(40개소 내외) 지원, 소외지역 작은도서관 조성(10개소 내외), 상호대차시스템구축 지원(2개소 내외), 주제별 특성화도서관 조성(4개소 내외), 저개발국가 작은도서관 조성 보급(5개소 내외)
- 지원규모 : 문예예술진흥기금 50억원
 - 문예예술진흥기금과 지방비 매칭 : 지방비(시·군·구)는 30%이상 부담

3) 평가결과

구분	평가지표(배점)	취득 점수	환산
계획 (20)	지원목적 적합성(10)	4.0	40.0
	사업구성 적절성(10)	4.0	40.0
집행 (30)	추진방식 효율성(10)	10.0	100.0
	계획대비 집행실적(10)	10.0	100.0
	사업및예산효율성제고노력(5)	5.0	100.0
	재정운영 적절성(5)	5.0	100.0
성과 및 환류 (50)	성과지표 적절성(10)	6.0	60.0
	성과목표 달성도(30)	22.0	73.3
	자체평가 및 환류(10)	8.0	80.0
합계(100)		74.0	

[작은도서관 조성_단계별 결과]

단계	점수
계획	40
집행	100
성과및환류	72
종합	74

4) 평가근거 및 의견

단계	내용	평가점수
사업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은 문화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식정보 및 생활문화서비스를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작은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취약 지역 지역정보 및 생활문화서비스 제공이라는 사업목적에는 충분히 기여한 바 있으나,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예술진흥’이란 목적 하에 사용되도록 조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영목적에 부합했다고 볼 수 없음. 즉, 사업 취지는 좋으나 그 성격 상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는 예술진흥의 목적성 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이 문제점을 인식, 2009년부터 동 사업을 자체예산으로 조달하도록 되어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세부사업으로 ‘소외지역 작은도서관’, ‘상호대차시스템구축’, ‘특성화작은도서관’, ‘저개발국 작은도서관’ 등으로 구성, 소외지역을 돕거나 도서관 운영을 돕는 등 예술진흥과 관련 없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원목적과 부합한다고 볼 수 없음. - 사업수혜의 범위 또한 예술가와 관련이 없고, 정부사업(국립도서관 주관사업)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정부기관에 공적기금을 사용했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임. 	40.0/100
사업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사업은 자체적으로 작성한 집행흐름도에 따라 적절히 집행되었음. 특히 신청에서 심사, 교부 및 평가 등의 단계를 거쳐 적절히 수행됨. - 예산대비 집행률이 99.6%로, 대부분 계획이 예산대로 집행되었음. -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실태에 관한 현장조사를 실시함. - 12개소를 대상으로 한 현장조사 결과 전반적 운영상태가 100점 만점 82점으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다만, 상대적으로 높은 90점대를 받은 도서관이 5개소인 반면, 80점대 점수는 1개소, 80점대 이하의 점수도 6개소로 나타나, 잘하고 있는 곳과 잘못하고 있는 곳이 양분되고, 중간이 적어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필요함. - 동 사업은 국립도서관, 예술위, 시군구 등이 참여, 적절한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많음. 	100.0/100
사업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조성건수’ 1개로 구성되어 있음. - 작은도서관 사업이 조성을 목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조성건수로 목표설정도 가능하나, 조성과 더불어 활용 측면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성과지표 상 ‘이용자 만족도’가 설정 필요 - ‘상호대차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 부가를 위한 사업이 추진된 만큼, 이에 대한 시행결과도 성과 지표 내 포함되는 것이 필요 - 동 사업은 50개소 조성이 목적이었으나, 총 74개소를 조성, 계획대비 106% 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하여 성과달성이 매우 탁월함. - 사업에 대한 보고서는 사업개요, 평가결과, 운영자 실태조사결과 등으로 작성, 충실하게 꾸려져 있음. - 그러나 실제 사업추진에 대한 상세한 결과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수행사업에 대한 세부결과들에 대해 보다 정확한 보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72.0/100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사업은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사업목적과 체계가 문제임. 즉, 작은도서관 건립이란 항목 자체는 ‘예술진흥’과 그다지 관련이 없으며, 사업주체 또한 <국립도서관>으로 민간 예술분야 지원을 목적으로 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목적과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동 사업이 2009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의 자체 예산사업으로 추진되기로 결정된 만큼, 해당 사업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추진되기 보다는 정부예산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다른 한편, 성과목표 또한 ‘조성건수’ 단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어 다소 문제를 지니고 있음.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사업은 지적한 바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 자체 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성과지표 상 ‘조성건수’ 하나로는 사업 성과 측정 불가함. 특히 ‘조성건수’는 지원만 하면 자연스럽게 도출된 목표표, 성과지표로 부적절함. 오히려 세부적으로 △조성건수, △이용자 수 및 만족도, △상호대차서비스 참여 도서관 수, △도서관 내 대출건수, △도서관 내 프로그램 운영 건수 및 참여자, 만족도 등 도서관 서비스 다양화와 프로그램 다양화 차원에서 보다 다양한 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종합 평가점수		74.0/100

15.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순회

1) 사업목적

- 문화 인프라 시설이 부재한 문화 소외지역 주민과 문화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향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문화적 격차를 해소함.

2) 사업내용

사업명	사업목적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순회사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방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은 7개 분야 7개 향수층을 구분하여 사전 문화향수층을 확보하여 기획성 제안공모를 통해 고급 프로그램 보급추진 - 제안이 결정된 협업예술단체는 우리 위원회가 설계 제시한 전체기획과 충분히 연계하여 순회 일정, 지역, 사업내용 등을 위원회와 상호 협의하여 개별 세부계획을 수립하되 협업조건 이행약정 체결을 통해 추진함. - 우수프로그램개발 추진단체에 대해 차기년도 “우선협업결정” 이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추진의 동기를 유발시킴과 아울러 그로 인해 생산된 다양한 프로그램의 축적과 활용으로 지원컨설팅 기능과 기획력을 점차 제고 ○ 협업단체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개 분야(문학, 시각예술, 연극, 음악, 무용, 전통예술, 문화일반) 종합 심의 - 7개 향수층(향수 대상층을 신청서에 명기)에 부합되는 제안사업 선정 - 지역별 향수단체의 수요자 분포로 순회단체 비율을 조정하여 선정
장애인 문화접근성 확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업대상 사업 : 장애인이나 장애인 단체에 의한,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분야(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문화일반 등)의 문화예술 사업 -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의 문화예술 활동 - 장애인을 위한 각종 문화예술 보급 및 참여활동

3) 평가결과

구분	평가지표(배점)	취득 점수	환산
계획 (20)	지원목적 적합성(10)	10.0	100.0
	사업구성 적절성(10)	8.0	80.0
집행 (30)	추진방식 효율성(10)	8.0	80.0
	계획대비 집행실적(10)	10.0	100.0
	사업및예산효율성제고노력(5)	4.0	80.0
성과 및 환류 (50)	재정운영 적절성(5)	4.0	80.0
	성과지표 적절성(10)	8.0	80.0
	성과목표 달성도(30)	24.0	80.0
	자체평가 및 환류(10)	8.0	80.0
합계(100)		84.0	

[소외지역을찾아가는문화순회_단계별 결과]

단계	점수
계획	90
집행	87
성과및환류	80
총합	84

4) 평가근거 및 의견

단계	내용	평가점수
사업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문화향수권 신장, 문화적 격차 해소 및 문화복지 사회구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과 복권사업기금 목적에 적합함. - 세부사업 주관단체는 전반적으로 지원목적에 적합했으며, 사업수혜대상자의 범위와 규모도 적절하였음. - 그러나 예산투입규모를 80% 지원, 20% 자체자금 추진이라는 성과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추진된 이 사업에서 예술적 수월성을 평가한다는 것은 무리한 일이라고 생각됨. 	90.0/100
사업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행체제 개선, 협력자·협력기관의 책임성 강화, 사업대상·수혜자 선정의 합리성 제고 등을 통하여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의 흔적은 높이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장평가 결과에 따르면 일부는 추진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대처방안이 미숙했음. - 연간 201개 단체가 총 1,337회 순회하여 단체별 평균 7회를 순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연간 총예산 46억 3천만원이 100%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자체모니터링 결과에 근거하여 하반기부터 협력기관 발굴하여 행정지원, 관객동원, 사전홍보, 주민의 관심 유도 등을 강력히 지원하고, 순회단체는 프로그램 질을 높이는데 주력하게끔 강구한 점은 적절한 처사임. - 순회사업, 추가순회사업, 시범사업의 예산구성 비율의 근거가 나타나지 않음. - 지원금카드제 도입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음. - 외부자원 활용은 중소기업근로자를 위한 문화순회에 700만원이 전부임. 	86.7/100
사업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7년도에 대비한 08년도의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는 적절하다고 평가됨. - 08년도 성과목표 달성도는 관객참여수 99.1%, 만족도 96.2% 달성으로 매우 우수함. - 사업결과보고서, 수혜자 만족도 조사결과 보고서, 홍보성과 보고서 등 충실하게 작성되었다고 평가됨. - 모니터링 21회를 통해 당해연도 사업에 적용하는 한편 09년도에 본격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임. 	80.0/100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회공연 장소와 시설이 공연에 적합하지 못하고, 접근성과 편의성이 낙후되어 있는 점, 공연시간의 제약으로 공연작품을 축약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문제점 - 이는 복권기금 수혜자 만족도 조사결과의 문화순회사업 포도폴리오에서도 점진적 개선영역으로 제시되고 있음. ○ 소외지역(계층)순회사업 중 문학부문 프로그램은 참여자(수강자)수가 절대 부족(미흡)하고, 기획력과 진행력 부족으로 행사(사업)의 목적이 불명확하다는 현장평가자의 의견이 있음. ○ 군부대 순회공연은 대상부대 선정이 늦어져 준비기간이 없었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매우 민감한 군부대 내부 사정으로 일정 및 프로그램 등의 변경이 빈번할 수밖에 없는 특수 상황임 ○ 소외지역 순회공연사업 중 전통예술 부분에서 1억원의 지원을 받은 단체의 공연은 만족도나 성과 면에서 볼 때 예산을 조정하거나 차기년도 지원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사업의 경우는 연초의 당초예산에 반영·지원하여 충분한 시범기간동안의 사업결과를 평가하고 사후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지원 선정된 단체의 책임지와 기획지는 반드시 사전에 순회대상 지역과 시설을 답사하여 참여대상자의 특성과 성향을 분석하고, 시설환경을 점검하여 참여자와 시설여건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밀도 있고 짜임새 있게 구성해야 함. - 군부대, 교정시설, 장애인 시설 등의 경우 특히 참여대상자(관객)를 고려한 작품선택 - 전통예술공연의 경우 해당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에 맞는 내용의 작품선택 ○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순회사업의 목적 중의 하나는 문화예술에 소외된 주민들에게 문화예술을 이해시키고 관심을 유발시켜 주민들이 문화예술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동기 제공 및 성취욕 제고이라는 점에 유념 - 공연프로그램의 경우, 작품개요해설과 등장인물 및 등장 악기 등을 소개하고, 작품의 연희 가운데 참여들 중에서 일부를 출연시키거나 참여자 전체가 출연자들과 어우르는 기회를 매끄럽게 엮어 나가는 연출이 필요 - 체험교육프로그램의 경우, 1개 단체 5개 지역 4회 교육을 지역수를 줄이고 교육회수를 늘려서 직접 완성할 수 있는 기회제공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30회 이상의 교육을 통한 영상 콘텐츠 제작 교육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업과 중복 됨. ○ 만족도 조사결과 소외지역 문화순회사업의 포도폴리오에 의하면 행사에 대한 홍보와 행사 안내자료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어 홍보활동을 적극 강화하여 인지도를 높여야 함. - 협력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홍보활동을 적극화 시켜야 함. - 위원회 자체에서도 사업의 종합홍보와 월별·지역별 사업홍보 등 새로운 홍보 아이템을 개발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종합 평가점수		84.0/100

16. 문화소외계층 대상 문화나눔

1) 사업목적

사업명	사업목적
사랑티켓	저소득 소외계층외 시민들의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의 향수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시민들의 문화향수 수준을 제고
문화바우처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해 문화활동에 제약받고 있는 저소득층(장애인·아동 등)에게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 향수기회를 제공하여 저소득층의 문화향수권 신장 및 삶의 질제고
문학나눔	온 국민이 고루 문학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빈사상태에 빠진 창작문학의 활성화와 더불어 문화예술 전체의 창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 실시
전통나눔	우수한 국악공연 및 보급사업을 통해 소외계층의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하고 국악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며 이를 통한 국악의 대중화 및 생활화를 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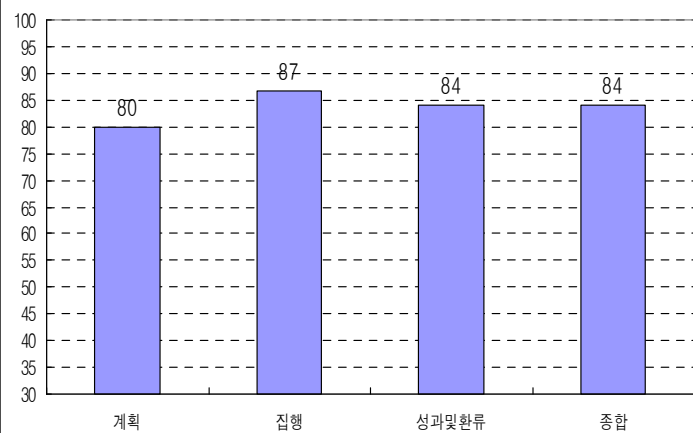
2) 사업내용

사업명	사업목적
사랑티켓	사랑티켓을 활용한,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관람 비용 일부 보조
문화바우처	- 저소득층의 문화수요가 높은 공연, 영화, 전시의 관람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현장에서의 만족도 높은 문화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획 및 진행 - 복권기금 및 국고로 추진되는 공익사업임을 감안 사업진행, 예산집행, 결산, 실적보고 등 사업 추진 전반에 걸쳐 공정성 및 합리성 제고
문학나눔	- 소외지역 우수문학도서보급사업 : 분기별로 우수문학도서를 선정하여 문화소외지역에 보급하는 사업 - 문학향수사업 : 문학을 쉽게 접할 수 없는 독자, 문학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독자, 그리고 늘 문학과 함께 하는 독자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문학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그 저변을 확대함. - 기획사업 : 기업이나 외부재단 등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문학나눔사업의 문학콘텐츠를 활용에 진행하는 사업
전통나눔	기금의 성격을 감안하여 종래 국악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목표로 한 기존의 사업성격을 전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접근성 확대와 교육 및 보급사업으로 추진

3) 평가결과

구분	평가지표(배점)	취득 점수	합산
계획 (20)	지원목적 적절성(10)	8.0	80.0
	사업구성 적절성(10)	8.0	80.0
집행 (30)	추진방식 효율성(10)	8.0	80.0
	계획대비 집행실적(10)	10.0	100.0
	사업및예산효율성제고노력(5)	4.0	80.0
성과 및 환류 (50)	재정운영 적절성(5)	4.0	80.0
	성과지표 적절성(10)	8.0	80.0
	성과목표 달성도(30)	26.0	86.7
	자체평가 및 환류(10)	8.0	80.0
합계(100)		84.0	

[문화소외계층대상문화나눔_단계별 결과]



4) 평가근거 및 의견

단계	내용	평가점수
사업 계획	<p>■ 사랑티켓</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복권기금의 지원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됨. 더욱이 미래의 잠재고객인 아동·청소년들에게 관람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더욱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들이 미래의 문화예술의 주역이라는 점에서 문화예술 ‘진흥’이라는 목적에 부합함. - 사랑티켓의 대상자를 사랑회원과 나눔회원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자체는 유효적절하다고 판단되나 나눔회원의 경우, 지나치게 사회적 약자 혹은 경제적 약자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흠임. <p>■ 문화바우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여건으로 문화활동에 제약을 받는 취약계층(장애인, 아동, 노인을 포함 한 기초생활수급권 및 차상위계층) 등에게 문화예술 향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목적과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의 목적 부합 - 전국 16개 시도 주관처를 지정하여 사업운영하여 현장 최종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서비스를 제공 - 문화 향수 기회 제공이라는 사업 이념과 적용 방안에 대한 재해석과 새로운 접근 방안에 대한 모색 필요 - 지역 주관처를 운영하여 현장에 맞는 문화복지 서비스 제공과 사회복지/문화예술단체 등과의 지속적 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 홍보에 노력 - 수혜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프로그램 지원과 차량 및 식사 제공 등 부대지원을 병행하고 있음. <p>■ 문학나눔, 전통나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지역적 소외계층의 접근성 제고를 목적으로 계획되었던 바, 근거자료 및 사전 평가를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기금지원의 목적에 적절하게 부합하는 사업이라 평가됨. - 문학나눔 사업의 경우 적절한 수혜 또는 참여 주체를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다고 사료됨. - 전통나눔의 경우 수혜 또는 참여 대상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였다고 판단됨. 	80.0/100
사업 집행	<p>■ 사랑티켓</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랑티켓의 집행과정 전반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운영된다는 점, 지역의 기초자치단체별로 산재되어 있던 주관처를 광역단위로 통합하여 일괄 관리된다는 점에서 사업추진 방식의 적절성과 효율성이 인정됨. - 사랑티켓사업개선안 및 중장기 전략연구 용역을 수행하여, 이에 기초한 다양한 개선 노력이 이루어졌음. - 지방비 매칭 비율의 상향 조정으로 가용예산의 범위를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만함 <p>■ 문화바우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사무소,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네트워크 등과의 협력체계 마련 - 월별 프로그램 기획과 사업 운영 결과 와 평가를 통해 운영에 반영 - 환경과 수혜자 변화를 반영한 사업 내용의 수정과 보완 - 주관처 외 고객 편의성 및 인증방법의 합리성 제고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주민통합정보시스템 연계망 구축함. - 각 지역의 기초생활수급권 인구 대비를 기반으로 지역 예산이 배분 - 이용자의 불편함을 행정안전부의 주민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해소하고자 노력 - 작품 수급 시 문화예술 단체와 매칭하여 지원 확대 - 기부를 통한 재원확보(기부 실적: 티켓과 임차료 579,341,756원). <p>■ 문학나눔, 전통나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와 별도 조직으로 전담 사무국을 통해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효율성 및 기획성이 확보 됨. - 두 사업 공히 전년대비 감소된 예산으로 진행되었으나 자질 없이 만족도 및 목표를 달성 - 외부재원 확보는 미미하였다고 판단되나 수익성 제고는 사업의 취지를 고려해 비중을 낮게 두고 평가함. 	86.7/100
사업 성과	<p>■ 사랑티켓</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관객수와 수혜자만족도 측면의 성과목표 설정과 이를 검증하기 위한 자체 평가제도 등의 시스템 과 지표가 잘 짜여져 있으나, 이와 같은 방법은 여타 사업의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것임. - 참여관객과 수혜자 만족도 양 측면 모두에서 목표치를 초과달성하였음. - 사랑티켓 주관처에 대한 관리 및 평가, 그리고 모니터링제도의 운영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을 때 평가체제가 우수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불량 주관처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 등은 높이 평가할만함. <p>■ 문화바우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 전국만족도 조사 실시 및 각 지역 주관처 별로 고객만족도 실시 - 홈페이지 게시판, 후기 및 현장평가를 통한 만족도 제고노력 - 유효 표본 크기가 작아 확대 해석의 어려움이 있음(N=140,000 유효 표본 크기 404 명) 	84.0/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기관 평가 및 주관처 현장 평가, 서면 평가 실행 - 사업 종료시 성과보고서 제출, 서면 평가 자료로 활용 - 세부추진계획서에 명시 된 사업 지침에 근거한 성과보소서 작성 및 평가지표 작성 - 각 지역 주관처 현장평가 및 서면 평가를 통한 주관처 지속여부 결정 - 고객만족도 및 현장 서비스 조사, 사업 추진방향의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방안도출 ■ 문학나눔, 전통나눔 - 평가지표의 구성은 평이한 수준이었으며, 사업 특성을 고려할 때 정성적 성과지표의 추가적인 개발이 요망됨. - 계량화된 지표상의 성과목표와 만족도가 달성되었다고 평가됨. - 사업결과보고서는 대체적으로 충실하였다고 판단됨. - 고객수요, 환경 분석 및 객관적인 모니터링 체계는 추가적인 노력이 요망됨.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랑티켓 - 사랑티켓제도를 지나치게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한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듦. - 현재의 제도에서도 사랑티켓제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적음. 사랑회원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대학생의 경우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지만, 나눔회원의 경우 잘 알려져 있지 않음. - 사랑티켓과 문화바우처 대상, 해당사업의 범위와 내용 변경과정에서 사업의 중복 ■ 문화바우처 - 사회 서비스, 문화복지서비스로서의 문화바우처사업은 문화향유자 확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 지난 2~3년간 평가를 통해 사업 운영 추진의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섬세한 사업 운영은 수혜자가 선택권을 보장하여 지역, 장르의 폭을 확대 해야 함. 지역과 장르의 편중을 막고 수혜자의 선호도를 반영한 1인당 지원액 책정 등 수혜자 범위와 규모 책정의 일괄적 운영에서 벗어나야 함. ■ 문학나눔 - 예술의 접근성 제고 차원에서 작품의 보급과 접점 확산을 위한 노력이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단순 보급 및 확산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양적인 확산에 주력하는 단계에서 내용적인 몰입을 심화하려는 노력이 요망됨. ■ 전통나눔 -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프로그램의 경우, 그들이 일방적으로 대상화되거나 단순한 보여주기에 수준에 머물러 동 사업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우려됨.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랑티켓 - 더 많은 국민에게 사랑티켓제도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복권기금이 아닌 일반 문예진흥기금에서 부담 필요 - 관객개발을 위한 사랑티켓 제도와는 별도로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은 별도의 바우처 사업으로 통합 검토 - 사랑티켓제도에 대해 홍보는 주관처 만이 아닌 사랑티켓 지원대상 공연단체를 통해 홍보가 더 효율적일 가능성이 높음. 즉 해당 단체의 공연장에서 사랑티켓 지정단체가 자체 수단을 활용한 홍보야말로 Core Target에 대한 접촉도가 높기 때문임. ■ 문화바우처 - 사업이 효율적이며 세심한 운영을 위한 방향과 추진 체계가 구축되어 가고 있는 과정으로 이를 위한 사례분석과 연구가 필요. 사업의 취지와 의미를 지역인들에게 홍보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 내야함. - 경제적 소외계층의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 이념과 적용 방안에 대한 재해석과 새로운 접근방안에 대한 모색 필요. 또한 수요와 지지 검토 방법에 대한 새로운 방법과 이를 통한 사업 운영 발전을 위한 쟁점 도출 및 환류 방안 구축이 필요. - 지역 주관처 선정 및 관리 방안과 관련 인력 재교육 및 연수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 ■ 문학나눔 - 수혜자들이 보다 심층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향후 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적 참여를 유도해야 함. - 보급 및 확산 단계에서 참여자들의 내용적 심화, 발전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개발이 요망됨. ■ 전통나눔 - 매년 재원의 규모와 지속 가능성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사업이 기획된다는 고충을 심본 이해하나 현재 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혜자들을 위한 기획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단순하거나 일회적인 공연형태로부터 진일보한 형태로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기획되어야 함. - <찾아가는 공연>의 기획은 이미 그 실효성에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으므로 사업 취지가 지속적으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기획이 요망됨. 	
종합 평가점수		84.0/100

17. 지역문예기반시설활용예술프로그램제공

1) 사업목적

사업명	사업목적
지역문예 기반시설 활용 공연 프로그램 제공	- 지방 문예회관의 시설특성을 활용한 질 높은 프로그램의 지원을 통해 지방문예회관 운영의 활성화를 기함. - 지역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관람기회를 제공하여 지방의 문화향수권을 신장함.
지역문예 기반시설 활용 전시 프로그램 제공	- 사립박물관·미술관(기업지원 관 제외)을 거점으로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실버문화학교 지원	- 실버세대가 문화 역량을 발굴·개발하고 문화를 매개로 다른 세대와 소통하고 지역과 연계하여 사회참여 및 봉사활동,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적극적인 문화실천 프로젝트

2) 사업내용

■ 지역문예 기반시설 활용 공연 프로그램 제공

- 사업기간 : 연중

■ 지역문예 기반시설 활용 전시 프로그램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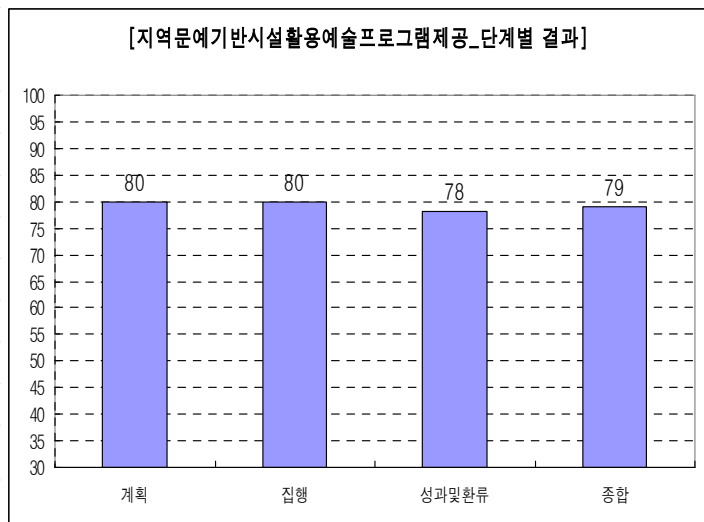
- 재정형편이 열악한 사립박물관 · 미술관에 특별전 운영 프로그램을 통한 소외계층 지원

■ 실버문화학교 지원

- 사업기간 : 연중
- 시행주체 : 지방문화원(시·도지회 제외)
- 지원대상 : 100개 문화원, 1개원 1개 프로그램

3) 평가결과

구분	평가지표(배점)	취득 점수	환산
계획 (20)	지원목적 적합성(10)	8.0	80.0
	사업구성 적절성(10)	8.0	80.0
집행 (30)	추진방식 효율성(10)	8.0	80.0
	계획대비 집행실적(10)	8.0	80.0
	사업및예산효율성제고노력(5)	4.0	80.0
	재정운영 적절성(5)	4.0	80.0
성과 및 환류 (50)	성과지표 적절성(10)	7.0	70.0
	성과목표 달성도(30)	24.0	80.0
	자체평가 및 환류(10)	8.0	80.0
합계(100)		79.0	



4) 평가근거 및 의견

단계	내용	평가점수
사업 계획	<p>■ 지방문예회관 특별공연프로그램개발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문예회관 활성화, 문화소외지역 및 계층의 문화향수권 보장, 문화예술단체의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목적과 일치함. - 문화예술자체가 공공재이며, 문화예술적 경험은 개인적 경쟁력으로써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지방은 상대적으로 문화예술 향수기회가 적는데, 지역의 문예회관을 지원함으로써 문화적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점에서 공익성이 큼. -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 상 시설유지관리 외 사업비의 부담능력이 한계가 있으며, 문화예술자체의 특성상 단체나 관람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목적 및 해당단체 지원사업 목적에 적합하며 사업수혜, 참여대상자의 범위와 규모, 지원예산이 전반적으로 적절함. - 본 사업은 우수공연 프로그램의 지원예산을 1개 문예회관 당 6천만원 이내로 제한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최소화함. - 유사사업으로는 경기문화재단의 ‘소외계층 문화예술향유증진’ 사업이 있으나 사업 방식 및 사업 범위가 전혀 다름. 사업방식에 있어, 경기문화재단은 지역 내 단체들을 일반 공모하는 사업과 복지관에서 행사를 열도록 직접 지원하는 형태이나, 본 사업은 우수공연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문예회관에 제공함. 또한 해당 지역(경기)내 단체들이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한정적인 사업인 반면 본 사업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p>■ 지역문예기반시설활용 예술프로그램지원(사립박물관, 미술관전시지원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박물관·미술관의 특별전시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예술기반시설을 활용한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고취를 이루는 사업으로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지역문예기반시설활용 지원사업으로 적합함. - 전국 각 지역의 다양한 계층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나눔 사업으로 전개되어 형식적인 행사가 아닌 실질적인 문화나눔에 도움을 주는 행사로 기획되었음. <p>■ 실버문화학교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60세 이상 소외된 노년세대의 문화향수권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사회참여의 기회를 마련하여 적극적인 실버세대로 양성하므로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목적에 부합됨. - 실버문화학교는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소외된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이들이 수혜자에서 2차 창작자로 지역사회 기여를 이끌어내는 한편 세대통합의 매개자로서 지역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회복한다는 의미에서 사업의 목적이 타당하고 적절함. - 실버문화학교가 표방한 가치는 실버세대들을 문화 소외계층이나 단순한 교육복지 수혜자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지역 문화예술 활동가로 임파워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사업수혜 참여대상자의 범위와 규모 지원예산이 전반적으로 적절함. - 사업 시행 문화원을 해마다 확대하여 전국 문화원을 ‘실버문화거점센터’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사업 공모 시 예산기준, 프로그램 유형, 우수사례, 운영 시스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사업 속자를 위한 선학습이 가능하도록 함. 	80.0/100
사업 집행	<p>■ 지방문예회관 특별공연프로그램개발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문예회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문예회관의 전국단위조직인(사)전국문예회관연합회를 사업추진 주체로 정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됨. 전국문예회관연합회는 총 11명의 직원이(3팀 : 운영관리팀, 사업지원팀, 교류협력팀)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함. - 사업추진 방식도 전반적으로 적절함. 사업계획은 전국문예회관연합회 내 운영위원회를 통해 논의되었으며 우수공연 프로그램 선정 위원회(5인)를 통해 수요조사를 통해 걸러진 추천작품을 심의하고 선정하여 프로그램의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함. - 환경변화에 따른 대처는 매우 적절하게 잘 이루어짐. 연도별 예산이 삭감된 상황에서도(04년 142억, 05년, 06년 94억, 08년 31억) 매우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방비 매칭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하여 지방주민들의 관심과 문예회관의 자생력을 증진시켰으며 예산 대비 사업의 급격한 사업 축소방지 함. - 사업 및 예산의 집행은 1분기에 사업준비 기간으로 집행율이 다소 저조하였으며 주로 2,4분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집행됨. 향후 문예회관의 연중 공연일정을 감안하여 예산집행에 대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사업별 예산 구성은 전반적으로 적절함. 지방 문예회관의 경우 100% 사업비 전액지원이 아닌 40%~60%를 지원하는 매칭사업으로 자부담금 투입을 통하여 사업의 관리향상과 책임감 및 자생력을 고취시킴. - 예산은 지원금 관리규정 및 집행지침에 적합하게 지원되었으며 회계처리는 회계관리시스템 구입을 	80.0/100

	<p>해 세부사업별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함. 또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지원대상 지역 확정 후 지역에 맞게 예산조정을 하여, 프로그램 소요경비를 최소화 하였으며 반납금에 대한 프로그램 추가배정으로 집행 잔고의 최소화를 도모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정산지침을 명시하여, 철저한 정산서 검수하였으며 이를 평가에 반영함. ■ 지역문예기반시설활용 예술프로그램지원(사립박물관, 미술관전시지원사업) - 인력 부분 및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에서는 크게 두드러지는 효과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79개 전시 프로그램의 진행 내용으로 볼 때 대부분 사업이 추진과정에서 적절했고,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의 대응도도 적절했음. - 대부분의 사업이 관람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전시라는 형태를 띠고 있어 문화 소외계층에게 문화적 향유 기회를 제공하지만, 이후로는 관람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완성하는 형태의 참여형 전시가 보다 많이 확대 되었으면 함. ■ 실버문화학교지원 - 전국의 문화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한국문화원연합회를 사업추진 주제로 정한 것은 매우 바람직함. 한국문화원연합회는 1962년 설립되어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과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민족문화의 국제적인 교류와 창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이며 총 11명의 직원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함. - 사업추진 방식도 전반적으로 적절함. 실버문화학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기금을 교부 받아 한국문화원연합회 산하 전국 223개 문화원 대상 공모를 통해 사업추진 역량 및 기초기반 구축 여부를 판단함. 별도의 심사단(심사위원 6인)을 통해 총 100개의 문화원을 선정 사업을 진행토록 하고 한국문화원연합회는 사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구성하여 사업컨설팅 및 추진과정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도록 함. 또한 연중 3회의 워크숍을 개최 사업추진의 적정성 및 합리적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됨. - 기획단계에서부터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사업 세부 추진과정에 대한 사전 검토 및 협의를 통해 사업 계획 수립-추진을 함. 협의 완료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월별 예산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신청, 교부받아 집행함. - 문화원연합회는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한 실버문화축제 외, 모든 사업은 지방문화원 공모를 통해 실시하였으며, 특히 축제는 지방비(1억5천)에, 기금(1억5천)을 매칭하여 성공적으로 집행함. - 협력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으로 책임성을 강화함. 실버문화학교는 최초계획서 작성시 사회참여 및 연계활동에 관한 Plan을 수립하여 기재토록하고 그에 따른 실시여부 및 성과를 최종평가시 반영함. - 각 유형별 프로그램(강연, 공연, 제작, 특색)교육의 최종 성과물은 반드시 지역 내 연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실현토록 규정하고 각 기관별 담당자와의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상호 홍보 및 파급효과를 공유토록 설계함. - 실버문화축제 개최 시 전주시와 공동으로 협약을 맺고 개최하였으며 총 축제사업비 3억원 중 50%인 1억5천만원을 전주시에서 매칭으로 추진하여 사업집행자 및 협력기관 관리 및 책임성을 확보함. - 사업 계획 내 월별 예산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매월 배정받았고, 계획된 예산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함. - 매월 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을 작성하였으며, 문화부와 교육진흥원이 사업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 상황을 점검함. - 효율적 예산계획 및 철저한 사후관리로 집행 잔액을 최소화 하였으며 예산통제를 위한 기준을 제시함. - 기타운영비 집행시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한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마련할 수 있도록 주기적 모니터링을 시행하였으며 사업추진간 과목간 예산 변동까지도 사전 승인을 받도록 지침을 하달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 가이드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08년도 8,066,915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얻음. - 사업실적보고 및 정산 후 차기년도 사업 신청시 예산집행을 및 집행잔액 분석을 통한 예산수지의 효율적 조정을 체계화함으로써 예산 및 비용절감을 시행함. - 사업별 예산 구성은 전반적으로 적절함. 개소당 10,000,000원을 100개 기관에 제공함. - 예산은 지원금 관리규정 및 집행지침에 적합하게 지원되었으며 회계처리는 회계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해 세부사업별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함. 	
<p>사업 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문예회관 특별공연프로그램개발지원 - 총괄적인 성과지표와 세부사업별 성과지표가 설정되었으며 비교적 적절함. - 관객 및 참여자 만족도 조사가 실시되었음 - 전년도 성과와 만족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목표를 재설정하고 과학적으로 성과결과를 도출함. - 사업계획에 의한 본 사업 주지표와 보조지표 모두 당초 계획한 성과를 초과 달성함. 개별 프로그램의 예산절감 등으로 시행 규모(건수)와 수혜대상기관 확대 실현함. - 성과보고서(지원사업결과보고서)가 매우 충실하게 작성됨. - 자체 평가가 매우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준 높게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사업의 추진현황 및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도 매우 적절함. ■ 지역문예기반시설활용 예술프로그램지원(사립박물관, 미술관전시지원사업) 	<p>78.0/1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실시한 자체 조사에 의하면 최종수요자들의 만족도 및 지원대상들의 만족도는 모두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함. 2008년부터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구축하였는바, 목표 점수는 80.3점이었으며 결과는 82.7점으로 집계되었다고 보고됨. - 성과 보고서에 나타난 자체 평가 체계가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 사업 효과성 제고 위한 환경 분석과 앞으로의 계획과 예산 배정과의 관련성에 대한 부분을 연계 짓는 보고 내용이 첨부 되었으면 함. ■ 실버문화학교지원 - 실버문화학교는 기존의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프로그램이 가지는 한계를 벗어나기 위하여 추진계획 시 단계별 추진 기준을 설정 노인세대가 문화예술을 통한 삶의 질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 삶 안에서 자신의 존재가치를 깨닫게 함은 물론 사회참여를 통한 경제적 주체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함. 또한 실버문화학교 수료자 중심의 자생적 동아리가 구성되어 현재 전국 70여개의 동아리가 활동 중임. - 사업전체의 참여자수목표 170%달성, 고객만족도113%달성하여 목표치를 상회함. - 만족도 조사에서는 85.72점으로 평균 만족도 82.7점보다 3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체 평가가 매우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준 높게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사업의 추진현황 및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도 매우 적절함. - 실버문화학교 자체 환류 시스템 정리 성과정리표 서면조사, 실무자 자체 분석평가 및 참여자 만족도 실시 	
<p>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문예회관 특별공연프로그램개발지원 - 예산의 불안정성으로 사업의 효과성 저하 : 2004년-2008년 5년간 지원금이 해마다 변화를 보임. 04년 142억, 05년,06년 94억, 08년 31억으로 계속 축소되었으며 이는 지방문예회관의 지원사업의 변경, 축소를 초래하며 사업의 계획적 운영과 사업의 효과성을 저하함. - 지방문예회관 활성화를 위한 일률적 지원의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여건과 지방문예회관의 운영여건의 차이를 인정하여 각각의 문예회관의 활성화를 위한 차별적 운영 전략이 요구됨. 현 지원방식은 지역 및 지방문예회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단순히 우수공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일부 지방문예회관들은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참여하는 일부 기관들도 형식적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향상시키지 못함. - 지역 특성에 맞는 우수공연 프로그램 선정 및 지방예술단체의 육성 필요 : 우수공연 프로그램이 대도시 중심으로 활동하는 공연단체 혹은 문화예술교육 단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서울을 중심으로 한 문화소비 층 혹은 향수층에게 맛 들여진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쏟아 놓다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우수 공연 프로그램의 장르 및 인기에 따른 편중화 : 우수공연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프로그램들이 문예회관 담당자의 선호도 및 내용에 대한 인기도에 따라 편중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음. 이는 지원 프로그램의 장르와 내용의 편중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타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의 부족 : 지역사회에 분포되어 있는 다양한 단체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지역문예기반시설활용 예술프로그램지원(사립박물관, 미술관전시지원사업) - 2007년 평가에서 논의된 문제점으로 보여주는 전시 방식 외에 관객 참여형 전시의 개발 및 관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병행함. ■ 실버문화학교지원 -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못함 : 지역별 지원 프로그램 내용이 유사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독특성과 창의적 요소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역특성 및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요망됨. - 타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이 부족 : 지역사회에 분포되어 있는 다양한 단체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더 많은 지역 내 유사기관(단체)의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이 요구됨. - 전문인력의 집중 양성 및 보급 필요 : 지방문화원의 경우 계약직 사무국장 및 간사 2인으로 사무국을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따라서 실버문화학교의 중장기적 발전과 사업주체인 지방문화원의 지역 문화 거점센터 차근을 위해서는 지원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 - 실버문화학교 정체성 확립 재고 : 지역사회 내 다양한 조직과의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체 및 내용, 목적의 명확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사회봉사인자 일자리 및 소득창출로 연계되는 프로그램인지 혹은 문화리더의 양성인지 명확히 해야 함. 	
<p>개선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예기반시설활용 예술프로그램지원(사립박물관, 미술관전시지원사업) - 전시가 일방적으로 보여 지는 방식 보다는 관객 참여형 전시들이 최근 들어 많이 행해지고 있어 미술에 대한 소외 계층들의 미술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 시킬 뿐만 아니라 지속시키고 있음. 따라서 본 사업의 방향도 앞으로는 각 사립 미술관 박물관의 이미지를 알리기 위한 전시의 형태 보다는 관객들과 함께 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이나 참여형 전시와 체험 교육 프로그램의 병행을 실시 하고 있음. 	
<p>종합 평가점수</p>		<p>79.0/100</p>

18. 문화예술서적발간

1) 사업목적

- 위원회의 정책 방향에 맞춰 '정기간행물(문화예술)', '단행본(총서)', 'DB콘텐츠(문예연감)', '온라인 매체(웹진 아르코)' 등을 운영하여 기관 인지도 및 예술의 가치를 제고시킴.

2) 사업내용

■ 문화예술

- 발간주기 : 계간
- 연간 발간회수 : 4회(328호~331호)

■ 문예연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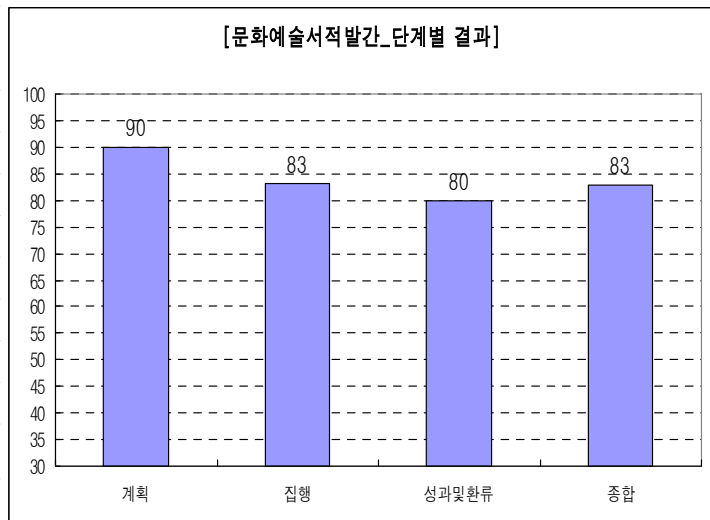
- 발간주기 : 연 1회(발간예정일 '08.10월)

■ ARKO BOOKS(총서) 발간

- 발간종수 : 연간 3종 내외
 - '06 기 기획추진 중인 <문예진흥원 32년사> 별도 발간
 - '07 기 기획추진 중인 <퍼블릭>, <로컬액츠>, <도시재생>발간
 - '08 신규 추진 <전통시대 지원제도사>, <문화시설 재난대책 업무매뉴얼>, <서울의 미, 이미지 비평> 발간

3) 평가결과

구분	평가지표(배점)	취득점수	환산
계획 (20)	지원목적 적합성(10)	10.0	100.0
	사업구성 적절성(10)	8.0	80.0
집행 (30)	추진방식 효율성(10)	8.0	80.0
	계획대비 집행실적(10)	8.0	80.0
	사업및예산효율성제고노력(5)	4.0	80.0
	재정운영 적절성(5)	5.0	100.0
성과 및 환류 (50)	성과지표 적절성(10)	8.0	80.0
	성과목표 달성도(30)	24.0	80.0
	자체평가 및 환류(10)	8.0	80.0
합계(100)		83.0	



4) 평가근거 및 의견

단계	내용	평가점수
사업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성보다 공공성을 우선하여 발간한다는 취지는 자체적으로 명시한 목적에 보다 적합한 사업이었다고 판단됨. - 본 사업이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계의 전반적인 기여도를 적극 고려한 것으로 보임. - 다년간 지속해 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보다 발전된 대안을 스스로 제시함. - 계간지 발간 사업의 경우 타 단체의 사업과 중복되므로 이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늦게 제시된 것이 아쉬움. - 단행본 발간의 경우에도 기관과 수주사업처간의 편집과 기획 부분의 역할 구분이 불명확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스템 개선이 절실히 요구됨. - 단행본 발간 사업의 경우 초기 사업 단계이므로 미완된 부분이 발견되었지만 스스로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와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되어 있어 높게 평가됨. 	90.0/100
사업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수의 인력으로 진행한 사업임을 감안해 보면 비교적 효율적으로 진행됨. - 전문 필진 개발, 문화예술 전문 출판사들과의 효율적이고도 유기적인 연계 가능성 등등을 적극 모색하고자 하는 추진 계획을 높이 평가함. - 사업집행 초기부터 결과까지 집행이 비교적 일지하고 있으며 타당성 있는 예산 집행이 실행되었음. - 연감을 제외한 발행물 중 계간지의 경우, 변화모색 노력이 보다 빨리 진행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반면 간행본의 경우 시행 초기 단계이므로 보다 효율적인 제고 노력이 기대됨. - 예산 편성 및 회계 처리는 모두 적절하였다고 보여 진다. 반면 공공성을 띠는 성격이 강한 사업의 경우 현실적인 재정지립과 부족한 인력이라는 어려운 점을 적극 감안해야 함(백서 발간 및 연감발간 등). 	83.3/100
사업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에 따른 성과 지표는 적절하였다고 보여지며 대부분의 사업이 상업성 보다는 공공성을 우선시 하여 상업 예술보다는 순수예술 중심이었기에 성과 목표치 및 결과가 낮게 측정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적극 감안됨. - 적은 수익보다도 고객이 더 중요하며 공공성과 상징성에 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옳바르다고 판단됨. - 자체적으로 설정한 목표치에 비교적 성실하게 접근하였다고 여겨짐.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목표 설정에 있어 보다 사업 주관처의 주체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 같고 수정 및 보완에 적극 대응하길 바람. - 성과 보고서는 성실하게 작성되었으며 자체 평가 역시 성실하게 수행되고 있었음. 특히 백서의 인쇄 매체와 e-book을 혼용하여 사용, 구체적인 데이터는 온라인을 참조토록 하여 백서발행 단가를 현저히 낮춘 것을 높이 평가하였음(7만원에서 3만원). - 2007년과 2008년 사이에 자체 평가 결과의 환류 및 개선 노력이 적어 아쉬움으로 남음. 	80.0/100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의 경우, 계간화된 2007년과 2008년의 사업 내용과 형태가 비슷하고 큰 변화가 없었음. 더욱이 2007년부터 타 기관에서 발행한 기관지와 유사성이 일찍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에 이에 대한 시정 및 모색이 전무했음. - 웹진의 경우에도 최근 진행되는 다양한 웹진과의 차별성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함. - 단행본 발행의 경우, 진행 사안과 결과물 보다는 과정을 우선시 평가해야 함. - 우선 주관처와 수주처인 출판사 간의 관계가 모호함. 편집 및 기획 단계가 모호하여 전혀 파악할 수가 없었을 뿐 아니라 해당 기관의 역할조차 불분명함. - 이에 해당 사업에 대한 공모, 선정, 기획 및 평가 위원을 구성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하나 현재 인력과 예산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듦.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문화되는 계간지 발행의 경우, 원활한 발간 뿐 아니라 배포 및 보급에 적극적으로 고민이 따라야할 것으로 예상됨. 해외 공관과 외국인 직간접 관련 기관 및 시설에 적극 배포해야하며 국내외 외국인 관련 공중 장소에 적극적으로 노출되어야 함. 또한 전문 번역, 운영에 따른 추가 인력 확충이 시급함. - 단행본의 경우 상업성보다 공공성을 우선시해 양질의 도서 발간에 주력함. 사업에 대한 공모는 적합한 대안으로 여겨지며 출판 관련 사업처나 관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기획을 적극 수용하는 것이 올바른 듯함. - 다만 기획 단계에서 수익에 대한 리스크를 일정 정도 기관에서 앓고 간다는 점이 이점으로 작용하므로 이를 적극 수용하여 좋은 양서 발간에 모태가 되어야 함. 다만 선정 및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며 순수예술 우선, 대중성 보다 전문성 재고 등과 같은 철저한 기획과 원칙을 우선적으로 설정해야 함. - 웹진의 경우에도 최근 많은 후발 주자들과의 중복성을 피하는 기획의 변화가 요구됨. 명확한 독자 선정 및 이에 대한 구체적인 편집이 선행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보다 전문화 되거나 혹은 반대로 일반 대중에게 교육적 효과와 문화예술에 대한 쉬운 접근을 모색하는 편집 방향 등을 적극 고려해 선택 후 진행되어야 할 듯함. 	
종합 평가점수		83.0/100

<첨부 1> 2008 문예진흥기금사업 평가단 및 소위원

□ 2008 문예진흥기금사업 평가단

분야	성명	소속
평가단장	서연호	고려대 국문학과 명예교수
평가위원	임학순	가톨릭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평가위원	하계훈	단국대 대중예술대학원 교수
평가위원	정재알	전 서울예술단 이사장
평가위원	이용관	한국예술경영연구소장
평가위원	김준교	중앙대 예술대학장
평가위원	양건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평가위원	박은실	추계예대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교수
평가위원	백령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연구원
당연직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장
간사위원	정광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

□ 2008 문예진흥기금사업 평가 소위원회

성명	소속
강윤주	경희사이버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김남수	무용 평론가
김동연	경희대 아트퓨전디자인 대학원 교수
김두영	경희대 연극영화과, 연출가
김성호	쿤스트독미술연구소장, 중앙대 서양화과 겸임교수
김원방	홍익대 미술대학원 예술기획과 교수
김주호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라도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민현식	한국종합예술대학 건축학과 교수
박성혜	무용 평론가
박우찬	경기도미술관 학예관
박일호	이화여대 조형예술대학 교수
박정양	삼육대 작곡과 교수
심재민	한국연극학회 이사
엄미선	한국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유진상	계원디자인예술대학 시각예술학과 교수
윤명원	단국대 음악대학 국악과 교수
이범현	서울미술협회 기획이사
이은미	백석예술대 예술경영 교수
이종인	문화행정연구소장
이지연	연세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이태섭	용인대 연극학과 교수
전경욱	고려대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정현태	국립중앙도서관 연구원
최병식	경희대 미술대학 미술학부 교수
최현묵	대구가톨릭대 무용공연학과 교수
최예실	경희대 국문학과 교수

<첨부 2> 2008 문예진흥기금사업 평가지표

■ 단위사업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배점
계획 (30)	사업 계획 (20)	1) 사업목적과 내용이 명확하며, 전략목표 달성에 적합한가?	4
		2) 기금지원이 목적에 타당하며, 정부/지자체와의 중복되지 않게 기획되었는가?	4
		3) 지원대상의 선정이 합리적·공정하(이)고, 성과목표 달성에 적합하게 이루어졌는가?	4
		4) 현재 사업추진(지원)방식 또는 지원/평가방식이 가장 효율적인 방식인가?	4
		5) 현재의 지원수준 및 범위는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적합한가?	4
	성과 계획 (10)	6)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가 의미 있고,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설정되어 있는가?	4
		7) 성과목표치/지표를 객관적으로 평가/검증하기 위한 조치가 되어 있는가?	3
		8) 민간/문화예술계의 여건을 고려하여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나 조치를 수반하고 있는가?	3
집행 (20)	9) 전반적인 사업과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정보 및 추진실태, 성과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파악하여 활용하고 있는가? 10)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11) 사업추진의 효율성 또는 예산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또는 실적이 있는가? 12) 관련된 다른 사업/관련 기관의 협조 또는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	5	
		5	
		5	
		5	
성과 (50)	13) 당초 계획된 성과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 14) 사업고객이나 사업이해관계자가 만족하고 있는가? 15) 평가결과가 제도개선, 예산배분, 지원대상 선정 등에 반영되고 있는가? 16) 2007년 평가결과 새건 권고사항을 지원계획 및 집행에 반영하였는가?(해당사업)	25	
		10	
		5	
		10	
합 계			100

■ 세부사업 평가지표(지원사업 공통평가지표)

구분	평 가지 표	평 가 기 준	배점	평점
계획단계 (20)	1-1. 지원사업 자체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목적과의 적합성	- 단체별 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목적과의 적절성 및 기여도 - 전반적인 지원목적의 명확성 및 적절성 - 지원을 통한 단체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의 목표 달성 가능성 - 지원의 수요와 지지에 대한 검토 수준	10	×2
	1-2. 세부사업의 구성의 적절성 및 기여도	- 세부사업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목적 및 해당 단체 지원사업 목적과의 적합성 - 세부사업의 범위/지원예산 사용(비율)의 적절성 - 사업수혜 또는 참여 대상자의 범위·규모 및 적절성 - 세부사업의 해당 단체 타 사업과의 차별성(일반지원공모사업과의 차별성 또는 고유성) 및 참신성(예술적수월성)	10	×2
집행단계 (30)	2-1. 사업추진 방식의 적절 성 및 효율성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인력 및 조직의 적절성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다른 사업 또는 연계 협력 - 사업목표 달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과정의 적절성 - 환경 변화 및 사업성격 변화에 따른 대처방안	10	×2
	2-2. 사업계획 대비 집행실적	- 사업의 계획대비 집행결과의 일지도 - 사업 및 예산의 집행을 -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근거 및 타당성 여부	10	×2
	2-3. 사업 및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치	- 사업의 문제 해결(특히 지적된) 노력 및 성과 - 동일한 예산을 사용한 경우 사업의 효율성 제고 노력 및 성과 - 예산 및 비용절감을 위한 조치 및 노력 - 연례적 사업의 경우 혁신 의지 및 노력(개선) 여부	5	×1
	2-4. 재정운영의 적절성	- 사업별 예산 구성 내역의 적절성 - 회계처리의 적절성 및 정확성 - 외부의 재원확보 또는 수익성 제고를 위한 노력(재정자립도 제고)	5	×1
성과 및 환류 단계 (50)	3-1. 총괄적인 성과지 표 및 각 사업별 성과지표의 적절성	- 총괄적인 성과지표의 설정여부 및 적절성(사업목적과의 인과관계) - 세부사업별 성과지표의 설정여부 및 적절성(성과목표치 포함)	10	×2
	3-2. 성과목표(고객만족도 포 함)의 달성도	- 설정된 성과지표의 성과목표치 달성여부 - 고객(참여자)의 만족도	30	×6
	3-3. 자체 평가체계 및 평가 의 환류	- 성과보고서(지원사업결과보고서) 작성의 충실성 - 성과보고서에 나타난 자체 평가체계 및 수준 -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고객 수요, 환경 분석, 사업의 추진현황 및 성과 등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및 적절성 - 자체 평가결과의 환류 및 개선 노력	10	×2
계			100	

※ 기관평가는 별도의 평가지표를 적용함.

■ 미술관 운영 평가지표

구분	평가지표	평가기준	배점
계획단계 (20)	1-1. 미술관 운영 방향의 적합성	- 미술관 운영 방향의 정체성 - 문화예술위원회 정책 목표와의 적합성(부합성) - 미술관 운영 방향의 현실성 - 문화예술위원회 예산 및 자원제공 적절성	10
	1-2. 세부사업 구성의 적절성 및 기여도	- 미술관 세부사업의 적합성 - 세부사업의 범위/지원예산 사용(비율)의 적절성 - 세부사업의 고유성 및 참신성	10
집행단계 (30)	2-1. 수행조직의 역량평가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의 적절성 - 사업목표 달성의 위한 인력의 전문성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인력의 열정과 몰입수준	10
	2-2. 서비스 체계 평가	- 고객별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명시된 서비스 프로세스의 구축수준 - 서비스를 위한 공간 인프라의 적절성 수준 - 고객접점의 서비스 품질 수준	10
	2-3. 혁신수행평가	- 미술관 운영에 대한 혁신 적용 사례 창출 수준 - 예산 및 비용절감을 위한 조치 및 노력 - 혁신 의지 및 노력여부	5
	2-4. 재정운영의 적절성	- 사업별 예산 구성 내역의 적절성 - 회계처리의 적절성 및 정확성 - 외부의 재원확보 또는 수익사업의 적절성 및 노력 - 사업대비 집행실적	5
성과 및 환류 단계 (50)	3-1. 총괄적인 성과지표 및 각 사업별 성과 지표의 적절성	- 총괄적인 성과지표의 설정여부 및 달성여부 - 세부사업별 성과지표의 설정여부 및 적절성	10
	3-2. 성과목표(고객만족도 포함)의 달성도	- 설정된 성과지표의 성과목표지 달성여부 - 고객(참여자)의 만족도	30
	3-3. 자체 평가체계 수준	-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고객수요·환경분석 - 사업의 추진현황 및 성과 등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및 적절성 - 자체 평가결과의 환류 및 개선 노력	10
계			100

■ 예술정보관 운영 평가지표

구분	평가지표	평가기준	배점
계획단계 (20)	1-1. 정보관 운영 방향의 적합성	- 정보관 운영 방향의 정체성 - 문화예술위원회 정책 목표와의 적합성(부합성) - 정보관 운영 방향의 현실성 - 문화예술위원회 예산 및 자원제공 적절성	10
	1-2. 세부사업 구성의 적절성 및 기여도	- 정보관 세부사업의 적합성 - 세부사업의 범위/지원예산 사용(비율)의 적절성 - 세부사업의 고유성 및 참신성	10
집행단계 (40)	2-1. 수행조직의 역량평가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의 적절성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인력의 전문성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인력의 열정과 몰입수준	10
	2-2. 서비스 체계 평가	- 고객별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명시된 서비스 프로세스의 구축수준 - 서비스를 위한 공간 인프라의 적절성 수준 - 고객접점의 서비스 품질 수준	20
	2-3. 혁신수행평가	- 정보관 운영에 대한 혁신 적용 사례 창출 수준 - 예산 및 비용절감을 위한 조치 및 노력 - 혁신 의지 및 노력여부	5
	2-4. 재정운영의 적절성	- 사업별 예산 구성 내역의 적절성 - 회계처리의 적절성 및 정확성 - 외부의 재원확보 또는 수익사업의 적절성 및 노력 - 사업대비 집행실적	5
성과 및 환류 단계 (40)	3-1. 총괄적인 성과지표 및 각 사업별 성과 지표의 적절성	- 총괄적인 성과지표의 설정여부 및 달성여부 - 세부사업별 성과지표의 설정여부 및 적절성	10
	3-2. 성과목표(고객만족도 포함)의 달성도	- 설정된 성과지표의 성과목표지 달성여부 - 고객(참여자)의 만족도	20
	3-3. 자체 평가체계 수준	-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고객수요·환경분석 - 사업의 추진현황 및 성과 등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및 적절성 - 자체 평가결과의 환류 및 개선 노력	10
계			100

2008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평가 (요약보고서)

2009

한국문화관광연구원